

농업·농촌경제 동향

2002 가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 및 농업종사자의 의사 결정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농업관측정보/농업농촌경제동향”)

작성자: 농업정보화팀(김경덕/정학균/송우진)

연락처: 3299-4240 / 팩스: 965-4395

목 차

<요 약>

I. 국제경제 동향

- 1. 경제성장 1
- 2. 환율 및 원유가격 3

II. 세계 농업 및 농정 동향

- 1. 세계 농업과 농정 5
- 2.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 14

III. 국내경제 동향

- 1. 경기 22
- 2. 소비 및 투자 25
- 3. 수출입 및 무역수지 28
- 4. 고용 29
- 5. 물가 31
- 6. 금융 및 외환 35

IV. 농촌경제 동향

- 1. 농촌물가 37
- 2. 농가교역조건 40
- 3. 주요 품목의 농업소득 41
- 4. 농업인력 42
- 5. 농산물 수출입 43

V.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

1. 식량작물 및 사료곡물	48
2. 채소류	53
3. 과일	68
4. 과채류	80
5. 축산	94

부 록

2002년 3/4분기 농업관련 주요 보도 동향	107
---------------------------------	-----

<요 약>

I. 국제경제 동향

- 미국경제는 실물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 상존.
- 대부분의 전망기관들은 3/4분기에는 2/4분기보다 높은 3%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며, 연간으로 2%대의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일본경제는 생산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지속되어 왔으나, 내수부진, 수출둔화 등 성장 모멘텀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
- 유로 경제는 2/4분기 GDP 0.4%의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으나, 최근 생산 및 수출부진 등으로 경기회복 지연 전망.
- 물가상승률이 ECB 기준선인 2.0%를 상회하고 있는데다 홍수피해 등으로 각국의 재정적자 폭이 확대되어 금리인하, 재정지출 확대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사용 곤란.
- 중국경제는 위안화 약세에 따른 수출증가, 산업생산 호조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간 7% 이상의 성장이 전망됨.

II. 세계 농업 및 농정 동향

- 달러환율은 일본·유럽 등 주요국의 주가하락과 경기회복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9월 중순 이후 횡보세.

- 9월중 국제유가는 이라크가 국제사회에 화해 제스처를 취하는 가운데, 미국의 독자 공격 가능성 대두로 올해 들어 최고가격 수준을 유지.
- 일본 농림수산성은 농업·농촌의 구조개혁과 식과 농의 재생플랜을 실현하기 위해 농림수산 행정조직을 개편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편하여 소비자중심의 행정으로 전환을 도모.
- 일본은 쌀 생산조정제도를 현행의 면적관리방식에서 수량관리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 현행 쌀 생산조정제도는 '논농업경영확립대책'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논에서 맥류, 대두, 사료작물 등을 본격적으로 생산하여 곡물자급률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
- 2001년도 중국의 대일무역은 수출입 총액이 878억 달러(전년대비 5.5% 증가)로, 그 중 수출이 450억 달러(7.9% 증가), 수입이 428억 달러(3.1% 증가)를 기록하여 수출입 모두 3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
- 중국은 농업·농촌진흥대책으로서, 또 WTO 가입이 중국 농업에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대책으로서 '농업산업화정책'을 추진. 농업산업화정책이란 농산물유통·가공 등 농업관련산업 육성에 의한 농업진흥을 목적으로 한 농업·농촌정책을 뜻함.
- 러시아 상원은 금년 7월 농지양도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 이 법률에 의하여 러시아에서는 농업부문 투자액이 다소 감소하는 동시에, 농촌지역 고령자에 대한 사회보장수준도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농업부(USDA)는 2002년 농업법(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잠정적인 자율 원산지 표시에 관한 지침을 발표.
- 대만 농업위원회(Council of Agriculture)는 금년도 대만의 수입쌀 판매량은 예상보다 부진하다고 발표. 대만은 금년 1월 1일 WTO 가입을 계기로 수입쌀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음. 수입쌀 판매가 저조한 원인으로 저품질을 들고있음.
- 중국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하여 발효시기를 앞당겨 조기 시장개방을 단행한다는 방침을 결정. 단계적으로 개방하되, 농산물에 대해서는 2003년에 단행한다는 것.
- 2002/03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대두를 제외한 쌀, 소맥,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2.6% 감소한 18억 1,441만톤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2002/03년도 곡물 총 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4억 6,105만톤을 더한 22억 7,547만톤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3.7% 감소할 전망이다.

III. 국내 경제 동향

- 2002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건설투자와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설비투자와 수출의 증가세는 확대되어 전년동기대비 6.3% 증가함.
- 산업생산은 2001년 4/4분기부터 증가세로 반전하여 2002년 2/4분기 6.8%, 7월 8월에는 각각 8.7%, 8.5% 증가하여 그 상승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반도체, 자동차, 사무회계용기계 등의 생산호조가 높은 수준의 산업생산을 주도하고 있음.

- 출하도 금년 2/4분기 7.7% 증가로 전분기에 비해 증가폭이 감소했으나 높은 수준의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음.
- 2002년 8월 도소매 판매는 도매업, 소매업, 자동차 판매 등 전 업종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6.0% 증가하여, 2/4분기의 6.4%보다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성장을 시현하고 있음.
- 2002년 내수용 소비재 출하는 7,8월 각각 전년동월대비 7.7%, 9.4% 상승하여 1/4분기의 12.0% 증가와 비교하면 그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작년 2/4분기 이후의 견조한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음.
- 2002년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71만 4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6% 증가하여 전년동기의 6.2%보다 3.4%p 증가함.
- 월평균 소비지출은 178만 7천원으로 작년 2/4분기의 166만 8천원에 비해 7.1% 증가함.
- 설비투자는 2002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0.2% 감소세로 반전했으나, 자동차, 일반산업용기계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여 8월에는 전년동월대비 1.3% 증가함.
- 국내기계수주는 민간부문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공공부문이 그동안의 감소세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8월 국내기계수주는 전년동월대비 43.8% 증가함.
- 2002년 8월 국내 건설기성은 민간발주 공사실적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공공발주 공사실적이 크게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5.5% 감소함.

-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부문은 부진하였으나(전년동월대비 -10.6%) 민간부문이 크게 증가하여(전년동월대비 93.8%) 전년동월대비 65.0% 증가.
-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2.6% 증가한 140억 2천만달러, 금년 1~9월 누계로는 전년동월대비 3.0% 증가한 1,175억 2천만달러를 기록.
- 9월중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1.1% 증가한 130억 2천만달러를 기록. 1~9월 수입누계도 1,097억 3천만 달러로 전년동기보다 2.8% 증가하여 수입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
- 1~9월 누계 무역수지는 전년동기대비 46억불 증가한 77억 9천만 달러 흑자 기록.
- 2002년 8월 경제활동인구는 전월대비 1.2% 감소한 2,259만 1천명을 기록했고, 전년동월대비로는 1.4% 증가함. 경제활동 참가율도 61.3을 기록하여 전월대비 0.8%p 감소함.
- 2002년 8월중 실업자는 전월대비 3만 2천명 증가한 65만 8천명, 실업률도 전월대비 0.2%p 상승한 2.9%로 나타났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9만 4천명, 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는 2,193만 9천명으로 전월대비 30만 5천명 감소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41만 5천명(1.9%) 증가함.
- 9월중 생산자 물가는 농림수산품이 태풍 및 추석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채소류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인데다 공산품도 석유·화학제품 및 운송장비 등이 올라 전월대비 0.4% 상승.
- 2002년 9월중 소비자 물가지수는 108.0으로 전년동월대비 3.1%.

전월대비 0.6% 상승

- 2002년 9월중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1.5% 올라 2개월 연속 상승. 이는 공산품이 대미달러 원화 환율의 상승과 원유, 고철 등 주요 수입원자재의 국제가격 상승 등으로 오름세를 지속한데다 농림수산물도 생산량 감소 등의 원인으로 오른데 기인함.
- 2002년 9월중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2.7% 올라 전월에 이어 상승세 지속. 수입물가가 이처럼 상승세를 지속한 것은 대미달러 원화 환율의 상승과 국제원유가격 상승 등으로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가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소비재도 등유 등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크게 오른데 기인.
- M3 증가율은 6월 이후 낮아지기 시작하여 7월중에도 은행민간신용 둔화 추세 및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 등으로 해외부문을 통한 유동성 공급 축소로 12%대 후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됨.
- 회사채 유통수익률 등 장기금리는 미 금융불안의 영향으로 연중 최저수준으로 하락한 후 다시 반등하였으나 국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9월 장기금리는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
- 9월중 CD수익률 등 단기 시장금리는 소폭 상승.
- 원/달러 환율은 9월 달러당 1,225.5원으로 8월에 이어 상승세를 보임. 이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크게 유출되고, 8월 수출대금의 일부가 7월중 선매각된 영향으로 외환공급이 줄어든데 기인.

IV. 농촌경제 동향

- 농가판매가격지수는 2002년 8월 129.4를 기록 전월대비 6.6%, 전년동월대비 4.4% 상승함. 과실이 전년동월대비 64.7% 올라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였고, 서류는 전년동월대비 15.4% 떨어져 큰 폭의 하락을 보임.
- 농가구입가격지수는 2002년 8월 150.5을 기록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6.4% 상승함.
- 청과물류가 큰 폭으로 오른 농가판매가격이 129.4를 기록하고,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50.5를 기록하여 농가교역조건을 나타내는 패리티 지수는 86.0로 전월대비 6.1% 상승함. 그러나 전년동월대비로는 1.8% 하락.
- 마늘의 전년동월대비 농업소득 61.1% 늘어 큰 폭으로 증가.
- 고령지 감자 농업소득 전년동월대비 39.5% 감소.
- 보리의 농업소득은 가격은 상승했으나,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해 전년동월대비 30.3%로 크게 감소함.
- 농림업 취업자수는 금년 8월 224만 명으로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3.7% 감소하여 농림업분야의 고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보임. 농가대 비농가의 농림업취업자수를 보면 농가의 농림업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6% 감소했으나 비농가의 농림업취업자수는 3.9% 증가.
- 한편 농가의 농외취업자수는 지난해에 이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금년 8월중 농외취업자는 48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 감소로 반전함. 이는 잦은 비 등 이상기후로 농외취업

기회가 줄어든 것에 기인함.

- 농산물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2.1% 증가하였으나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의 수출량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여 금년 1~8월 누계 농림축수산물 수출은 17억 1,710만 달러로 집계되어 전년동기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금년 8월까지의 누적 농림축수산물의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6.6% 증가했음. 축산물의 수입이 44.8%, 임산물의 수입이 26.3% 증가해 전체 수입증가를 주도하였음. 농산물 수입은 6.4% 증가에 그침.
- 쇠고기 수입은 광우병파동으로 인한 수입육에 대한 소비감소 경향이 퇴조함과 동시에 국내 한우가격의 강세 지속에 따라서 쇠고기 수입이 전년동기에 비해 95.6% 증가하였으며,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수입도 각각 22.9%, 17.4% 증가함.
- 옥수수과 밀의 수입은 각각 0.2%, 1.9% 증가하여 5월 누적에 비해 증가폭이 완화되었고, 대두는 큰 폭으로 수입량이 늘어 전년동기 대비 14.0% 증가.
- 금년 8월까지의 열대과일 수입은 키위가 전년동기대비 88.7% 증가한 것을 필두로 포도, 파인애플, 레몬, 오렌지의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
-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수산물 수입은 작년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금년 들어 다시 완만히 증가하여 금년 8월까지의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수산물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3.2% 증가한 15억 853만달러로 집계되었음.
- 8월까지의 임산물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47.1% 늘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농산물, 축산물도 각각 22.4%, 28.1% 늘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한편 수산물은 12.3% 늘어 증가폭이 둔화됨.

- 9월 15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실시한 쌀 예상량 조사에 의하면 2002년 쌀 생산량은 3,440~3,450만석으로 추정됨. 이는 전년 생산량 3,830만석보다 9.2~10.2% 감소한 수치임.
- 2002년 10월 보리 도매가격은 7만 1,8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1% 상승, 평년대비 0.8% 하락한 수준임.
- 2002년 대두 도매가격(70kg, 상품기준)은 22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19.5%, 평년대비로는 15.3% 하락한 수준임.
- 2002년 7월 고구마 도매가격은 2만 2,200원(15kg, 상품)으로 전년 대비 6.1% 하락했으나, 평년대비로는 10.4% 상승한 수준임.
- 2002년 8월 누계 사료곡물 수입량은 534만 5천 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12.7% 증가함. 도입단가의 하락으로 금액으로는 5억 6천만달러로 8.4% 증가에 그침.

V.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 2002년 3/4분기 농산물 가격은 콩, 배추, 양파, 사과, 수박의 가격이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감자, 고구마, 건고추, 배의 가격이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상승.
- 축산물가격은 한우와 돼지고기의 가격이 전년동기대비 상승하였고, 성돈, 닭고기, 계란의 가격이 하락함.
- 쌀 가격은 전년동기대비 0.3%, 전기대비 2.5% 상승하여 전년 4/4 분기에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주요 농축산물 분기별 가격변동

품목	단위	2001 3/4	2002 2/4	2002 3/4	전년동기 대비(%)	전기대비 (%)	비고
일반미	원/80kg	160,598	157,221	161,115	0.3	2.5	전라미
보리	원/70kg	69,952	72,621	72,087	3.1	△0.7	쌀보리
콩	원/70kg	181,591	197,672	208,737	14.9	5.6	팥대
감자	원/20kg	11,217	15,434	9,311	△17.0	△39.7	수미
고구마	원/15kg	19,463	16,670	16,721	△14.1	0.3	
벼추	원/5톤	3,537,844	1,547,833	4,131,398	16.8	166.9	
무	원/5톤	4,115,487	3,022,308	3,741,261	△9.1	23.8	
마늘	원/kg	1,663	2,065	1,812	9.0	△12.2	난지형
양파	원/kg	366	312	431	17.8	38.1	
대파	원/kg	1,083	732	1,083	0.0	47.9	
건고추	원/600g	5,291	3,860	3,345	△36.8	△13.3	화건
오이	원/20kg	23,796	21,507	26,237	10.3	22.0	취청
사과	원/15kg	29,615	36,308	47,852	61.6	31.8	
배	원/15kg	32,136	24,768	17,920	△44.2	△27.6	신고
수박 ^{*)}	원/10kg	8,325	6,154	9,471	13.8	53.9	
참외	원/15kg	16,174	42,547	17,000	5.1	△60.0	
한우	천원/500kg	3,321	3,980	3,849	15.9	△3.3	큰수소
성돈	천원/100kg	184	211	161	△12.3	△23.6	
돼지고기	원/500g	4,505	4,813	4,917	9.1	2.2	소비자가격
닭고기	원/kg	3,359	2,839	2,347	△30.1	△17.3	소비자가격
계란	원/10개	1,048	956	962	△8.2	0.7	소비자가격

주): 4~8월 가격은 6kg 가격을 10kg으로 환산.

I. 국제경제 동향¹⁾

1. 경제성장

- 미국경제는 실물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 상존.
 - 소매판매, 신규주택판매 등이 상승세를 지속하여 소비증가를 통한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있으며 실업률도 하락. 그러나 소비자 신뢰지수, PMI(Purchasing Manager's Index) 등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지표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8월 산업생산도 8개월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 불확실성 상존.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 추이 및 전망(GDP 기준)

단위: %

	1998	1999	2000	2001	2002
전 세계	2.8	3.6	4.7	2.2	2.8
선진국	2.7	3.4	3.8	0.8	1.7
미국	4.3	4.1	3.8	0.3	2.2
일본	△1.2	0.8	2.4	△0.3	△0.5
E.U	2.9	2.8	3.5	1.6	1.1
한국	△6.7	10.9	9.3	3.0	6.3
개도국	3.5	4.0	5.7	3.9	4.2
아프리카	3.4	2.8	3.0	3.5	3.1
아시아	4.0	6.1	6.7	5.6	6.1
중국	7.8	7.1	8.0	7.3	7.5
중동&터키	3.6	1.2	6.1	1.5	3.6
남미	2.3	0.2	4.0	0.6	△0.6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September, 2002,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김경덕 부연구위원(kdkim@krei.re.kr), 정학균 연구원(hak8247@krei.re.kr), 송우진 연구원(gnos@krei.re.kr) 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 대부분의 전망기관들은 3/4분기에는 2/4분기보다 높은 3%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연간으로 2%대의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일본경제는 생산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지속되어 왔으나, 내수부진, 수출둔화 등 성장 모멘텀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
 - 2/4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0.6%에 이르고, 산업생산이 증가세를 유지하여 완만한 회복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나 소비, 투자 등 내수가 여전히 부진하고, 수출도 하락세로 돌아서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 증가.
 - 금년 들어 침체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일본경제는 하반기에도 세계경제 회복을 배경으로 한 수출 증가로 점차 호전될 전망. 그러나 연간 전체로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유로 경제는 2/4분기 GDP 0.4%의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으나, 최근 생산 및 수출부진 등으로 경기회복 지연 전망.
 - 수출증가에 힘입어 2/4분기 GDP는 전기대비 0.4% 성장을 이루었으나, 최근 산업생산과 수출이 하락할 뿐 아니라 구매자관리지수 등 기업체감경기도 하락하고 있어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 증대.
- 물가상승률이 ECB(European Central Bank) 기준선인 2.0%를 상회하고 있는데다 홍수피해 등으로 각국의 재정적자 폭이 확대되어 금리인하, 재정지출 확대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사용 곤란.
- 다른 대부분의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아시아의 신흥시장국은 IT산업에 기반을 둔 중국과 인도의 빠른 성장으로 연간 6.1%의 경제 성장을 이룰 전망.

- 중국경제는 위안화 약세에 따른 수출증가, 산업생산 호조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간 7% 이상의 성장이 전망됨.
- 남미는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와 그 주변국으로의 파급효과, 그리고 브라질의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 올 경제성장은 마이너스 0.6%에 머물 전망.

2. 환율 및 원유가격

2.1. 환율

- 달러환율은 일본·유럽 등 주요국의 주가하락과 경기회복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평가절상 되었으나, 9월 중순 이후 횡보세.
 - 엔/달러 환율은 9월 들어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 120엔대에서 등락을 거듭.
 - 달러/유로 환율도 0.98 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

환율 동향 (기말 기준)

	2000	2001	2002				
			5월	6월	7월	8월	9월
엔/달러	114.4	131.4	123.52	119.64	120.38	118.40	122.75
달러/Euro	0.9425	0.8843	0.9366	0.9908	0.9832	0.9818	0.9811

자료: 재정경제부

2.2. 원유가격

- 9월중 국제유가는 이라크가 국제사회에 화해 제스처를 취하는 가운데, 미국의 독자 공격 가능성 대두로 오히려 올해 들어 최고가격 수준을 유지.
- 유가 상승 요인
 - OPEC의 산유량 동결 발표
 - 계절적 요인(북반구 겨울철 도래)
 - 미국 원유재고 감소
 - 현 가격이 유가밴드제의 상한을 넘어서고 있으나 그 초과부분을 전쟁프리미엄으로 보는 OPEC의 견해 등

원유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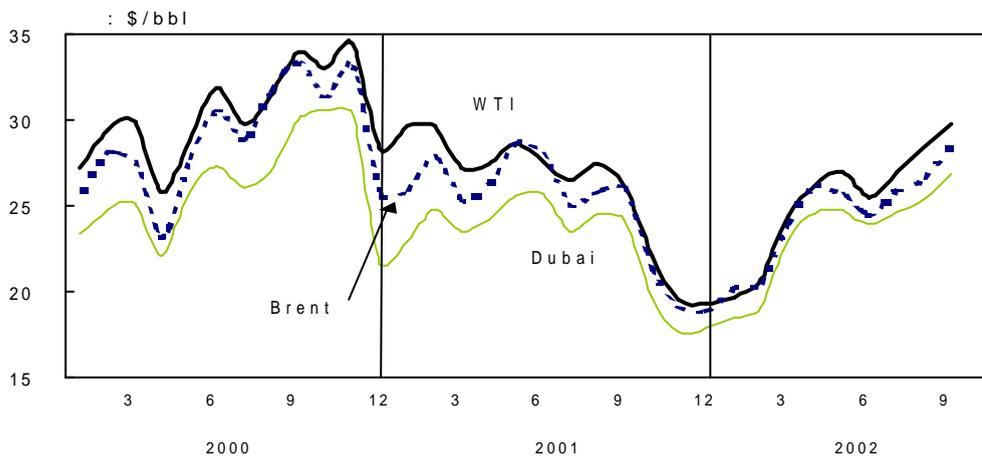
단위: 달러/배럴

	2002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WTI	24.40 (Δ10.3)	26.22 (Δ4.3)	27.03 (Δ5.6)	25.49 (Δ7.5)	26.95 (1.9)	28.36 (3.4)	29.72 (13.4)
Brent	23.96 (Δ5.4)	26.13 (Δ0.5)	25.66 (Δ10.3)	24.43 (Δ12.6)	25.86 (3.1)	26.63 (3.1)	28.42 (9.4)
Dubai	23.01 (Δ2.0)	24.57 (1.4)	24.74 (Δ3.4)	23.95 (Δ6.8)	24.66 (4.9)	25.31 (3.2)	26.85 (11.1)

주: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유 가격 동향



II. 세계 농업 및 농정 동향

I. 세계 농업과 농정²⁾

1.1. 일본, 농림수산행정조직 개편검토

- 일본 농림수산성은 농업·농촌의 구조개혁과 함께 식과 농의 재생플랜을 실현하기 위해 농림수산 행정조직을 개편하기로 결정하고 소비자중심의 행정으로 전환 도모.
- 식품의 리스크 관리부문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진흥부문에서 분리하여 식료소비행정과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는 새로운 국으로서 '소비·안전국'을 신설.
- '식품안전위원회'와 새로운 국 등을 설치함에 따라 행정조직의 '스크랩 앤 빌드'(scrap and build)의 관점에서 식량청 조직을 폐지하기로 함. 주요 식량정책을 담당하기 위하여 종합식료국에 식량부를 설치하고, 식량사무소를 재편한 식료소비사무소에서 비축미 관리업무 등을 계속 담당하도록 함. 또, 종합식료국의 식품산업유통부문은 '식품산업유통부'로 이관.
- 각종 국제제도 및 국제규율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성내 관련업무를 횡단적으로 조정하는 '국제통괄관'을 신설. 그외 바이오 매스 분야를 비롯한 농림수산분야의 환경정책을 전략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대신관방에 '환경정책과'를 설치.
- 전체적으로는 3청 1관방 4국에서 식량청이 폐지됨에 따라 2청 1관방 5국으로 개편. 정원은 리스크 관리체제를 강화함에 따라

2) 이 자료는 농정연구센터 김태곤 부연구위원(taegon@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식품표시 감시, 동식물 검역 등에 증원하고, 소요 인원은 식량청에서 대체한다는 방침.

1.2. 일본의 2002년도 쌀생산조정 실시현황

- 일본은 쌀 생산조정제도를 현행의 면적관리방식에서 수량관리방식으로 전환검토. 현행 쌀 생산조정제도는 '농농업경영확립대책'의 일환으로, 논에서 맥류, 대두, 사료작물 등을 본격적으로 생산하여 곡물자급률을 향상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금년으로 3년째 실시되고 있는 생산조정의 2002년도 현황을 보면, 쌀 이외의 작물식부가 전년도 실적대비 9,000ha(2%) 증가한 597,000ha로서 전체의 약 60%를 차지. 그밖에 경관형성용 논 9,000ha, 조정논 50,000ha, 자기보전관리 63,000ha, 실적산입 249,000ha 등으로 집계.
- 쌀 이외의 작물식부 주요 내역을 보면, 맥류 103,000ha, 대두 103,000ha, 사료작물 113,000ha 및 채소 126,000ha의 4개 작물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는 맥류(전년대비 11,000ha 증가)의 증가폭이 현저.
- 쌀 이외의 작물식부, 조정논, 자기보전관리, 실적산입 등에 의한 전체 실시면적은 973,000ha이며, 면적기준으로 생산조정 대상논 면적 968,000ha(목표면적 970,000ha에 소비 순증가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수치임)를 달성.

1.3. 중국·일본간 2001년도 농산물무역 동향

- 2001년도 중국의 대일무역은 수출입 총액이 878억 달러(전년대비 5.5% 증가)로, 그 중 수출이 450억 달러(7.9% 증가), 수입이 428억 달러(3.1% 증가)를 기록하여 수출입 모두 3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

- 2001년도 중국의 대일 농산물무역은 수출은 61.4억 달러(4.8% 증가)로 증가하였으나 수입은 어패류, 음료품 등의 저조로 12.9억 달러(13.9% 감소)로 감소.
- 중국의 농산물무역에서 차지하는 대일 농산물 무역비중은 전체 농산물무역에서는 18.3%(전년대비 0.5%p 감소)였지만, 그중 수출이 27.5%(0.6%p 증가), 수입이 7.1%(1.1%p 감소)였음. 그 결과 수출비중이 저하되고 수입비중이 상승한 2000년과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음.
- 중국의 대일무역에서의 농산물무역의 비중은 8.5%로 전년대비 0.6%p 감소하였음. 이는 중국의 대일 무역부문에서 전자, 기계제품, 섬유제품 등 공산품 신장이 농산물 무역을 상회하였기 때문.
- 한편, 일본무역진흥회 자료에 의하면, 2001년 일본의 대중무역 중 식료품 수출액은 전년대비 17.7% 증가한 1.6억 달러(구성비 0.5%)로 대폭 신장하였으나, 수입액은 1.3% 증가한 59.7억 달러(구성비 10.3%)를 기록하여 소폭 증가에 그침.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채소가 16.1억 달러로 5.8% 증가.

1.4. 중국의 농업산업화와 용두기업 지원강화

- 중국은 ①농업·농촌진흥대책 ②WTO 가입이 중국 농업에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대책으로서 '농업산업화정책'을 추진. 농업산업화정책이란 농산물유통·가공 등 농업관련산업 육성에 의한 농업진흥을 목적으로 한 농업·농촌정책을 뜻함.

- 현재 농업산업화를 담당하는 조직·개인은 ①가공·유통기업이 중심이 되는 경우(약 27,000조직, 전체의 약 41%), ②농촌의 전업협회(생산물판매·생산자재의 공동구입 등을 목적으로 한 민간조직) 등의 중개조직(약 22,000조직, 약 33%), ③농촌의 전업농가, 상인등(가공, 판매부분이 주력, 약 9,600조직, 약 14%), ④전문시장(약 7,600조직, 약 12%) 등 4가지 유형.
- 이러한 농업산업화를 담당하는 핵심조직은 전국에서 6만 5천 내지 7만개의 조직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①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을 중국어로 ‘용두기업’(龍頭企業)이라 함. 최근 ② 유형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용두기업과 관계를 가진 농가(생산물의 판매 등)는 전국에서 5,900만호(전국 총농가수의 약 25%)이며, 이미 상당히 큰 규모에 달하고 있음. 전술한 통계조사에 의하면 용두기업에 관여하고 있는 농가의 소득은 일반 농가와 비교하여 약 900위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용두기업의 업종으로는 ‘경종농업+가공농업’이라는 형태가 중심이며, 특히 과수 및 채소 가공부분의 발전이 빠름. 반면, 곡물·면화·유지작물의 가공업은 발전이 정체. 이러한 가운데 최근 식육가공업, 유제품제조 등 축산가공업의 발전도 주목됨.
- 현재 국가가 지정한 일정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지정되는 ‘용두기업’은 151개 기업에 달하며(이외에 각성에서 지정한 용두기업이 다수 있음), 지정된 용두기업에 대해서는 ①세금 감면, ②금융면에서의 우대조치(대부 우대), ③외자기업도입촉진, ④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강구되고 있음.

1.5. 러시아, 새로운 농지양도법 제정

- 러시아 상원은 금년 7월 농지양도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 이 법률에 의하여 러시아에서는 농업부문 투자액이 다소 감소하는 동시에, 농촌지역 고령자에 대한 사회보장수준도 저하될 것으로 예상됨.
- 이번에 제정된 새 농지양도법은 2002년 3월에 러시아 정부가 하원에 상정한 법안에 수정을 가한 것. 수정안에서는 주로 비거주자의 토지소유권에 관한 조항, 토지소유면적의 상한에 관한 조항, 공유지 양도에 관한 조항에 변경이 있음.
- 새 농지양도법에서는 러시아 연방시민에 대해서도 1인(1기업)당 토지소유면적에 상한이 설정. 이 상한은 1개의 구(rayon, 러시아의 최소행정단위) 총농지면적의 10% 미만으로 설정. 이 기준은 공정거래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농업생산에서의 토지이용의 독점방지가 그 목적.
- 공유지(land shares) 양도에 관한 조항은 현재의 국내 농업계의 토지소유권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최근 10년간 러시아에서는 공유지 양도에 관한 관습법이 형성되어 있는데다 최근 3~4년 사이 러시아의 토지시장은 주로 공유지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음.
- 이번에 통과된 법에서는 공유지 소유권은 일종의 공유자산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때문에 공유지 임대차는 사실상 금지되어, 공동임대차만이 가능함. 또한 공유지 매각에 관해서는 농촌지역 주민에게는 실행 불가능한 매우 복잡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
- 농지의 공동임대차 및 농기업에 의한 임대차는 모두 외부 투자

가에게는 농지취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최근 두드러지게 증가하기 시작한 1차 산업부문에 대한 외부 투자가 억제될 것으로 보임. 또한 토지취득가격의 상승은 현재의 농업계에 필요한 생산적 투자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에 제정된 토지양도법은, 첫째 농업부문 토지사유권에 관한 장기적 전략구축에 대하여 러시아 사회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였고, 둘째 농지양도에 관한 법적 기반을 설정한 것에 의의가 있음.

1.6. 미국 농산물 원산지 표시지침 발표

- 미국 농업부(USDA)는 2002년 농업법(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잠정적인 자율 원산지 표시에 관한 지침을 발표.
- 원산지표시지침은 2002년 농업법에 의해 ‘1946년 농산물유통법’(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이 개정됨에 따라 USDA가 소매업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들에게 쇠고기(송아지고기 포함), 양고기, 돼지고기, 생선류, 부패성 농산물, 땅콩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해당 품목(covered commodity)은 쇠고기(송아지고기 포함), 양고기, 돼지고기의 신선/냉동 근육부위(muscle cuts), 잘게 갈은 쇠고기·양고기·돼지고기, 양식 생선류 및 조개류, 자연 생선류 및 조개류, 부패성 농산물(신선/냉동 과일이나 채소), 땅콩 등을 대상으로함.
- 예이츠(A.J. Yates) 농산물유통국(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국장은 “이 지침에 따라서 신선/냉동 쇠고기, 송아지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생선류, 신선/냉동 과일, 채소, 땅콩 등은

소매단계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 지침은 관련 소매업자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제공한다”고 함.

- 관련 법률은 ‘1930년 부패성 농산물법’(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of 1933, PACA)의 1(b)항에서 정의하는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적용. 단, 레스토랑, 카페, 간이식당, 선술집, 조제식품(prepared food)을 판매하는 식품업체 등 식품서비스업체는 대상에서 제외.
- 이 지침에 근거, 소매업자는 특정 기준이 충족될 경우 ‘원산지 미국’이란 표시를 할 수 있음. 예를 들면, 쇠고기의 경우는 알래스카 혹은 하와이에서 태어나 사육되고 미국으로 60일 이내에 운송, 미국에서 도축된 가축 및 미국에서 태어나고 사육되고 도살된 소에 한하여 ‘미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음.
- 미국 농업부는 2002년 농업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2004년 9월 30일까지 의무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을 공포해야 함. 농업부는 2003년 4월부터 이러한 의무적인 규정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며,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가능한 자율지침에 근거해서 시행한다는 방침.

1.7. 대만, WTO 가입후 수입쌀 판매량 부진

- 대만 농업위원회(Council of Agriculture)는 금년도 대만의 수입쌀 판매량은 예상보다 부진하다고 발표. 대만은 금년 1월 1일 WTO 가입을 계기로 수입쌀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음. 수입쌀 판매가 저조한 원인으로 저품질을 들고있음.
- 대만은 금년도 현미기준으로 14만 4,720톤의 쌀을 최소시장접근(MMA)으로 수입이 의무화. 총수입량의 35%는 민간무역으로 나머지 65%는 국영무역으로 배분.

- 현재까지 대만에서 수입쌀의 판매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일본쌀임. 그 다음으로 미국산, 태국산이나 판매 실적 부진. 업계 관측통은 수입쌀이 국내산과 동등한 품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음. 농업위원회는 미국산과 태국산이 품질이 떨어지는 원인으로서는 수확후 소비까지의 기간이 긴 것을 들고 있음.
- 또, 대만은 WTO 가입시에 과잉 공급쌀을 저가로 수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대만은 추가적인 쌀수입에 의한 국내 공급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생산조정을 실시. 업계 전문가는 금년 쌀 생산량을 18만톤 감소 할 것으로 예상.
- 현재까지 수입쌀 판매량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업계 관측통은 향후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이유는 10월에 국내산 쌀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의 수입쌀 구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

1.8. 중국, 동남아국가연합과 FTA 조기실시

- 중국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하여 발효시기를 앞당겨 조기 시장개방을 단행한다는 방침을 결정. 단계적으로 개방하되, 농산물에 대해서는 2003년에 단행한다는 것.
- 중국과 ASEAN은 10년 이내에 FTA 발효를 목표로 11월 수뇌 회담에서 협정에 조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대상품목은 1,000개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 농산물이 중심이며, 일부 공산품도 포함될 것이라고 예측. 그리고 2003년 중반부터 3년 이내에 대상품목 전체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는 방침.

- ASEAN 10개국과의 FTA를 둘러싸고 한국·일본·중국 모두 빠르게 접근. 먼저, 일본은 싱가포르와 금년 1월 13일 최초의 FTA를 체결, 농수산물을 제외한 거의 전품목의 관세 철폐를 단행, 투자와 서비스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고이즈미(小泉) 총리는 일본·싱가포르 FTA를 체결한 후, 이를 기초로 '일본+ASEAN'의 '포괄적 경제연계구상'을 제안하였음. 또 이 구상을 근거로 한중일+ASEAN을 축으로 하여, 호주·뉴질랜드까지 확대하는 '동아시아확대커뮤니티(공동체)'를 창설한다는 의도를 표명.
- 한편, 한국은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 10월 'ASEAN+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중일+ASEAN'을 포함한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를 제안한 바 있음.
- 그 동안 한일, 한중일간 FTA에 대한 논의가 주류였으나, 최근 ASEAN을 포함하는 FTA 논의와 협정체결이 활발해지고 있음. 특히 ASEAN을 두고 중국과 일본의 접근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중국이 한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 전개.

2.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³⁾

2.1. 세계의 주요곡물 수급 상황

가. 곡물전체

- 2002/03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대두를 제외한 쌀, 소맥,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2.6% 감소한 18억 1,441만톤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2002/03년도 곡물 총 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4억 6,105만톤을 더한 22억 7,547만톤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3.7% 감소할 전망이다.

세계 전체곡물의 수급동향

단위: 백만톤

	2000/01	2001/2002 (추정)	2002/03(전망치)		변동율(%)	
			2002. 9	2002. 10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841.85	1,862.57	1,814.81	1,814.41	△2.6	0.0
공 급 량	2,371.00	2,363.45	2,277.23	2,275.47	△3.7	△0.1
교 역 량	232.67	234.74	226.90	227.02	△3.3	0.1
소 비 량	1,870.11	1,902.40	1,903.36	1,904.35	0.1	0.1
기말재고량	500.89	461.05	373.87	371.12	△19.5	△0.7
기말재고율(%)	27.2	24.8	20.6	20.5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91, October 11, 2002.

- 2002/03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0.1% 증가한 19억 435만톤으로 전망됨.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 2002/03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19.5% 감소한 3억 7,112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3) 이 자료는 미농무성(USDA)에서 매월 발표하는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88, JULY 11, 2002. 내용중 수급부분을 발췌하여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정학균 연구원(hak8247@krei.re.kr), 송우진 연구원(gnos@krei.re.kr)에게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전망됨. 한편, 세계 곡물 교역량은 소맥 주산지의 수확량이 이상기후로 대폭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3.3% 감소한 2억 2,702만톤이 될 것으로 보임.

나. 쌀

- 2002/03년도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3.8% 감소한 3억 8,124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전년대비 태국과 베트남의 생산량은 변화가 없는 반면, 인도의 생산은 크게 감소(△14.8%)할 전망이다.
- 2002/03년도 세계 전체 쌀 교역량은 전년대비 1.8%가 증가한 2,591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량 중 교역량의 비중은 6.8%로 추산됨.
- 2002/03년도 쌀 소비량은 생산을 2,648만톤 초과한 4억 772만톤으로 예상되어, 2002/03년도의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20.1% 감소한 1억 553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기말 재고율은 27.7%로 2001/02년도의 33.3%보다 5.6%p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국제 쌀(정곡기준) 수급 동향

단위: 백만톤

	2000/01	2001/2002 (추정)	2002/03(전망치)		변동율(%)	
			2002. 9	2002. 10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397.46	396.38	380.93	381.24	△3.8	0.1
공 급 량	541.71	541.67	512.30	513.25	△5.2	0.2
교 역 량	24.12	25.46	25.35	25.91	1.8	2.2
소 비 량	396.41	409.67	407.16	407.72	△0.5	0.1
기말재고량	145.30	132.00	105.14	105.53	△20.1	0.4
기말재고율(%)	36.6	33.3	27.6	27.7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88, July 11, 2002.

다. 소맥

- 2002/03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1.5% 감소한 5억 6,977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유럽의 생산량은 다소 증가(14.4%) 하였으나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 캐나다 등 주산지 생산량이 기상 이변에 의한 작황부진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2002/03년도 세계 밀 소비량은 전년에 비해 1.7% 증가한 5억 9,816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밀의 국제 교역량은 전년에 비해 7.3% 감소한 1억 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에 대한 교역량 비율은 17.6%가 될 전망이다.
- 2002/03년도에는 전년에 비해 소비가 증가한데 비해 생산량이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에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17.8% 감소한 1억 3,118만톤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말 재고율도 전년의 27.6%에서 23.0%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임.

국제 소맥 수급 동향

단위: 백만톤

	2000/01	2001/2002 (추정)	2002/03(전망치)		변 동 율(%)	
			2002. 9	2002. 10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583.59	578.64	572.56	569.77	△1.5	△0.5
공 급 량	758.95	747.48	734.04	729.33	△2.4	△0.6
교 역 량	102.82	107.86	99.89	100.00	△7.3	0.1
소 비 량	590.11	587.92	588.60	598.16	1.7	△0.1
기말재고량	168.84	159.56	135.45	131.18	△17.8	△3.2
기말재고율(%)	28.9	27.6	23.7	23.0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91, October 11, 2002.

라. 옥수수

- 2002/03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남아프리카의 생산량은 소폭 증가한 반면 미국, 아르헨티나의 생산량이 기상이변에 의한 작황 부진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여 전년에 비해 1.0% 감소한 5억 9,000만톤이 될 전망이다.
- 2002/03년의 소비량은 전년대비 0.2% 증가한 6억 2,330만톤으로 전망되며, 교역량은 전년대비 0.8% 증가한 7,499만톤이 될 것으로 보여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7%로 추산됨. 한편 전체 교역량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67.7%에 이를 전망이다.
- 2002/03년도 옥수수 기말재고량은 미국의 기말재고량이 크게 줄어 ($\Delta 52.2\%$) 전년대비 26.7% 감소한 9,148만톤으로 전망됨. 기말재고율은 15.5%로 전년의 20.9%에 이어 지속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제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2000/01	2001/2002 (추정)	2002/03(전망치)		변동율(%)	
			2002. 9	2002. 10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산량	587.47	595.97	585.78	590.00	$\Delta 1.0$	0.7
공급량	758.22	746.96	711.05	714.78	$\Delta 4.3$	0.5
교역량	77.33	74.40	74.99	74.99	0.8	0.0
소비량	607.23	622.18	621.22	623.30	0.2	0.3
기말재고량	150.99	124.78	89.83	91.48	$\Delta 26.7$	1.8
기말재고율(%)	25.7	20.9	15.3	15.5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88, July 11, 2002.

마. 대두

- 2002/03년 세계 대두 생산량은 미국이 기상악화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반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생산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0.4% 증가한 1억 8,449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대두 소비량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1억 8,999만톤으로 전망됨.
- 2002/03년도 세계 대두 교역량은 전년보다 8.6% 증가한 6,013만톤으로 전망됨. 생산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2.6%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전세계 수출량에서 미국이 18.2%, 브라질이 34.1%, 아르헨티나가 29.0%의 비중을 차지해 이들 세 국가의 수출비중이 81.3%에 이를 전망이다.
- 2002/03년도 대두 기말재고량은 2,611만톤으로 추정되어 전년에 비해 17.7%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기말재고율은 전년의 17.3%에서 14.2%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제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2000/01	2001/2002 (추정)	2002/03 (전망치)		변 동 율(%)	
			2002. 9	2002. 10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75.10	183.76	184.83	184.49	0.4	△0.2
공 급 량	203.12	214.68	215.44	216.23	0.7	0.4
교 역 량	55.07	55.36	60.23	60.13	8.6	△0.2
소 비 량	172.07	183.51	189.94	189.99	3.5	0.0
기말재고량	30.92	31.74	25.35	26.11	△17.7	3.0
기말재고율(%)	17.7	17.3	13.7	14.2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91, October 11, 2002.

2.2. 국제곡물가격 동향 및 전망

가. 쌀

- 중립종 쌀 국제가격은 2000년 톤당 413.6달러를 기록한 이후 미국, 중국 등의 생산량의 증가로 하락세가 지속되어 2001년에는 톤당 267.1달러, 2001년 3/4분기에는 톤당 239.0달러까지 하락하였음.
- 그러나, 2001년 4/4분기에 톤당 287.0달러까지 상승한 후 2002년 9월 현재 전년대비 0.8% 낮은 265.0달러를 유지하고 있음. 중립종 쌀의 국제가격은 쌀 교역량은 늘어나지만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말재고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중장기적으로 약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장립종 쌀 국제가격은 2000년 톤당 211.0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01년에는 전년대비 15.3% 낮아진 178.8달러를 기록하였음. 이후 상승세로 반전하여 2002년 1/4분기에 톤당 197.7달러까지 회복한 후 9월 현재 가격은 전년대비 7.4% 상승한 192.0달러 수준임.
- 향후 장립종 쌀의 국제 가격은 교역량이 늘어나지만 생산량은 줄어들 전망이어서 2002/03년도 쌀 가격은 약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나. 소맥

- 2000년 소맥 국제가격은 과잉생산 및 재고증가로 톤당 114.1달러 까지 하락함. 이후 2001년에는 미국 중서부지역의 고온 건조기후 여파 등으로 생산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11.1% 상승한 톤당 126.8달러를 기록함.

- 2002년 9월 현재 국제가격은 전년대비 48.1%, 전월대비 16.4%가 상승한 톤당 187.8달러를 기록함. 기말재고량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어서 국제 소매가격은 약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다. 옥수수

- 2000년에 톤당 88.5달러였던 국제 옥수수 가격이 2001년에는 전년대비 1.2% 상승한 89.6달러를 기록하였고, 이후 등락을 거듭한 후 2002년 9월 현재 전년대비 27.3%, 전월대비 4.8% 상승한 톤당 114.1달러 수준임.
- 2002/03년도 옥수수 소비량과 교역량은 늘어나지만 미국, 아르헨티나의 생산의 감소로 전체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미국의 기말재고량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어서 2002/03년도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라. 대두

- 대두 국제가격은 2000년 톤당 211.8달러를 기록하였으나 남미지역의 생산증가로 2001년에는 톤당 195.8달러로 하락하였음. 이후 등락을 거듭하여 2002년 2/4분기에는 톤당 197.3달러를 기록하였음. 2002년 9월 현재 국제 대두가격은 전년대비 20.5% 전월대비 4.0% 증가한 톤당 236.0달러를 기록함.
- 2002/03년 가격은 소비 및 교역량의 확대 및 재고량의 감소에 따라 약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국제 곡물시장에서의 주요 곡물 가격 동향

단위: 톤, \$

품 목	2000년	2001년	2001년		2002년				
			3/4	4/4	2/4	3/4	7월	8월	9월
장립종 쌀	211.0	178.8	176.3	178.7	203.7	198.0	205.0	197.0	192.0
중립종 쌀	413.6	267.1	239.0	287.0	268.0	265.0	265.0	265.0	265.0
소 맥	114.1	126.8	122.6	123.7	125.7	166.1	149.3	161.3	187.8
옥수수	88.5	89.6	91.7	89.3	90.5	107.2	98.7	108.9	114.1
대 두	211.8	195.8	207.3	188.3	197.3	227.0	218.0	227.0	236.0

주1): 장립종 쌀은 태국산 100% Grade B, 중립종 쌀은 U.S. Medium California 1 등급, 소맥은 U.S. Gulf No.1 HRW, 옥수수는 U.S. Gulf No.2, Yellow, f.o.b. 대두는 U.S. c.i.f Rotterdam 가격임.

자료 : USDA, ERS, *Rice Outlook*, October, World Bank, Commodity Price Data.

Ⅲ. 국내 경제 동향4)

1. 경기

- 2002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건설투자와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설비투자와 수출의 증가세가 확대되어 전년동기대비 6.3% 증가함.
- 민간소비는 컴퓨터, 무선전화기, 에어컨 등 내구재에 대한 지출이 크게 둔화되었으나 서적, 의류 등 준내구재에 대한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고 보험, 오락, 의료, 통신 등 서비스에 대한 지출 호조가 지속되어 전년동기대비 7.7% 성장.

경제성장률(실질)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00	2001		2002	
		연 간	4/4	1/4	2/4
G D P 성장률	9.3	3.0	3.7	5.8	6.3
최종 소비지출	6.7	3.7	5.6	8.0	7.3
(민 간)	7.9	4.2	6.6	8.4	7.7
총고정자본형성	11.4	△1.7	4.9	6.5	5.6
(건 설)	△4.1	5.8	10.7	10.1	4.1
(설 비)	35.3	△9.8	△3.1	3.2	7.4
총 수 출 ¹⁾	20.5	1.0	△1.1	1.8	11.8
총 수 입 ¹⁾	20.0	△2.8	1.1	6.2	19.2

주 1) f.o.b 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4)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김경덕 부연구위원(kdkim@krei.re.kr), 정학균 연구원(hak8247@krei.re.kr), 송우진 연구원(gnos@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 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 고정투자는 설비투자(7.4%)의 증가세가 1/4분기보다 확대되었으나 건설투자(4.1%)의 증가세가 둔화되어 전년동기대비 5.6% 성장.
- 재화수출(물량기준)은 선박, 자동차 등의 수출이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통신기기, 가정용 전기제품, 컴퓨터, 산업용기계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13.7% 증가.
- 최종수요에 대한 내수의 성장기여율이 전분기의 87.0%에서 49.9%로 하락한 반면, 수출의 성장기여율은 전분기의 13.0%에서 50.1%로 상승.

최종수요에 대한 지출항목별 성장기여율

단위: %

	2001년			2002	
	연간	3/4	4/4	1/4	2/4
최종수요	100	100	100	100	100
내수	77.2	△1,441.1	114.1	87.0	49.9
수출	22.8	1,541.1	△14.1	13.0	50.1

자료: 한국은행

- 산업별 경제활동은 농림어업은 축산업과 어업이 증가하였으나 비중이 큰 재배업이 부진하여 전년동기대비 0.7% 감소.
 - 제조업은 선박, 정유, 컴퓨터 등의 생산이 감소했으나 반도체, 통신기기, 가정용 전기제품, 산업용기계 등의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6.4% 증가.
 - 건설업은 아파트, 상가 등 건물건설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도로, 지하철 등 토목건설이 부진하여 전년동기대비 3.7% 증가에 그침.

경제활동별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00년	2001년		2002	
		연간	4/4	1/4	2/4
전 산 업	9.8	3.8	4.5	6.7	6.6
농 립 어 업	2.0	1.4	1.5	7.2	△0.7
제 조 업	15.9	1.7	2.1	3.5	6.4
건 설 업	△3.7	5.6	9.5	8.8	3.7
서 비 스 업	9.5	4.1	4.7	7.8	8.4

자료: 재정경제부

- 서비스업은 통신업, 금융보험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8.4% 증가.

○ 산업생산은 2001년 4/4분기부터 증가세로 반전하여 2002년 2/4분기 6.8%, 7월 8월에는 각각 8.7%, 8.5% 증가하여 상승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반도체, 자동차, 사무회계용기계 등의 생산호조가 높은 수준의 산업생산을 주도하고 있음.

산업생산 추이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2001년		2002년			
	연간	4/4분기	1/4분기	2/4분기	7월	8월
G D P	3.0	3.7	5.8	6.3		
생 산	1.8	2.3	3.9	6.8	8.7	8.5
출 하	0.9	2.9	8.2	7.7	7.3	7.5
(수 출)	△0.3	1.6	4.0	9.9	10.2	12.7
(내 수)	1.9	4.1	11.7	5.9	5.2	3.6
재 고	△1.7	△1.7	△11.3	△10.8	△13.6	△11.8
평균기동율	73.2	72.4	76.8	75.8	75.3	77.1

자료: 재정경제부, 통계청

- 출하도 금년 2/4분기 7.7% 증가로 전분기에 비해 증가폭이 감소했으나 높은 수준의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음.
- 2001년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던 내수의 증가세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 출하증가에도 불구하고 재고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8월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11.8% 감소하여 급격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8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7.1%를 기록하여 높은 수준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음.

2. 소비 및 투자

- 2002년 8월 도소매 판매는 도매업, 소매업, 자동차 판매 등 전 업종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6.0% 증가하여, 2/4분기의 6.4%보다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성장을 시현하고 있음.
- 2002년 내수용 소비재 출하는 7, 8월 각각 전년동월대비 7.7%, 9.4% 상승하여 1/4분기 평균보다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작년 2/4분기 이후부터 증가세 견지.

소비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2001년		2002년			
	연간	4/4	1/4	2/4분기	7월	8월
도소매 판매	4.6	6.5	8.0	6.4	6.6	6.0
내수용 소비재출하	1.9	0.8	12.0	4.3	7.7	9.4
(내구재)	4.8	6.9	28.5	7.8	12.1	17.4
(비내구재)	0.2	△2.2	3.2	2.2	4.8	4.7

자료: 재정경제부, 통계청

- 내구재 출하는 2002년 2/4분기 7.8% 증가(전년동기대비)를 기록해 전분기의 28.5% 증가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2/4분기 이후 7월과 8월에는 승용차, 휴대용전화기, 대형냉장고 등의 출하 증가로 각각 전년동월대비 12.1%, 17.4% 증가하여 내구재 출하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 비내구재 출하는 2002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하여 증가세가 주춤, 그러나 7월과 8월 들어 남녀기성복, 등유 등의 출하증가로 각각 4.8%, 4.7% 증가하여 비내구재 출하는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음.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변화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01년		2002년	
	연간	2/4	1/4	2/4
소 득	10.0	6.2	8.1	9.6
소비 지출	8.5	8.2	7.7	7.1
(식료품)	4.4	2.3	7.6	6.9
(주 거)	13.1	15.3	9.2	△2.5

자료: 통계청

- 2002년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71만 4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6% 증가하여 전년동기의 6.2%보다 3.4%p 증가.
- 월평균 소비지출은 178만 7천원으로 작년 2/4분기의 166만 8천원에 비해 7.1% 증가함.
- 지출항목별로는 보건의료비, 피복신발비, 교통통신비는 비교적 높게 증가하였고, 주거비와 광열수도비는 감소함. 소비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료품비는 6.9% 증가.

투자 추이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2001년		2002년			
	연 간	4/4	1/4	2/4	7월	8월
설비투자추계	△5.1	1.6	2.2	△0.2	△3.3	1.3
기계류내수출하	△5.6	2.2	17.1	5.2	3.3	0.6
기계류수입	△18.4	△14.7	△22.0	26.9	32.5	27.8
국내기계 수주	△1.0	△7.1	33.3	9.3	13.3	43.8
건설투자 기성	5.7	12.7	10.3	3.8	12.7	△5.5
건설투자 수주	14.4	60.1	85.6	8.8	5.8	65.0

자료: 통계청

- 2002년 2/4분기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0.2% 감소세로 반전했으나, 자동차, 일반산업용기계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여 8월에는 전년동월대비 1.3% 증가함.
 - 사무회계용기계 등은 부진하였으나 조립금속, 기계장비, 자동차 등의 출하가 증가하여 8월 기계류 내수출하는 전년동월대비 0.6% 증가.
 - 원동기, 도로주행차량, 일반산업용기계 등의 수입이 증가하여 8월 기계류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2.7% 증가.
- 국내기계수주는 민간부문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공공부문이 그동안의 감소세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8월 국내기계수주는 전년동월대비 43.8% 증가함.
 - 전력업 및 공공운수업에서 각각 원자로 및 전동차 발주가 크게 증가하여 8월 공공부문 기계류수주는 전년동월대비 278.4% 증가.

- 민간부문은 운수창고통신업, 도소매업 및 건설업에서 증가세를 보여 8월 21.8%(전년동월대비) 증가함.
- 2002년 8월 국내 건설기성은 민간발주 공사실적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공공발주 공사실적이 크게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5.5% 감소함.
- 국내 건설수주의 경우 공공부문은 부진하였으나(전년동월대비 10.6% 감소) 민간부문이 크게 증가하여(전년동월대비 93.8% 증가) 전년동월대비 65.0% 증가.

3. 수출입 및 무역수지

-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2.6% 증가한 140억 2천만달러, 금년 1~9월 누계로는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한 1,175억 2천만달러를 기록.
 - 추석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연속 두자리수 증가세 시현.
 -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가전 등 전기·전자제품과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품목이 해외 수요회복 및 가격의 완만한 상승세 등으로 호조세가 지속되어 수출 신장세 견인.
 -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수출증가세가 전지역으로 확산.
 - 통계적으로는 작년도 9월 실적의 부진(전년동월대비 17.7% 감소)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요인도 작용.
- 9월중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1.1% 증가한 130억 2천만달러를 기

록. 1~9월 수입누계도 1,097억 3천만 달러로 전년동기보다 2.8% 증가하여 수입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

- 원자재 수입은 금년 들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에 진입한 15% 내외 증가.
 - 원유는 도입단가는 상승하였으나 도입물량이 감소하여 전년동기 대비 13.1% 감소한 17억 6천만 달러 기록.
 - 소비재는 소비심리 호전과 내수 확대에 따라 큰 폭의 수입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9월중 25% 내외 수입증가.
- 1~9월 누계 무역수지는 전년동기대비 5.9억불 증가한 79억 2천만 달러 흑자 기록.

수출입 및 무역수지(수출입차) 추이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억달러

	2001년		2002년				
	연 간	4/4	1/4	2/4	3/4	9월	1~9월
수 출	1504.4	363.5	357.7	402.8	415.0	139.8	1175.5
전년동기증감률	△12.7	△19.6	△11.1	5.0	16.7	12.6	3.0
수 입	1411.0	343.4	336.9	371.7	387.7	129.7	1096.3
전년동기증감률	△12.1	△17.1	△11.5	7.8	13.7	11.1	2.7
수출입 차	93.4	20.1	20.8	31.1	27.3	10.0	79.2

자료: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4. 고용

- 2002년 8월 경제활동인구는 전월대비 1.2% 감소한 2,259만 8천명을 기록했고, 전년동월대비로는 1.4% 증가함. 경제활동 참가율도 61.3%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0.8%p 감소함.

○ 2002년 8월중 실업자는 전월대비 3만 2천명 증가한 65만 8천명, 실업률도 전월대비 0.2%p 상승한 2.9%로 나타났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9만 4천명, 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는 2,193만 9천명으로 전월대비 30만 5천명 감소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41만 5천명(1.9%) 증가함.

- 전월대비 실업자증가는 잦은 비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일거리 감소로 도소매·음식숙박업과 건설업 부문 취업자의 실업전환에 기인함.

고 용 활 동

단위: 천명, %

	2001년		2002년			전월대비 증감률
	연간	8월	6월	7월	8월	
경 제 활 동 인 구 (경제활동참가율)	22,181 60.8	22,276 61.0	22,885 62.2	22,870 62.1	22,598 61.3	△1.2
취 업 자	21,362	21,524	22,274	22,244	21,939	△1.4
·농 임 어 업	2,193	2,419	2,352	2,309	2,304	△0.2
·광 공 업	4,219	4,113	4,190	4,151	4,125	△0.6
(제 조 업)	4,199	4,093	4,172	4,134	4,110	△0.6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14,950	14,992	15,732	15,784	15,510	△1.7
(건 설 업)	1,575	1,606	1,799	1,798	1,702	△5.3
실 업 자	819	752	611	626	658	5.1
실업률(계절조정)	3.7	3.6	3.0	3.0	3.1	

자료: 재정경제부, 통계청

5. 물가

- 9월중 생산자 물가는 농림수산품이 태풍 및 추석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채소류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인데다 공산품도 석유·화학제품 및 운송장비 등이 올라 전월대비 0.4% 상승.
 - 농림수산품은 과일류, 선어개류 등은 내렸으나 채소류와 곡물류가 올라 전체적으로는 전월대비 0.3% 상승함.

품목별 생산자 물가 지수(1995=100)

	2001년		2002년				
	연간	4/4	1/4	2/4	3/4	8월	9월
총 지 수	122.5 (1.9)	121.4 (0.0)	122.2 (△0.2)	124.6 (1.2)	124.7 (1.6)	124.7 (1.6)	125.2 (2.2)
농림수산품	116.5 (1.0)	112.8 (2.4)	121.0 (5.0)	123.4 (3.6)	120.7 (1.8)	121.6 (1.5)	122.0 (4.9)
광 산 품	114.0 (0.4)	116.5 (2.4)	118.9 (6.4)	122.0 (7.2)	122.4 (7.3)	122.2 (7.3)	122.7 (7.7)
공 산 품	121.6 (1.5)	120.2 (△1.2)	120.1 (△1.4)	122.9 (0.4)	123.5 (1.3)	123.4 (1.3)	123.9 (2.0)
전력 수도	143.2 (7.3)	143.6 (4.7)	139.4 (△1.9)	139.4 (△2.9)	139.4 (△3.0)	139.2 (△3.1)	139.9 (△2.6)
서 비 스	123.9 (2.4)	124.4 (1.9)	126.0 (2.0)	127.4 (3.0)	127.6 (3.0)	127.5 (3.2)	127.9 (3.0)
원 재 료	168.8 (3.7)	158.4 (△10.3)	155.5 (△7.1)	172.0 (△2.3)	-	165.7 (△2.1)	-
중 간 재	129.0 (3.3)	125.9 (△1.5)	125.0 (△3.9)	127.5 (△2.6)	-	127.2 (△1.2)	-
최 종 재	121.6 (2.2)	120.3 (0.8)	122.0 (0.2)	123.2 (0.7)	-	122.8 (0.6)	-

자료: 한국은행, 주: ()는 전년동기대비, %

- 공산품은 음식료품 및 담배와 금속1차제품이 내렸으나 석유제품, 화학제품, 운송장비 등이 올라 전체적으로는 전월대비 0.4% 상승.

-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는 부산 및 대구지역의 상수도 인상으로 전월대비 0.5% 상승.
- 서비스는 운송 및 금융 부문은 성수기 종료에 따른 요금인하와 추가하락 영향으로 내림세를 보였으나, 전문서비스 부동산 부문이 건설노임단가 인상과 점포·사무실 임대료 상승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면서 전월대비 0.3% 상승.

품목별 소비자물가 지수(2000=100)

	2001년		2002년				
	연간	4/4	1/4	2/4	3/4	8월	9월
총 지 수	104.1 (4.1)	104.5 (3.4)	105.5 (2.5)	106.9 (2.7)	107.4 (2.5)	107.4 (2.4)	108.0 (3.1)
상 품	103.5 (3.5)	103.3 (2.4)	104.8 (2.1)	106.4 (2.7)	106.9 (2.4)	106.9 (1.9)	108.2 (3.6)
농축수산물	106.3 (6.3)	106.5 (7.4)	111.6 (8.4)	113.2 (6.9)	114.9 (4.6)	115.2 (3.2)	119.4 (8.6)
공업 제품	102.6 (2.6)	102.3 (0.9)	102.6 (0.1)	104.2 (1.3)	104.4 (1.6)	104.3 (1.5)	104.7 (1.9)
서 비 스	104.6 (4.6)	105.5 (4.1)	106.2 (2.9)	107.4 (2.7)	107.8 (2.7)	107.8 (2.8)	107.9 (2.7)
집 세	104.1 (4.1)	106.3 (5.4)	107.9 (6.0)	109.6 (5.9)	110.9 (5.8)	110.9 (5.7)	111.3 (5.8)
공공서비스	107.5 (7.5)	107.6 (4.5)	106.4 (△0.3)	106.1 (△1.6)	105.5 (△1.9)	105.5 (△1.9)	105.6 (△1.9)
개인서비스	103.1 (3.1)	103.9 (3.3)	105.2 (3.3)	107.0 (3.6)	107.5 (3.9)	107.5 (3.9)	107.6 (3.9)

자료: 통계청, 주: ()는 전년동기대비, %

- 2002년 9월중 소비자 물가지수는 108.0으로 전년동월대비 3.1%, 전월대비 0.6% 상승

- 태풍으로 인한 출하부진과 추석수요 증가로 농축수산물이 오르고 특별소비세율의 환원에 따른 자동차가격의 상승으로 공업제품 등이 상승하여 전월대비 0.6% 상승.
- 2002년 9월중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1.5% 올라 2개월 연속 상승. 이는 대미달러 원화 환율의 상승과 원유, 고철 등 공산품의 주요 수입원자재의 국제가격 상승, 농림수산물 생산량 감소 등에 기인.
- 농림수산품은 전월대비 2.5% 상승하였는데 이는 일기불순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기인.

수출물가지수(1995=100)

	2001년		2002년				
	연간	4/4	1/4	2/4	3/4	8월	9월
농림수산품	117.4 (7.1)	119.5 (12.2)	114.8 (1.4)	110.9 (△6.7)	112.4 (△4.7)	112.1 (△3.9)	114.9 (△4.8)
공 산 품	114.4 (6.2)	110.2 (0.8)	111.7 (△4.1)	110.1 (△6.0)	105.7 (△7.0)	105.6 (△6.5)	107.2 (△5.6)
원 자 재	100.1 (2.6)	94.4 (△4.3)	96.8 (△6.1)	97.6 (△5.8)	94.5 (△4.9)	94.4 (△4.3)	96.4 (△2.7)
자 본 재	114.8 (7.1)	112.7 (3.6)	114.3 (△2.2)	110.8 (△4.4)	104.4 (△8.1)	104.6 (△7.4)	104.6 (△7.7)
소 비 재	143.2 (11.6)	141.3 (7.9)	141.1 (△1.5)	135.0 (△6.9)	129.2 (△9.6)	129.0 (△9.3)	130.4 (△8.9)
총 지 수	114.4 (6.2)	110.3 (0.9)	111.8 (△4.0)	110.1 (△6.1)	105.8 (△7.0)	105.7 (△6.5)	107.3 (△5.5)

자료: 한국은행

주: ()는 전년동기대비

- 공산품은 전월대비 1.5% 상승하였는데 이는 대미달러 원화환율의 상승 및 원유, 고철, 양모 등 주요 수입원자재의 국제가격

상승 등으로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금속1차제품,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 등이 오름세를 나타낸데 주로 기인함.

- 2002년 9월중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2.7% 올라 전월에 이어 상승세 지속. 수입물가의 상승세 지속은 대미달러 원화환율의 상승과 국제원유가격 상승 등으로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가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소비재도 등유 등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크게 오른데 기인.

수입물가지수(1995=100)

	2001년		2002년				
	연간	4/4	1/4	2/4	3/4	8월	9월
농림수산물	117.7 (10.7)	114.5 (3.9)	120.0 (1.0)	118.7 (△2.0)	117.2 (0.7)	116.9 (0.1)	122.0 (5.7)
공 산 품	130.6 (5.6)	125.0 (△1.1)	125.6 (△6.2)	125.9 (△5.9)	122.2 (△5.9)	121.8 (△5.7)	123.9 (△4.5)
원 자 재	144.4 (4.5)	133.3 (△6.9)	137.2 (△7.4)	142.1 (△6.1)	138.2 (△4.6)	137.4 (△5.0)	141.7 (△1.3)
자 본 재	125.4 (6.6)	124.8 (5.3)	124.0 (△1.1)	121.9 (△3.2)	119.6 (△4.8)	119.7 (△4.4)	120.0 (△5.1)
소 비 재	135.3 (7.6)	131.6 (0.5)	132.5 (△2.0)	130.2 (△5.8)	122.8 (△9.9)	122.1 (△9.2)	126.3 (△9.0)
총 지 수	140.4 (4.9)	131.7 (△4.6)	134.5 (△6.2)	137.8 (△5.6)	134.0 (△4.8)	133.4 (△5.1)	137.0 (△2.2)

자료: 한국은행

주: ()는 전년동기대비

- 자본재는 전월대비 0.3% 상승하였는데 이는 전기전자기기가 수요부진 등으로 하락하였으나 정밀기기, 일반기계 등이 대미달러

원화환율 상승으로 오른데 기인.

- 소비재는 전월대비 3.4% 상승하였는데 이는 국제원유가격 상승 영향 및 추석명절 수요 증가 등으로 등유, 과일 등 비내구재가 큰 폭으로 오른데 주로 기인.

6. 금융 및 외환

- M3 증가율은 6월 이후 낮아지기 시작하여 7월중에도 은행민간신용 둔화 추세 및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 등으로 해외부문을 통한 유동성 공급 축소로 12%대 후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됨.
- 7월중 M2 및 신M1 증가율도 민간신용 둔화로 전월보다 크게 하락함.

동화지표 증감률(평잔기준)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01년	2002년		
	연간	6월	7월	8월
신M1 ¹⁾	18.0	26.4	22.6	-
M2	15.7	13.8	12.3	12.1
M3	9.6	13.5	12%후반	-
본원통화	11.5	16.8	14.9	15.1

주: 1) 신M1=현금통화+요구불예금 및 수시 입출식저축성예금(투신사MMF포함),

자료: 한국은행.

- 회사채 유통수익률 등 장기금리는 미 금융불안의 영향으로 연중 최저수준으로 하락한 후 다시 반등하였으나 국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9월 장기금리는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

- 9월중 CD수익률 등 단기 시장금리는 소폭 상승.

금리

단위: %

	2001년	2002년			
	연간	6월	7월	8월	9월
콜 금 리	4.63	4.27	4.26	4.26	4.28
CD유통수익률	5.30	4.85	4.91	4.80	4.81
회사채유통수익률	7.04	6.76	6.59	6.23	6.06

자료: 재정경제부

- 원/달러 환율은 9월 달러당 1,225.5원으로 8월에 이어 상승세를 보임. 이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크게 유출되고, 8월 수출대금의 일부가 7월중 선매각된 영향으로 외환공급이 줄어든데 기인.

달러 환율

단위: 원(기말환율)

	2001년		2002년				
	3/4	4/4	1/4	2/4	3/4	8월	9월
원/달러	1,309.1	1,326.1	1,326.4	1,201.8	1,225.5	1,200.5	1,225.5

자료: 재정경제부

IV. 농촌경제 동향5)

1. 농촌물가

- 농가판매가격지수는 2002년 8월 129.4를 기록 전월대비 6.6%, 전년동월대비 4.4% 상승함. 과실이 전년동월대비 64.7% 올라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였고, 서류는 전년동월대비 15.4% 떨어져 큰 폭의 하락을 보임.

농가판매가격지수의 변화

	가중치	2001	2002			등락률(%)	
		8월	6월	7월	8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총 지 수	1000	123.9	121.5	121.4	129.4	4.4	6.6
곡 물	323.3	137.8	127.9	128.0	128.1	△7.0	0.1
미 곡	288.7	141.1	130.6	130.6	130.5	△7.5	△0.1
맥 류	13.6	119.8	119.8	119.8	119.8	0.0	0.0
잡 곡	3.7	130.4	131.9	131.9	132.0	1.2	0.1
두 류	7.8	123.8	120.8	127.4	128.1	3.5	0.5
서 류	9.5	76.1	60.9	58.8	64.4	△15.4	9.5
청 과 물	296.6	108.9	97.2	97.5	127.4	17.0	30.7
채 소	208.5	124.7	90.7	92.3	131.6	5.5	42.6
과 실	88.1	71.4	112.6	109.8	117.6	64.7	7.1
축 산 물	322.3	126.4	138.9	137.7	134.6	6.5	△2.3
가 축	294.7	126.8	140.8	139.7	136.0	7.3	△2.6
유 란	27.6	122.5	118.8	116.5	119.3	△2.6	2.4
기 타	57.8	108.9	113.1	115.4	117.4	7.8	1.7
특 작	48.8	112.7	119.9	122.0	122.4	8.6	0.3
화 훼	6.7	64.8	50.1	54.0	68.4	5.6	26.7
부 산 물	2.3	155.8	153.2	153.2	153.2	△1.7	0.0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5)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김경덕 부연구위원(kdkim@krei.re.kr), 정학균 연구원(hakb247@krei.re.kr), 송우진 연구원(gnos@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 전년동월대비 두류(3.5%)와 잡곡(1.2%)은 상승하였으나, 서류(Δ 15.4%)와 미곡(Δ 7.5%)이 크게 하락한 곡물류는 128.1을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7.0% 하락하였음.
 - 채소(5.5%)와 과일(64.7%)이 상승한 청과물류는 127.4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17.0% 상승.
 - 유란(Δ 2.6%)은 하락하였으나 가축(7.3%)부문이 오른 축산물류는 134.6을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6.5% 상승
 - 기타 품목에서는 부산물(Δ 1.7%)이 하락하였고, 화훼(5.6%)와 특작(8.6%)이 크게 상승하였음.
- 농가구입가격지수는 2002년 8월 150.5을 기록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6.4% 상승함.
- 가계용품은 143.1을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5.1%, 전월대비 1.6% 상승. 이는 주거비, 보건의료비의 전년동월대비 하락에도 불구하고 식료품가격과 교육교양비가 각각 전년동월대비 15.4%, 6.8%로 크게 상승한데 기인함.
 - 종자비, 사료비가 전년동월대비 하락하였으나, 가축비가 23.3%로 크게 상승한 농업용품은 159.5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8.2% 상승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0.8% 하락함.
 - 농촌임료금은 기타임금이 크게 올라 154.1을 기록함. 전년동월대비 4.5% 상승.

농가구입가격지수의 변화

	가중치	2001	2002			등락률(%)	
		8월	6월	7월	8월	전 동월 대비	전 년 월 대비
총 지 수	1000	141.5	147.9	149.8	150.5	6.4	0.5
가계 용품	524.9	136.1	140.7	140.8	143.1	5.1	1.6
식 료 품	97.6	130.8	139.2	138.6	150.9	15.4	8.9
피 복 비	39.1	119.0	121.7	121.3	121.9	2.4	0.5
주 거 비	48.7	95.2	94.4	94.1	94.1	△1.2	0.0
가계광열	35.6	185.4	187.1	188.5	188.2	1.5	△0.2
보건의료	69.8	164.9	160.7	160.8	160.8	△2.5	0.0
교육교양	121.5	137.4	146.8	147.0	146.8	6.8	△0.1
교통통신	76.5	131.2	135.3	135.8	136.1	3.7	0.2
잡 비	36.1	125.9	134.6	134.6	134.7	7.0	0.1
농업 용품	403.7	147.4	156.5	160.8	159.5	8.2	△0.8
종 자	17.4	100.7	100.1	100.1	99.7	△1.0	△0.4
비 료	24.3	150.0	150.0	150.2	150.2	0.1	0.0
농 약	24.6	132.9	133.0	133.0	133.0	0.1	0.0
농기구류	83.6	154.2	154.2	154.2	154.2	0.0	0.0
영농광열	13.9	163.5	176.5	168.4	168.5	3.1	0.1
가 축	129.9	173.7	202.8	216.8	214.1	23.3	△1.2
사 료	77.7	120.8	117.3	117.3	113.8	△5.8	△3.0
영농자재	32.3	115.2	115.3	115.3	119.2	3.5	3.4
농촌임료금	71.4	147.5	152.7	153.9	154.1	4.5	0.1
농업노임	31.7	148.8	153.2	154.9	155.6	4.6	0.5
기타임금	2.8	118.0	126.7	129.1	127.2	7.8	△1.5
도 정 료	8.2	189.5	195.2	195.2	195.2	3.0	0.0
농기계임차	28.7	136.9	142.5	143.3	143.3	4.7	0.0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2. 농가교역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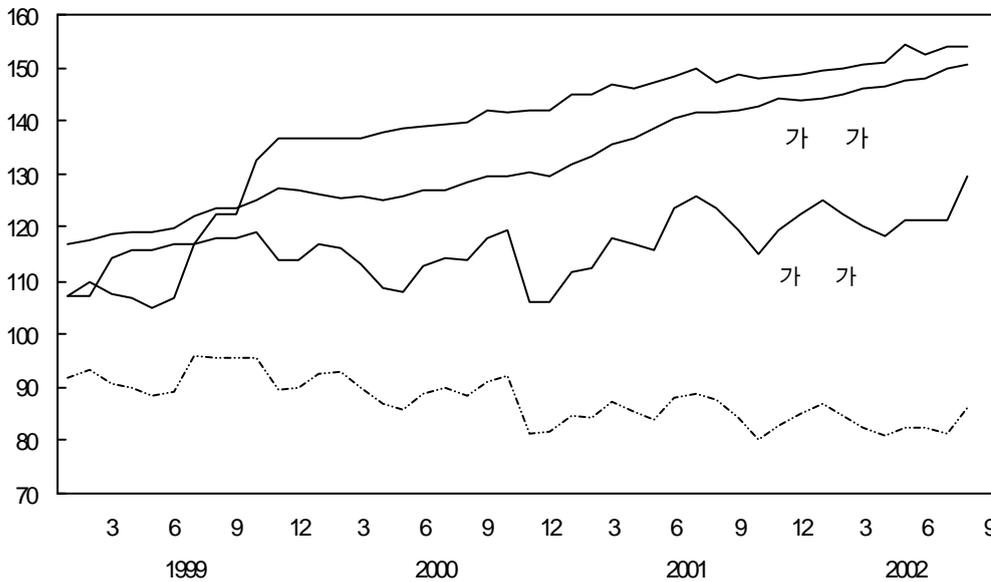
- 청과물류가 큰 폭으로 오른 농가판매가격이 129.4를 기록하고,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50.5를 기록하여 농가교역조건을 나타내는 패리티 지수는 86.0로 전월대비 6.1% 상승함. 그러나 전년동월대비는 1.8% 하락.

농가교역조건 변화

	2001	2002			등락률(%)	
	8월	6월	7월	8월	전년동월	전월비
농가판매가격지수(A)	123.9	121.5	121.4	129.4	4.4	6.6
농가구입가격지수(B)	141.5	147.9	149.8	150.5	6.4	0.5
패리티지수(A/B*100)	87.6	82.2	81.0	86.0	△1.8	6.1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농촌물가지수의 변동추이



3. 주요 품목의 농업소득

- 마늘의 전년동월대비 농업소득 61.1% 늘어 큰 폭으로 증가.
 - 올해 마늘의 생산량은 줄었으나, 가격 상승폭이 커 전년동기대비 농업소득 61.1% 증가.
 - 그 외에 고랭지 배추, 사과, 노지포도, 노지수박, 양파 등의 생산량 감소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농업소득 증가.
- 고랭지 감자 농업소득 전년동월대비 39.5% 감소.
 - 고랭지감자의 농업소득은, 생산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감소로 가격이 하락해 전년동월대비 39.5% 감소함.
 - 고랭지무, 배, 시설감귤, 대파 또한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요 감소 폭이 커 농업소득도 감소.
- 보리의 농업소득은 가격은 상승했으나,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해 전년동월대비 30.3%로 크게 감소함.

2002년 3/4분기 주요품목의 소득 변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생산량	가 격	조수입	경영비	농업소득
고랭지감자	△15.4	△13.7	△26.9	△6.3	△39.5
고랭지무	△4.6	△2.7	△7.2	△0.8	△11.5
고랭지배추	△3.7	17.8	13.5	△3.0	20.6
사과	△0.7	12.0	11.2	△2.3	18.9
배	△2.2	△21.1	△22.8	16.6	△54.3
노지포도	△15.4	27.5	7.8	1.8	10.9
시설감귤	△0.4	△10.4	△10.8	△4.7	△23.1
대파	△12.4	△8.2	△19.6	△2.1	△29.5
노지수박	△2.8	3.2	0.4	△7.4	6.5
보리	△22.6	0.1	△22.5	△10.8	△30.3
마늘	△2.9	33.3	29.4	△9.7	61.1
양파	△13.1	13.3	△1.6	△17.2	6.5

자료: KREI-FHEMO

4. 농업인력

- 농림업 취업자수는 금년 8월 224만 명으로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3.7% 감소하여 농림업분야의 고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보임. 농가대 비농가의 농림업취업자수를 보면 농가의 농림업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6% 감소했으나 비농가의 농림업취업자수는 3.9% 증가.

농림업 취업자수 동향

단위: 천명

	2001년		2002년			증감률(%)		
	연간	8월	6월	7월	8월	전년동월	전월	
경제활동 인구	22,181	22,276	22,885	22,870	22,598	1.4	△1.2	
취업자	전 산 업	21,362	21,524	22,274	22,244	21,939	1.9	△1.4
	농 립 업	2,105	2,327	2,287	2,242	2,240	△3.7	△0.1
	농가	1,906	2,094	2,025	2,001	1,997	△4.6	△0.2
	비농가	199	233	262	241	242	3.9	0.4

자료: 통계청

- 한편 농가의 농외취업자수는 지난해에 이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금년 8월중 농외취업자는 48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 감소로 반전함. 이는 잦은 비 등 이상기후로 농외취업 기회가 줄어든 것에 기인함.

농가의 취업자 변화

단위: 천명, %

	2001년		2002년			증감률(%)	
	연간	8월	6월	7월	8월	전년동월	전월
농림업취업자	1,906	2,094	2,025	2,001	1,997	△4.6	△0.2
농외 취업자	496	489	487	500	483	△1.2	△3.4

자료: 통계청

5. 농산물 수출입

5.1. 수출동향

- 농산물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2.1% 증가하였으나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의 수출량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여 금년 1~8월 누계 농림축수산물 수출은 17억 1,710만 달러로 집계되어 전년동기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농림수산물 수출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구 분	2001년	2001.1~8	2002.1~8	증감률 (%)
농림축수산물	2,872.4	1,779.3	1,717.1	△3.5
농림축산물	1,600.4	952.1	1,002.7	5.3
농축산물	1,369.8	857.9	935.6	9.1
농산물	1,251.9	779.2	873.4	12.1
축산물	117.9	78.7	62.2	△20.9
임산물	230.6	94.2	67.1	△28.8
수산물	1,272.0	827.2	714.4	△13.6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과실류, 화훼류 및 김치 수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채소류, 인삼 수출은 감소.
- 채소류는 주요시장인 일본의 수출여건 악화(오이, 딸기 등 품작, 파프리카의 수출단가 하락)에 따른 수출물량 확보 애로 등으로 수출이 저조했으나 8월중 수출 증가로 감소세 다소 완화.
- 김치류는 월드컵 특수, 한류열풍 및 적극적인 신규시장개척 등

에 힘입어 5월 이후 수출 증가세 유지.

주요 품목의 수출금액

품 목	수출액(천달러)					
	1999	2000	2001	2001. 1~8	2002. 1~8	증감률 (%)
돼지고기	340,451	74,957	46,140	33,092	14,764	△55.4
닭 고 기	2,116	3,025	3,068	1,733	2,186	26.1
김 치	79,245	78,847	68,731	47,375	51,719	9.2
홍 삼	41,419	40,899	31,977	11,260	3,031	△73.1
백 삼	6,091	4,172	4,586	3,141	3,005	△4.3
사 과	1,674	2,339	3,235	1,993	3,271	64.1
배	11,763	17,104	19,568	3,874	12,770	229.6
감 굴	6,593	4,493	4,855	3,388	742	△78.1
딸 기	7,857	9,531	11,084	9,285	5,189	△44.1
토 마 토	17,504	22,949	15,402	7,991	4,459	△43.8
오 이	9,293	9,886	11,466	6,093	2,999	△50.8
고 추	15,153	29,673	40,257	29,153	26,190	△10.2
백 합	3,058	4,395	4,868	1,717	3,384	97.1
장 미	6,471	10,324	10,220	6,579	4,300	△34.6
버 섯 류	4,423	5,562	6,888	3,426	4,210	22.9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과실류는 대만의 WTO 가입에 따른 과실시장 개방 및 단감의 동남아시아에서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노력 등에 힘입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
- 화훼류는 절화류 주 수출국인 일본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백합, 국화 등의 수출 증가와 심비디움 등 난류의 품질향상과 함께 적극적인 대중국 시장개척 영향 등으로 수출 증가세 유지.

- 인삼류는 수출비중이 높은 홍삼의 수출저조 및 단가가 높은 '정' 제품의 수출부진 영향 등으로 수출 감소세 지속.
- 돼지고기는 구제역에 따른 수출 중단 영향으로 수출 감소세 지속.

5.2. 수입동향

- 금년 8월까지의 누적 농림축수산물의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6.6% 증가했음. 축산물의 수입이 44.8%, 임산물의 수입이 26.3% 증가해 전체 수입증가를 주도하였음. 농산물 수입은 6.4% 증가에 그침.

농림수산물 수입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구 분	2001	2001.1~8월	2002.1~8월	증감률(%)
농림축수산물	10,242.5	6,564.4	7,652.6	16.6
농림축산물	8,591.0	5,510.5	6,431.1	16.7
농축산물	6,791.8	4,391.9	5,018.3	14.3
농산물	5,325.3	3,490.9	3,713.8	6.4
축산물	1,466.5	900.9	1,304.5	44.8
임산물	1,799.2	1,118.6	1,412.9	26.3
수산물	1,651.5	1,053.9	1,221.5	15.9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쇠고기 수입은 광우병파동으로 인한 수입육 소비감소 경향이 퇴조함과 동시에 국내 한우가격의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쇠고기 수입이 전년동기에 비해 95.6% 증가하였으며,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수입도 각각 22.9%, 17.4% 증가함.
- 옥수수과 밀의 수입은 각각 0.2%, 1.9% 증가하여 5월 누적에 비해

증가폭이 완화되었고, 대두는 큰 폭으로 수입량이 늘어 전년동기 대비 14.0% 증가.

주요 품목의 수입금액

품 목	수 입 액 (천 달러)					증감률 (%)
	1999	2000	2001	2001. 1~8	2002. 1~8	
쇠 고 기	505,247	795,016	555,392	312,081	610,530	95.6
돼지고기	226,425	259,151	181,958	122,688	150,765	22.9
닭 고 기	45,940	64,717	97,240	63,703	74,768	17.4
옥 수 수	887,467	937,747	932,770	622,069	623,459	0.2
밀	533,892	470,809	530,295	335,547	341,842	1.9
대 두	312,015	329,963	293,541	174,853	199,294	14.0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금년 8월까지의 열대과일 수입은 키위가 전년동기대비 88.7% 증가한 것을 필두로 포도, 파인애플, 레몬, 오렌지의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

열대과일 수입동향

품 목	수 입 액 (천 달러)					증감률 (%)
	1999	2000	2001	2001. 1-5	2002. 1-5	
오 렌 지	82,785	116,013	121,689	106,022	124,713	17.6
키 위	7,521	8,647	9,272	5,864	11,064	88.7
포 도	16,059	31,104	25,410	20,323	23,423	15.3
파인애플	19,574	19,382	20,305	14,097	16,751	18.8
바 나 나	71,856	75,250	70,045	52,798	58,372	10.6
레 몬	4,449	4,960	5,510	3,315	3,948	19.1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5.3. 중국농산물 수입동향

-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수산물 수입은 작년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금년 들어 다시 완만히 증가하여 8월까지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수산물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3.2% 증가한 15억 853만 달러로 집계되었음.
- 임산물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47.1% 늘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농산물, 축산물도 각각 22.4%, 28.1% 늘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한편 수산물은 12.3% 늘어 증가폭이 둔화됨.

중국산 농림축수산물 수입동향

단위: 천달러, %

	1999	2000	2001	2001, 1-8	2002, 1-8	전년대비 증감율
농산물	551,618	1,152,039	846,089	587,128	718,779	22.4
축산물	15,055	23,411	32,256	21,091	27,019	28.1
임산물	214,721	282,634	338,503	203,770	299,846	47.1
수산물	413,754	486,758	634,997	412,072	462,884	12.3
계	1,195,148	1,944,842	1,851,845	1,224,061	1,508,528	23.2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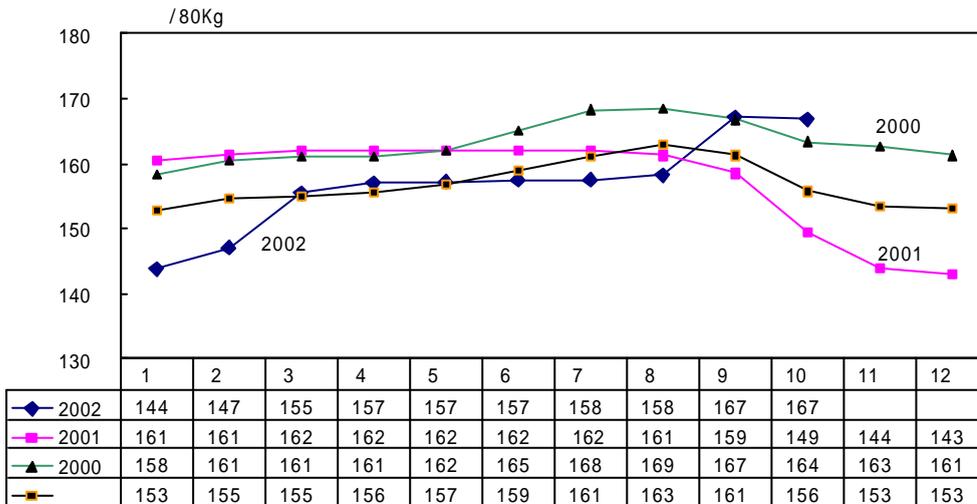
V .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⁶⁾

1. 식량작물 및 사료곡물

1.1. 쌀

- 9월 15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실시한 쌀 예상량 조사에 의하면 2002년 쌀 생산량은 3,440~3,450만석으로 추정됨. 이는 전년 생산량 3,830만석보다 9.2~10.2% 감소한 수치임.
- 금년에는 1997년부터 계속 늘어오던 벼 재배면적이 줄었을 뿐 아니라, 8월 상·중순에 내린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의 피해가 커 생산량이 많이 감소.

쌀 도매가격 동향 (전라미, 상품 기준)



주) 평년은 1998~01년의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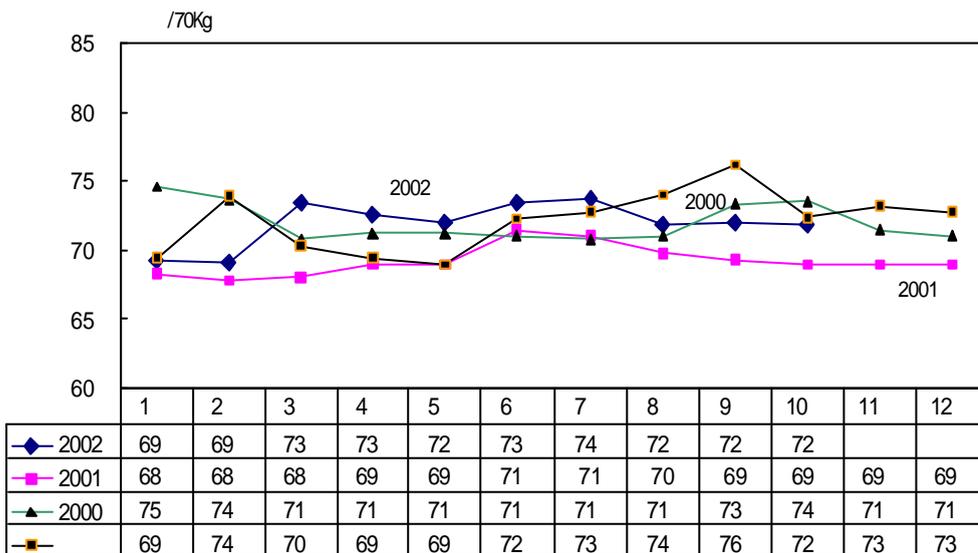
6)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김경덕 부연구위원(kdkim@krei.re.kr), 정학균 연구원(hakb247@krei.re.kr), 송우진 연구원(gnos@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 금년 10월중 쌀 도매가격은 16만 7천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1.8%, 평년대비 7.2% 상승한 수준을 나타냄.

1.2. 보 리

- 2002년산 보리수매를 5월 30일~7월 31일까지 실시하며, 수매가격은 40kg(조곡, 1등급) 한가마당 겉보리 3만 1,490원, 쌀보리 3만 5,690원, 맥주보리 4만 180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임.
- 2002년 10월 보리 도매가격은 7만 1,8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1% 상승, 평년대비 0.8% 하락한 수준임.

보리 도매가격 동향 (쌀보리,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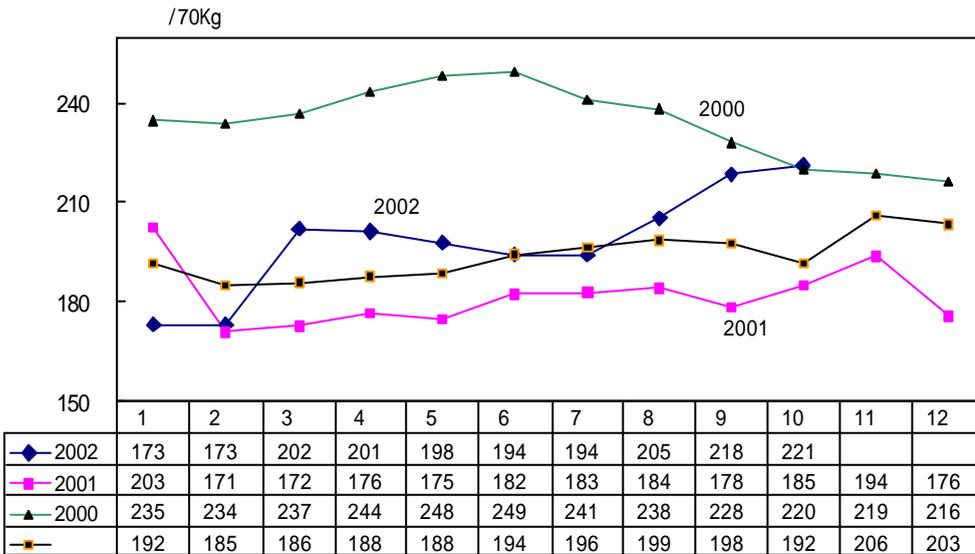


주) 평년은 1998~01년의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1.3. 대 두

- 2002년 대두 생산량은 정부가 전작보상제 대상품목으로 일반콩과 콩나물콩을 지정함에 따라 재배면적이 전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02년 대두 도매가격(70kg, 상품기준)은 22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19.5%, 평년대비로는 15.3% 하락한 수준임.
- 작년말부터 금년 1~2월까지 가격이 폭락한 것은 설·대보름을 전후해 밀수물량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 3월 이후 가격이 급등한 것은 밀수물량의 소진과 전작보상제 도입에 따른 종자수요의 증가 등 전체 시장물량 부족 때문인 것으로 보임.

콩 도매가격 동향 (국산 백태,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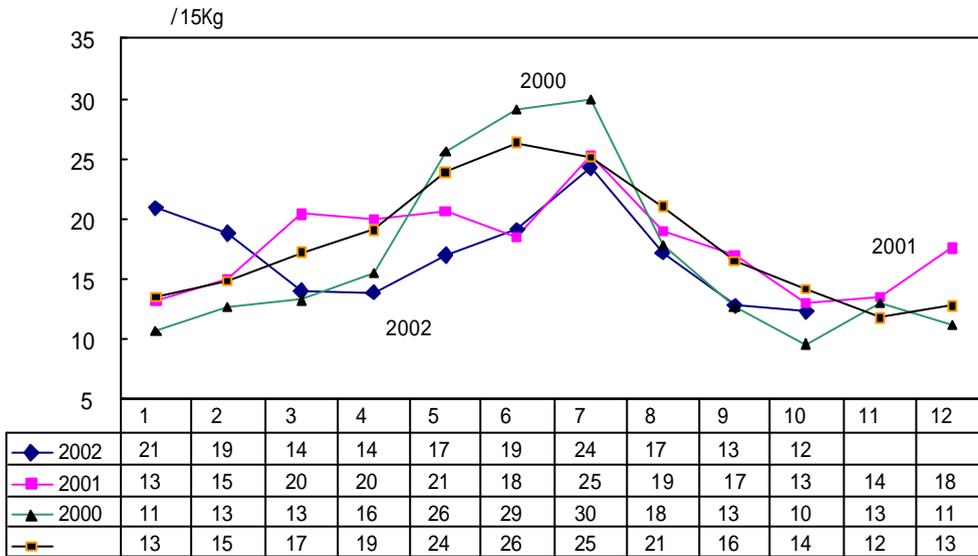
주) 평년은 1998~01년의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1.4. 고구마

- 2002년 고구마 도매가격은 7월을 정점으로 급격히 하락하다 9월과 10월에 들어 하락폭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임.
- 2002년 7월 고구마 도매가격은 2만 2,200원(15kg, 상품)으로 전년 대비 6.1% 하락했으나, 평년대비로는 10.4% 상승한 수준임.

고구마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주) 평년은 1998~01년의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1.5. 사료곡물

- 2002년 8월 누계 사료곡물 수입량은 534만 5천 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12.7% 증가. 도입단가의 하락으로 금액으로는 5억 6천만달러로 8.4% 증가에 그침.

- 옥수수 수입량은 432만 1천 톤으로 전년동기대비 4.7% 증가하였고, 밀 수입량은 102만 4천 톤으로 66.3% 증가. 도입단가는 옥수수가 105달러/톤으로 2.6% 하락하였고, 밀은 102달러/톤으로 10.2% 하락한 수준.

사료용 곡물 수입 실적

구 분			1999	2000	2001	2001.1~8	2002.1~8	증감률
옥수수	수입량	천톤	6,122	6,683	6,291	4,128	4,321	4.7
	단가	US\$/톤	108	105	107	108	105	△2.6
	수입액	백만US\$	661	703	675	446	455	2.0
밀	수입량	천톤	1,902	809	1,141	616	1,024	66.3
	단가	US\$/톤	98	109	110	114	102	△10.2
	수입액	백만US\$	186	88	126	70	105	49.3
계	수입량	천톤	8,024	7,492	7,432	4,744	5,345	12.7
	단가	US\$/톤	106	106	108	109	105	△3.8
	수입액	백만US\$	847	791	801	516	560	8.4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2. 채소류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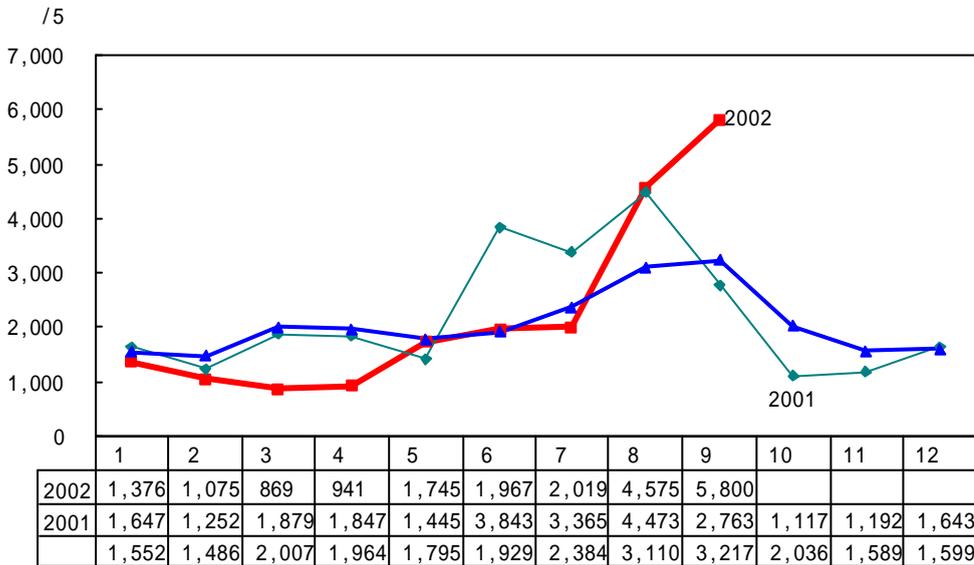
2.1 배추

- 배추의 3/4분기 도매가격은 5톤트럭당 413만원(상품 기준)으로 2/4분기보다 2배 이상, 평년 3/4분기보다는 50% 높은 수준이었음.
- 가격이 크게 높았던 것은 8월의 집중호우 및 저온 피해와 태풍 '루사'로 인해 고랭지배추의 작황이 크게 나빠져 출하량이 적었기 때문임.
- 농업관측정보센터의 9월 중순 표본농가 조사결과, 금년 가을배추 정식면적은 작년이나 평년보다 3%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금년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13,700ha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됨.
- 농촌진흥청의 9월 16일 생육상황 조사결과, 정식 초기의 잦은 강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키는 작년보다 0.5cm 작고, 잎수도 작년보다 0.1매 적은 것으로 조사되어, 초기 생육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 올해 가을배추 작황을 평년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생산량은 작년보다 5%, 평년보다 3% 적을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11~12월의 배추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10%, 평년보다 7%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됨.
- 농업관측정보센터의 9월 중순 표본농가 조사결과, 월동배추 정식의향면적은 재배면적이 많았던 작년보다 1% 많을 것으로 나타남.

7)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김병률 부연구위원(brkim@krei.re.kr), 홍승지(hseungj@krei.re.kr), 서대석(dssuh@krei.re.kr), 김진현(kjhkim@krei.re.kr), 김성우(swookim@krei.re.kr), 송성환(song9870@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으며 관련문의 사항은 이메일로 연락바람.

- 이는 대체할 만한 동계작물이 없는 데다 마늘과 양파를 줄이고 월동 배추로 전작하고 있기 때문임.
- 지역별로는 북제주와 해남이 작년보다 4% 감소하고, 진도가 1% 감소할 거승로 나타난 반면, 무안이 13%, 신안이 50%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 월동배추 작황을 평년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금년 생산량은 평년보다 25%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 내년 1~3월의 상품 5톤트럭당 도매가격은 평년가격(상품 168만원, 중품 135만원)보다 40% 이상 낮은 100만원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됨.

배추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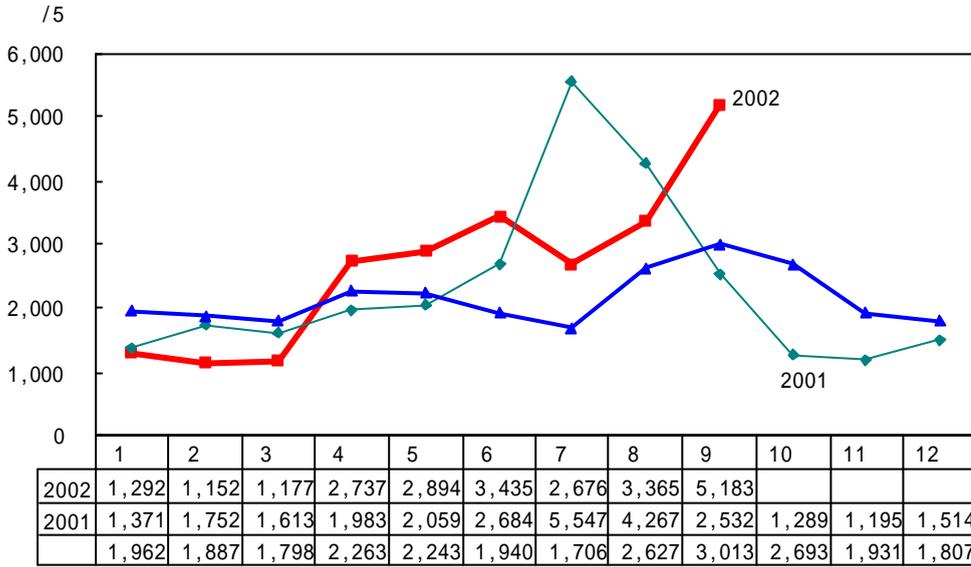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1997.1 ~ 2001년 12월 평균임.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2.2 무

- 무의 3/4분기 도매가격은 5톤트럭당 374만원으로(상품 기준)으로 2/4분기보다는 24%, 평년 3/4분기보다는 53% 높은 수준이었음.
 - 가격이 높았던 것은 8월의 집중호우 및 저온 피해와 태풍 '루사'로 인해 고랭지배추의 작황이 크게 나빠져 출하량이 적었기 때문임.
- 농업관측정보센터의 9월 중순 표본농가 조사결과 금년 가을무 파종면적은 작년보다 9%, 평년보다 10%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금년 가을무 재배면적은 12,500ha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됨.
- 농촌진흥청의 9월 16일 생육상황 조사결과, 파종시기에 잦은 강우와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키는 작년보다 0.7cm 작고, 잎수도 작년보다 0.4매 적은 것으로 조사되어, 초기 생육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올해 가을무 작황을 평년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생산량은 작년이나 평년보다 10% 이상 적을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11~12월의 상품 5톤트럭당 도매가격은 작년이나 평년보다 20%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저장무 주출하지인 고창, 영암, 나주, 광주 등지의 가을무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0% 내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지역모니터 조사결과, 금년 제주도 월동무 재배면적은 재배면적이 크게 늘었던 작년보다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 이는 제주도에서 집중호우와 태풍의 피해를 입은 당근, 감자 등이 월동무로 대체되었고, 육지부의 가을무 재배면적이 줄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임.

- 따라서 내년 1~3월의 출하예상량은 금년 동기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되며, 가격은 금년 동기수준(상품 120만원, 중품 91만원)보다 낮은 100만원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됨.

무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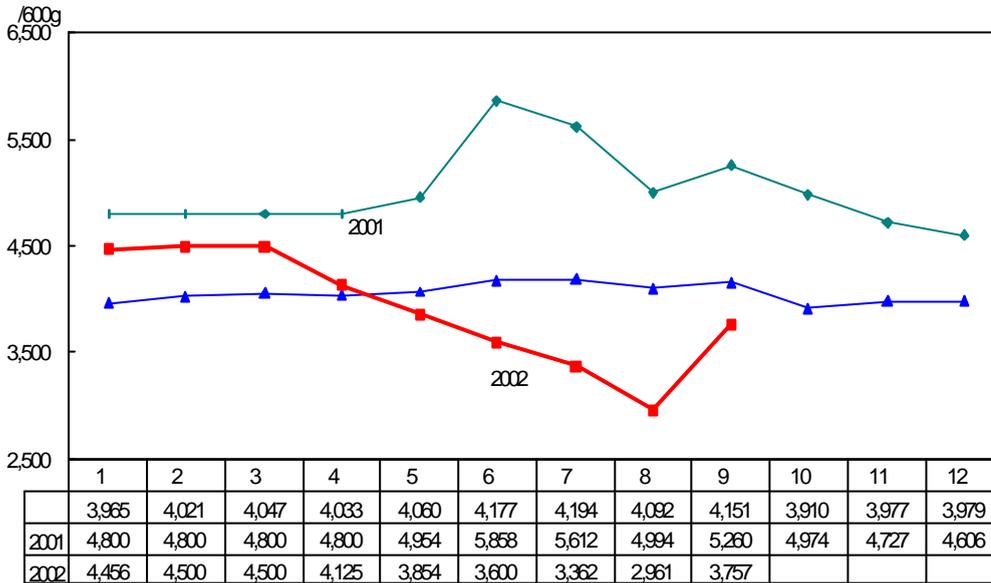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1995.1~1999년 12월 평균임.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2.3 고 추

- 건고추의 3/4분기 도매가격은 600g당 3,360원(화건 상품 기준)으로 2/4분기보다 13%, 작년 동기보다 36%, 평년 동기보다 19% 낮았음. 이는 2001년산 재고량이 많았기 때문임.
- 홍고추의 3/4분기 도매가격은 상품 10kg당 20,620원(상품 기준)으로 2/4분기보다 54%, 작년 동기보다 5% 낮은 반면, 평년 동기보다는 9% 높았음. 이는 가격이 낮은 건고추 대신 홍고추로 출하를 늘리고 있는 추세지만, 8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8~9월 출하량이

감소했기 때문임.

고추 도매가격 동향 (화건, 상품 기준)



주: 평년가격은 1997.1~2001년 12월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금년 고추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2% 증가하고, 평년보다는 2% 감소한 72,104ha임.
- 농촌진흥청의 9월 16일 생육상황 조사결과, 평당주수는 작년·평년과 비슷하고, 초장은 작년·평년보다 3cm 길고, 전체 착과수는 작년보다 1개 적었고, 수확과는 작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농업관측정보센터의 지역모니터 조사결과, 예상단수는 작년과 비슷한 255kg 내외가 될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2002년산 건고추 생산량은 작년보다 2% 많으나, 평년보다는 4% 감소한 18만 4천 톤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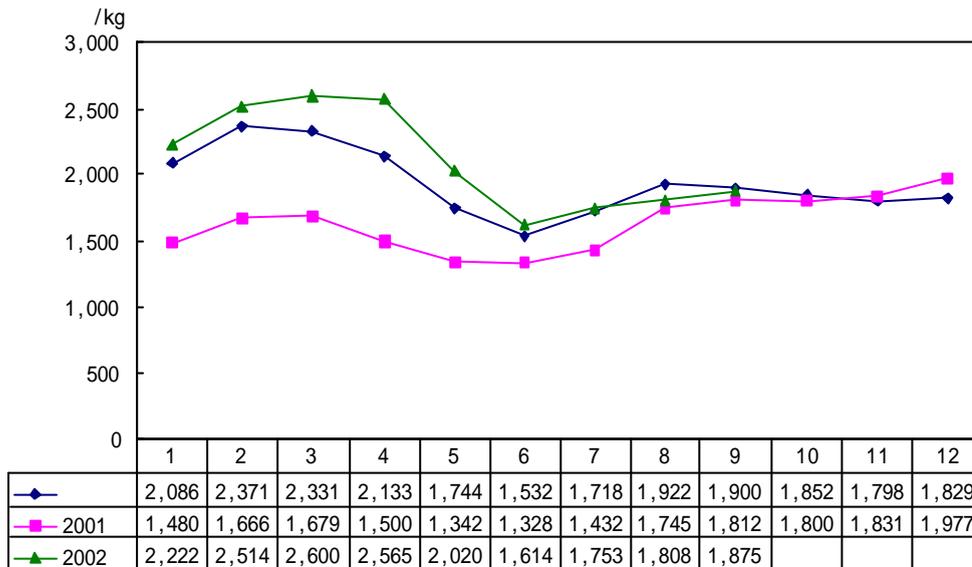
- 2002년산 고추의 연평균 가격은 재고량과 생산량이 많아 작년(4,420원)보다 낮은 화건 상품 600g당 4,000원, 8~10월 수확기 평균가격은 3,600원 내외 전망
- 국내 건고추의 가격이 하락하여 3/4분기 고추 수입량은 3,071톤으로 작년(9,733톤) 동기의 30% 수준이었음.
- 중국 산둥성의 익도산 건고추 산지가격은 9월말 현재 톤당 7,200元(870달러)으로 전월(8,700元)보다 17%, 작년 동기(12,000元)보다 40% 낮은 수준임. 이에 따라 중국의 고추 농가들은 가격이 낮아 수출이 부진한 건고추 대신 홍고추로 출하하려는 추세임. 특히 산둥성의 덕주, 평도 등에서 냉동고추 가공작업을 크게 늘리는 것으로 조사됨.
- 내몽고, 신강 등의 고추 재배면적은 증가하고 작황도 양호하여 익도산 고추 생산량은 작년보다 30%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고, 적정강우와 일조량 등 기상여건이 좋아 상품성도 우수한 것으로 조사됨.

2.4. 마늘

- 마늘의 3/4분기 도매가격은 kg당 1,810원(난지형 상품 기준)으로 2/4분기보다 12%, 평년 동기보다는 2% 낮았지만, 작년 동기보다는 9% 높은 수준이었음.
- 금년산 마늘 생산량은 작년보다 3% 적은 39만 4천톤이며, 한지형은 5만 2,850톤으로 작년보다 17% 감소하였으나, 난지형은 작년과 비슷한 34만 1,632톤임.

- 금년산 마늘 저온저장량은 작년보다 2% 많은 9만 5,500톤으로 추정됨. 이중 9월 중순까지의 출고량은 작년보다 30% 가량 적었는데, 이는 주대마늘의 소비 감소로 가저장물량이 예년보다 많았고, 현 가격수준에 비해 입고단가가 높아 저장업체들이 출하를 미루고 있기 때문임.

마늘 도매가격 동향 (난지형, 상품 기준)



주: 평년가격은 1995.1 ~1999년 12월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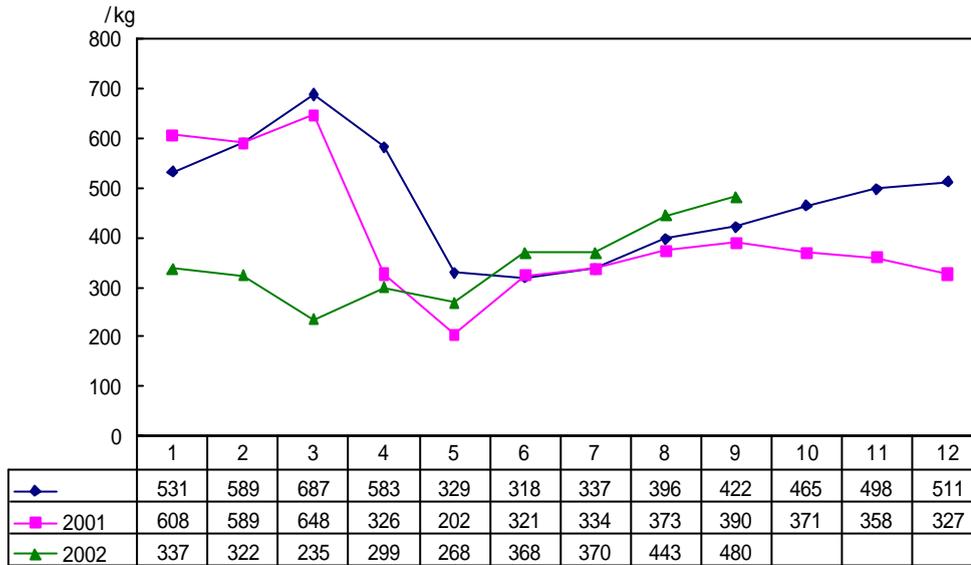
- 재고량이 작년보다 많고, 저장업체들이 마늘수입제한조치 종료후 수입 증강 따른 가격 하락 우려로 출하를 앞당길 수도 있어 10월 이후의 마늘 도매가격은 9월 가격과 비슷하거나 약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내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금년산보다 5% 감소한 3만 1,500ha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품종별로는 한지형이 3% 감소한 6,630ha, 난지형은 6% 감소한 2만 4,860ha임.

- 재배의향면적이 감소한 것은 노동력 부족으로 휴경면적이 증가하고 마늘긴급수입제한 조치의 해제로 수입이 증가할 것을 우려한 마늘 재배농가들이 작목전환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임.
- 중국 산둥성의 마늘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로 작년보다 약 10% 많은 것으로 조사됨. 생산량 증가에도 동남아지역과 유럽 등에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수출단가는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긴급관세가 부과되는 금년말까지는 중국산 신선·냉장 마늘의 민간수입은 적을 것으로 전망됨.

2.5. 양파

- 양파의 3/4분기 도매가격은 kg당 430원(상품 기준)으로 수확기인 2/4분기보다 38%, 작년 동기보다는 18%, 평년 동기보다는 12% 높은 수준이었음.
- 3/4분기의 양파가격이 작년이나 평년동기보다 높았던 것은 금년산 양파 생산량이 작년보다 13% 적고 상품성이 좋은 양파의 출하량이 적었기 때문임.
- 저장업체의 금년산 양파 저장량은 작년보다 3% 적은 43만 7천톤이며 이중 9월 중순까지 출고된 양은 작년보다 38% 많은 2만 9천톤이었음. 이처럼 출고량이 작년보다 많았던 것은 금년산 양파 가 저장물량이 작년보다 일찍 소진되었고 가격이 작년보다 높아 저온 저장 양파의 출하가 앞당겨졌기 때문임.
- 금년산 고령지양파 생산량은 작년보다 30% 적은 1만 2백톤으로 추정됨. 금년산 중만생종 양파의 저장량이 작년보다 적고 내년산 조생종 양파의 재배면적도 금년산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여, 고령지양파의 가격은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양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주: 평년가격은 1995.1~1999년 12월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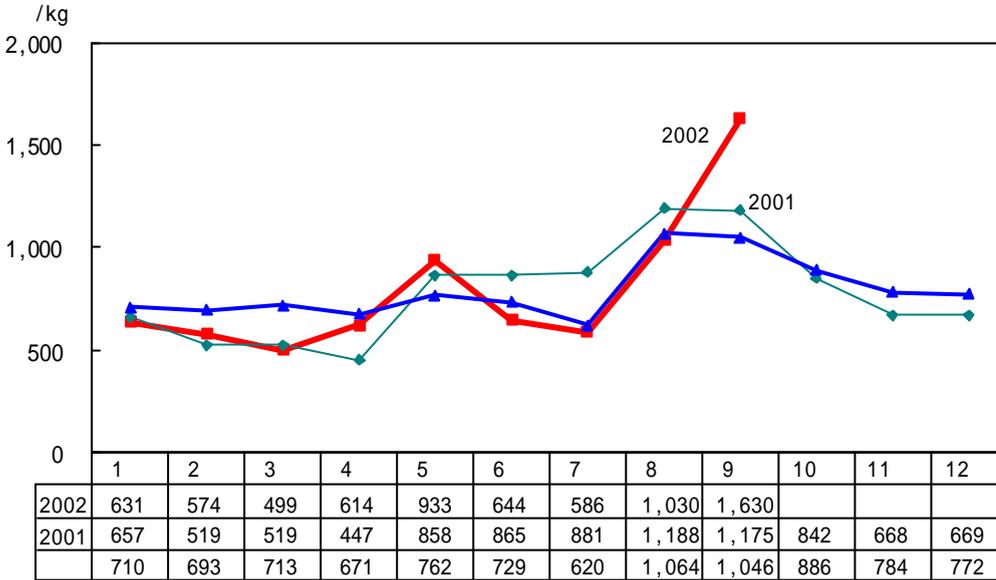
- 금년산 양파 생산량은 작년보다 13% 감소한 93만 3,095톤임.
- 내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4% 감소한 1만 4,700ha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2.6 대 파

- 대파의 3/4분기 도매가격은 kg당 1,080원으로 지난 2/4분기보다 48%, 평년 동기보다는 19% 높은 수준임.
- 가격이 높았던 것은 8~9월의 기상 악화로 출하량이 적었기 때문임.
- 김장대파 출하예상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3% 증가하나, 겨울대파는 8% 감소할 것으로 보여 금년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의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 가격보다 높은 평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대과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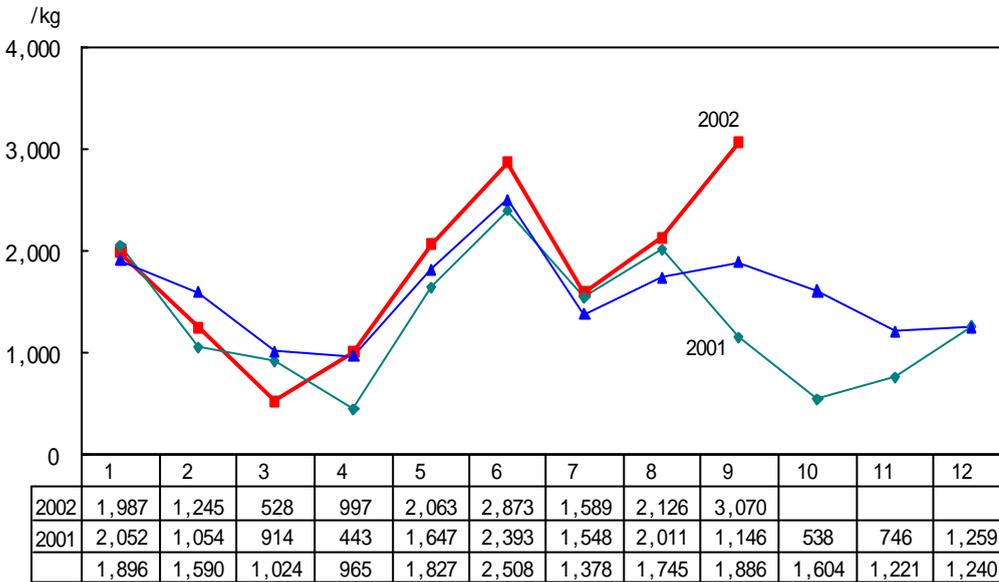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1997.1~2001년 12월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2.7 쪽 파

- 쪽파의 3/4분기 도매가격은 상품 kg당 2,260원으로 지난 2/4분기보다 14%, 평년 동기보다는 35% 높은 수준이었음.
- 가격이 높았던 것은 8~9월의 기상 악화로 노지쪽파 파종면적이 줄었고 생육 상황도 나빠 상품성 높은 쪽파 물량이 적었기 때문임.
- 김장쪽파 출하예상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1%, 겨울쪽파는 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전망됨.

쪽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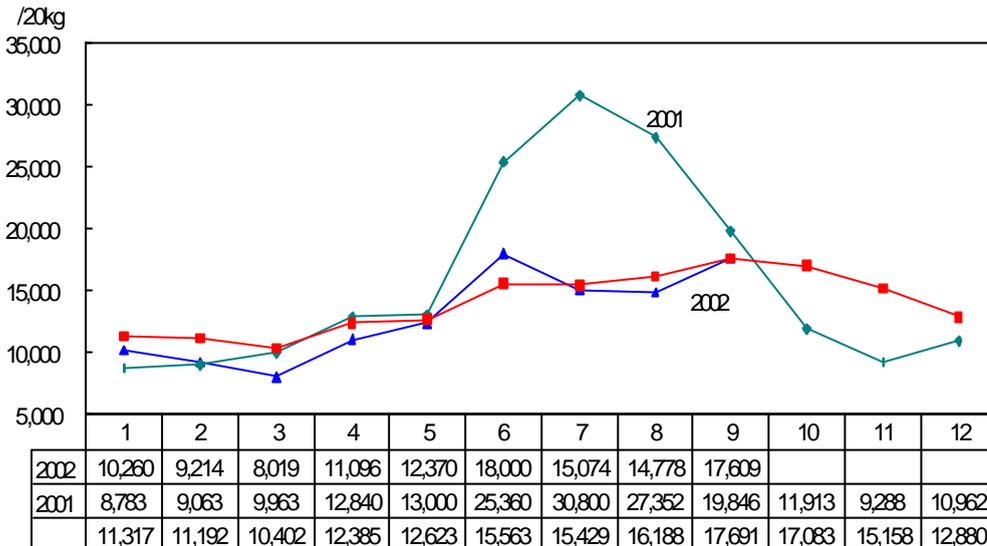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1997.1~2001년 12월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28 당근

- 3/4분기 당근 도매가격은 상품 20kg당 15,82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9%, 평년 동기보다는 4% 낮은 수준임.
- 3/4분기 가격이 작년이나 평년동기보다 낮았던 것은 부산·경남지역의 하우스당근 저장량이 많아 노지 봄당근의 출하가 지연되었고, 고령지당근의 조기출하로 출하량이 많았기 때문임.
- 10~11월의 당근 출하예상량은 재배면적 감소와 태풍 '루사'로 인한 생육부진으로 가뭄으로 고령지당근 출하가 집중되었던 작년 동기보다 25%, 10% 적을 것으로 보이며, 가격은 작년보다 크게 높을 전망.

- 제주지역의 겨울당근 재배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2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이는 작년 겨울당근의 가격이 낮았고, 파종면적중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다소 발생하였기 때문임. 지역별로는 남제주 14%, 북제주는 2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당근 도매가격 동향(상품 기준)



주: 평년가격은 1997.1~2001년 12월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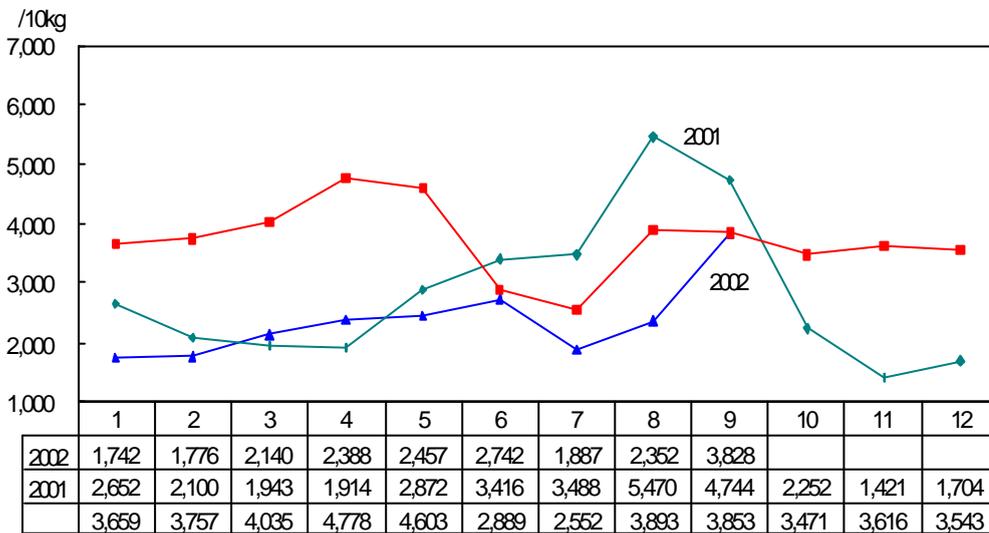
2.9 양배추

- 3/4분기 양배추 도매가격은 상품 10kg당 2,69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1%, 평년동기보다는 22% 낮은 수준임.
- 3/4분기 가격이 크게 낮았던 것은 제주산 겨울양배추 저장량이 많아 봄양배추의 출하가 지연되었고, 고령지양배추의 조기출하로 출하량이 많았기 때문임.
- 10~11월의 양배추 출하예상량은 재배면적 감소와 태풍으로 인한 생

육부진으로 가뭄으로 고령지양배추 출하가 집중되었던 작년 동기보다 20% 내외 적을 것으로 보이며, 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크게 높을 전망이다.

- 호남과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는 겨울양배추의 재배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1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이는 작년 겨울양배추 가격이 낮았고, 정식된 면적중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다소 발생하였기 때문임. 지역별로는 호남 9%, 제주는 1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기준)



주: 평년가격은 1997.1 ~2001년 12월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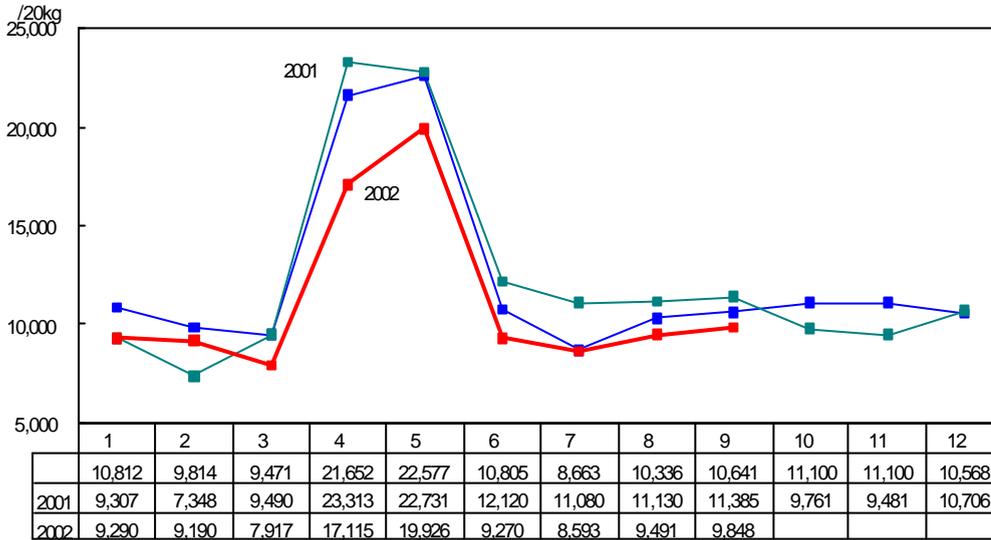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2.10 감 자

- 감자 수미의 3/4분기 도매가격은 상품 20kg상자당 9,310원으로 2/4분기보다 40%, 작년 동기보다 17%, 평년 동기보다 6% 낮았음.

- 3/4분기 감자(수미)가격이 낮은 이유는 봄감자의 생산량이 많았고, 8월의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고령지감자의 상품성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감자(수미)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주: 평년가격은 1997.1 ~ 2001년 12월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고령지감자의 재배면적 조사결과, 작년보다 7% 감소한 4만 5,538ha로 나타남.
- 10월에 출하될 고령지감자(수미)의 예상단수는 작년보다 9% 감소한 3,150kg 내외가 될 것으로 조사되어 예상 생산량은 작년보다 15% 감소한 13만 8,000톤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
- 농업관측정보센터 표본농가 조사결과, 고령지감자의 10월 출하예상면적은 작년보다 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어 전체 출하량은 작년 동기보다 15% 감소할 것으로 추정. 따라서 10월 수미 가격은 상품 20kg당 10,000원 내외로 9월과 작년 동기보다 약간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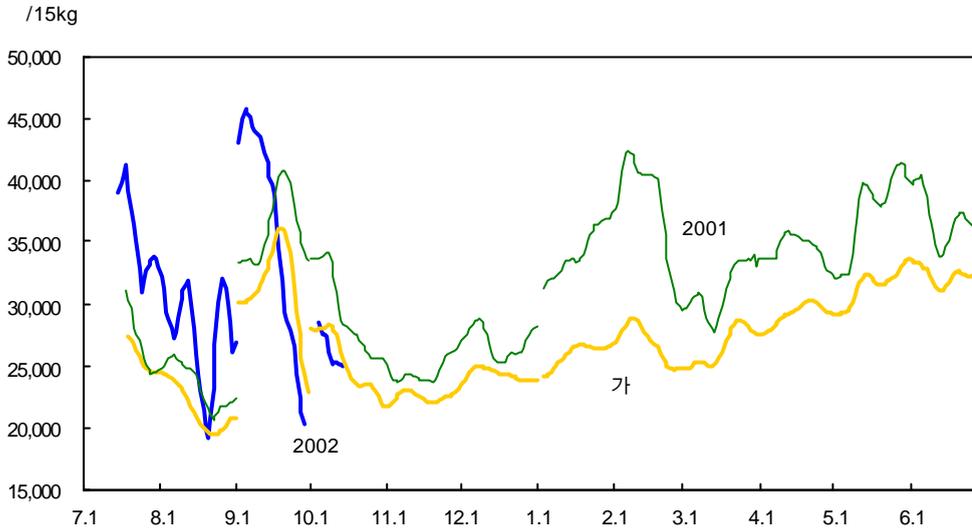
을 것으로 전망.

- 농업관측정보센터 표본농가 조사결과, 가을감자 파종면적은 작년보다 9% 감소한 4,410ha 내외인 것으로 조사됨. 지역별로 경남이 30%, 전남 14%, 제주가 9%, 감소한 반면, 전북은 작년과 비슷함.
- 가을감자 예상단수는 작년보다 5% 감소한 2,000~2,100kg이어서 생산량은 작년보다 12% 감소하나, 평년보다는 6% 많은 9만톤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됨.

3. 과일⁸⁾

3.1. 사과

사과 도매가격 (상품)



주: 7~8월은 쓰가루, 9월은 홍로, 10월부터는 후지 기준임. 평년은 1997, 7~2002, 6월의 일별가격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올해산 쓰가루 7월 가격은 상품 15kg당 3만 5,700원, 8월 가격은 2만 7,400원으로 지난해보다 20~30% 높은 수준임. 홍로 8월 가격은 상품 15kg당 4만 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0% 정도 높았으나 9월은 3만6,900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임. 지난해의 경우 중품이 상품 가격의 70%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품질에 따른 가격 차이가 커져 품종에 따라 50~60% 수준으로 낮아짐.

8)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이용선 부연구위원(yslee@krei.re.kr), 김운형(yonhk2), 박재홍(jhpark), 이은숙(lee523) 연구원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연락바람.

- 사과 재배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한 2만 6,180ha, 성목면적은 3%(650ha) 감소한 1만 8,540ha인 것으로 나타남. 성목면적은 지난해보다 3% 적고 단수는 3% 정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40만톤 전망.
- 지역별 생산량은 경남은 지난해와 비슷하겠으나, 충청과 경북은 성목면적이 4% 감소하고 단수는 지난해보다 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2% 정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품종별 생산량은 홍로가 지난해보다 8%, 홍월은 1%씩 많은 것으로 예상되고, 후지는 2%, 쓰가루는 8% 적을 것으로 전망됨.
- 10월 이후 사과 공급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27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배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10월 이후 사과 가격은 지난해(후지 상품 15kg당 3만 1천원)보다 낮을 전망. 올해산 사과의 수출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3천톤(연산기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품종별 사과 생산량의 지난해대비 증감률

단위: %

	성목면적	단수	생산량
후 지	-4.3	2.9	-1.5
쓰 가 루	-9.2	1.2	-8.1
홍 로	4.3	3.6	8.1
홍 월	-1.7	2.3	0.6
전 체	-3.4	2.8	-0.7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1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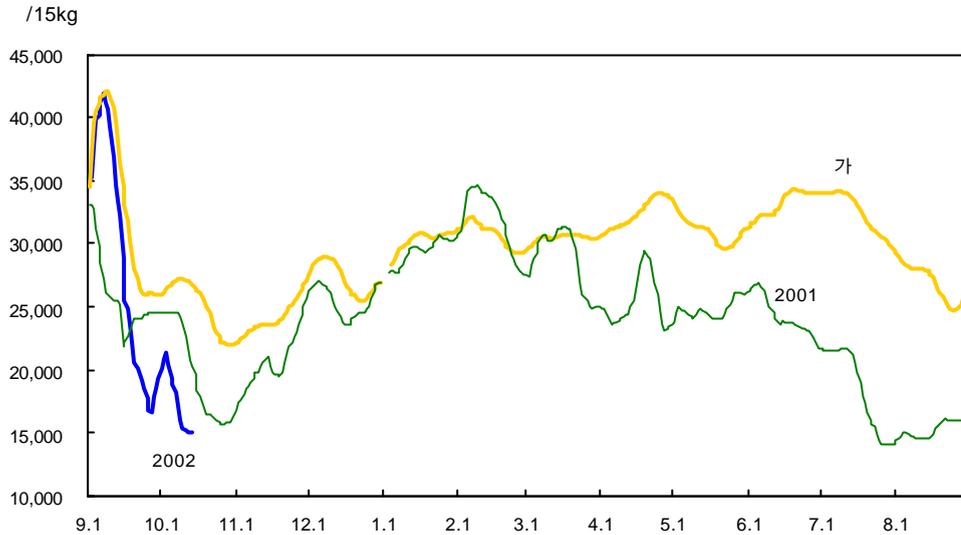
사과 공급량 추정

		생 산 량 (A)	7~9월 공급량 (B)	수출량 (C)	10월 이후 공급량(A-B-C)
공급량 (천톤)	'01년산	404	129	32	271
	'02년산	401	127	33	270
'02/01 증감률(%)		-0.7	-1.5	3.3	-0.3

주: '02년산 생산량 및 시기별 공급량은 10월 1일 기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3.2. 배

배 도매가격 (신고, 상품)



주: 평년은 1996.9~2001.8월 가격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신고 상품 15kg당 도매가격은 추석전 2만 8천원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9월 가격은 지난해보다 16% 낮은 2만원임. 신고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았던 것은 외관이나 당도 등 품질이 좋지 않는데다 미숙과가 많이 출하되었기 때문임. 9월 원황가격은 3만 8천원으로 신고 가격의 두배 수준이며 지난해보다 50% 정도 높은 수준임.
- 배 재배면적은 2만 5,400ha로 지난해보다 1%(140ha)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목면적은 16%(2,320ha) 늘어난 1만 7,110ha가 될 것으로 나타남. 성목면적은 16% 늘어나고 단수는 태풍피해 등으로 인해 15% 줄어들 것으로 나타나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1만 톤) 적은 41만톤 수준으로 전망됨.
- 품종별 생산량은 신고가 2%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으나 황금배와

원황은 성목면적의 증가로 인해 6~9%씩 늘어난 것으로 보임. 지역별 생산량은 성목면적 증가로 인해 경기와 영남이 1~2%, 충청은 1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호남지역은 성목면적이 지난해보다 20% 늘어났지만 태풍으로 인한 단수 감소로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1% 감소한 것으로 예상됨.

- 10월 이후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8% 많고 배의 품질은 일조량 부족과 태풍 피해로 모양과 당도가 지난해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10월 이후 가격은 지난해(신고 상품 15kg당 2만 5천원)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수출량은 대만으로의 수출 증가로 인해 지난해보다 18% 정도 증가한 1만 9천톤(연산기준) 수준이 될 전망이다.

품종별 배 생산량의 지난해대비 증감률

단위: %

	성목면적	단수	생산량
신 고	16.9	-16.2	-2.0
장십량	-6.2	-15.0	-20.3
황금배	18.3	-7.6	9.3
원 황	16.4	-8.9	6.1
전 체	15.7	-15.2	-1.9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1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배 공급량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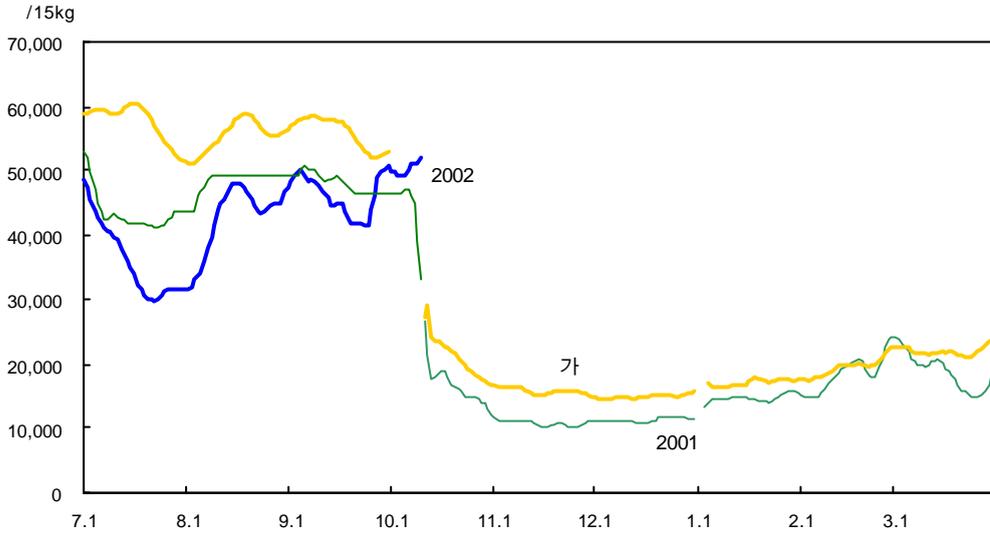
		생 산 량 (A)	9월 공급량 (B)	수출량 (C)	10월 이후 공급량(A-B-C)
공급량 (천톤)	'01년산	417	125	162	276
	'02년산	409	92	191	288
'02/'01 증감률(%)		-1.9	-26.3	17.8	8.1

주: '02년산 생산량 및 시기별 공급량은 10월 1일 기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3.3. 감귤

○ 하우스온주 상품 5kg당 도매가격은 7월 1만 2천원, 8월 1만 4,200원, 9월 1만 5,600원으로, 지난해보다 7~8월에 12~17% 낮았고 9월에 3% 낮았음.

감귤 도매가격(상품)



주: 7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하우스감귤 5kg을 15kg으로 환산한 가격임. 평년가격은 '96. 5 ~ '02. 4월 가격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3/4분기 하우스감귤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았던 것은,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늘었으며 일본으로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여 국내공급량이 많았기 때문임.

○ 3/4분기 오렌지 수입량은 6,542톤으로 지난해보다 61% 많았고, '98~'01년 동기 평균치보다 6% 많았음. 3/4분기 오렌지 수입량이 지난해보다 많았던 것은, 미국 발렌시아 오렌지 생산량이 5%정도 많아 산기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았고 환율과 관세도 낮았기 때문임.

- 올 겨울부터 내년 봄까지의 오렌지 수입량은 지난해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캘리포니아 네블 오렌지 생산량 증가에 따른 산지가격하락과 추가적인 관세인하(4.9%) 그리고 환율이 지난해보다 동기보다 10% 정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노지온주의 결실면적은 지난해 휴식년을 실시했던 2천여ha가 포함되어 2만 2,100ha 수준. 같은 해결이 해인 재작년에 비해 열매수가 11% 많고 횡경은 1% 작은 것으로 나타남. 일반과원의 단수는 재작년보다 9%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휴식년과원의 단수는 재작년보다 75% 많을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1만 6천톤) 적고, 재작년보다는 13%(6만 6천톤) 많은 58만톤 으로 전망됨.
- 비상품과는 24%(14만톤)정도로 작년과 재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이는 잦은 비와 태풍으로 병해과와 상처과가 많아 예년보다 중결점과가 많이 발생하고, 휴식년과원에 극소과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임.

감귤 생산량 전망

단위: 천ha, 천톤, %

	2000년	2001년	2002년	작년대비	재작년대비
결실면적	227	208	221	63	-27
생산량	518	600	584	-26	128

감귤 비상품과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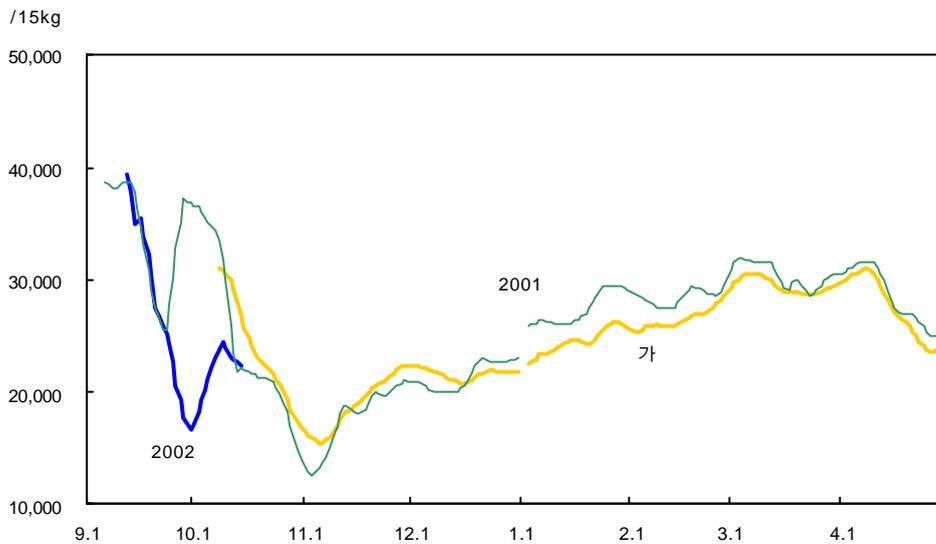
	2000년	2001년	2002년
중결점과	6.9	9.3	9.6
극대(소)과	11.1	2.9	14.4
비상품과	18.0	12.2	24.0

주: 중결점과는 과실 기표면적의 30%이상 흠이 있는 과실, 극대과와 극소과는 10번, 0번과임.

3.4. 단감

○ 지난해보다 출하가 늦었던 조생종 단감의 9월 도매가격은 상품 1kg당 2,600원으로 시작하였으나, 이후 계속 낮아져 9월 평균가격은 1,940원(중품 1,210원)으로 지난해보다 15% 낮았음. 10월 상순 부유 상품 1kg당 가격은 1,170원(중품 7백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낮은 수준임.

단감 도매가격(상품)



주: 9월은 기타단감, 10월 이후는 부유 상품 기준임. 평년가격은 1997.9~2002.5월 가격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단감가격이 낮은 것은 서리피해와 잦은 비로 외관이 좋지 않고, 불완전단감 비율이 높아 떫은맛이 강하기 때문.

○ 단감 성목면적은 지난해보다 2%(320ha) 적은 16,460ha 수준. 성목 단수는 개화기의 서리피해와 집중호우, 태풍의 영향으로 동해와 가뭄피해가 있었던 지난해수준과 같을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3,400톤) 감소한 19만 4천톤 으로 전망됨.

- 품종별 생산량은 부유가 지난해와 비슷하고 조생종 단감은 1~2% 증가하겠으나, 차량은 지난해보다 20% 정도 크게 감소하고 기타품종도 4% 감소할 전망이다.
- 기상조건이 양호해 단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경남지역 생산량은 동해를 크게 입었던 지난해보다는 8% 증가할 것으로 전망임. 발아기와 개화기에 서리피해가 컸던 경북지역과 태풍피해를 입은 제주지역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5% 이상 크게 감소하고, 차량의 해거리와 태풍의 영향으로 피해가 컸던 전남지역 생산량은 17% 감소할 전망이다.
-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올해 단감의 품질은 지난해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특히 서촌조생은 경북지역의 서리피해와 경남지역의 개화기의 잦은 강우로 불완전 단감비율이 높고, 차량은 전남지역의 해거리로 품질이 좋지 않음.

단감 생산량 전망

단위: ha, kg/10a, 천톤

	성목면적	성목단수	생산량
2001년	16,786	1,177	198
2002년	16,463	1,179	194
증감률(%)	-1.9	0.2	-1.7

품종별 단감 생산량의 지난해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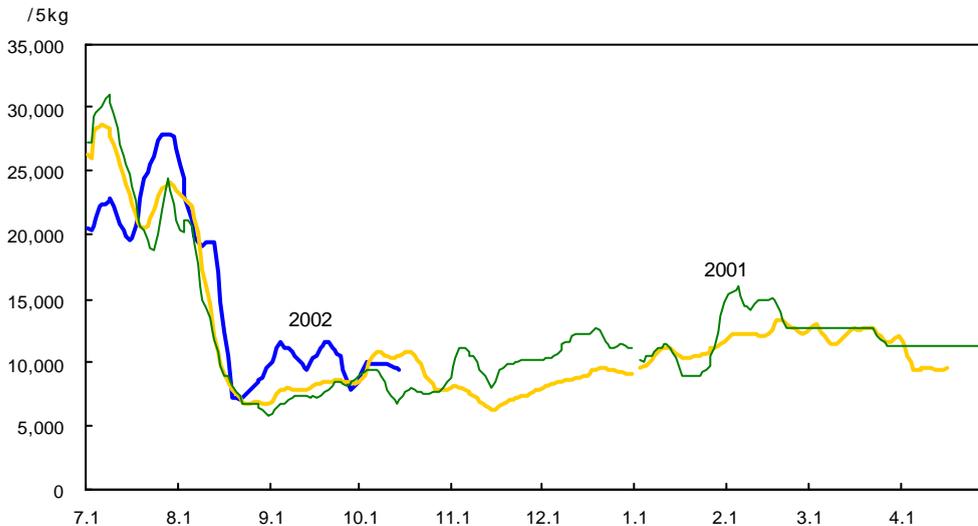
단위: %

	부유	차량	서촌조생	상서조생	기타	전체
성목면적	-2.2	-3.7	-0.3	16.0	5.5	-1.9
성목단수	2.5	-16.9	1.8	-12.6	-8.6	0.2
생산량	0.3	-20.0	1.6	1.4	-3.5	-1.7

3.5. 포도

- 7월 하순이후 포도 가격이 크게 올라 8월에는 캠벨얼리가 지난해보다 23%, 거봉이 80% 높았음. 추석 이후 포도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아져 10월 거봉 가격은 지난해보다 18% 낮음. 반면 캠벨얼리는 가격이 상승하여 지난해보다 15% 높은 수준임.
- 포도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오른 것은, 화진현상과 집중호우 및 태풍에 의한 피해로 노지포도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임. 품질차이로 7~8월에는 거봉의 가격 상승폭이 캠벨얼리보다 컸음. 10월에는 일조시간 부족으로 출하가 늦추어진 거봉의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많아지면서 거봉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아짐.
- 포도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3%(790ha) 감소한 26,010ha로 추정되고, 성목면적은 1%(280ha) 감소한 21,870ha로 추정됨.

포도 도매가격(상품)



주: 일별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평균치임. 평년가격은 '98.5~'01.4월 단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주: 4월~7월 11일까지는 델라웨어 6kg을, 7월 11일~8월 2일까지는 캠벨얼리 5kg을 각각 10kg으로 환산, 8월 3일~10월은 캠벨얼리 10kg, 11~익년 4월은 세단(세레단) 10kg임. 일별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평균치임. 평년가격은 '96.5~'01.4월 가격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개화기 이후 화진에 의한 착과수 감소와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에 의해 포도의 단수가 지난해보다 14% 감소하여 포도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5%(7만톤) 적은 38만톤으로 추정됨. 하우스 포도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8% 늘어난 2만 4천톤으로 추정되고 노지포도는 지난해보다 17% 줄어든 36만톤으로 추정됨.
- 충청지역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3%, 영·호남지역은 17% 적은 것으로 추정되고 경기·강원 지역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됨. 품종별(노지)로는 캠벨얼리가 지난해보다 19%, 거봉이 17%, 새단이 24% 적은 것으로 추정되고 MBA는 지난해보다 1% 많은 것으로 추정됨.
- 포도의 품질이 지난해보다 좋지 못해 생과출하와 저장비율은 지난해보다 낮아진 반면 가공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생과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16%, 저장량은 32% 적은 것으로 추정되며, 가공량은 지난해보다 33% 많은 것으로 추정됨.
- 새단 및 캠벨얼리의 저장량이 지난해보다 적어, 11월 이후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28% 적을 전망.

포도 생산량 전망

	성목면적(ha)	성목단수(kg/10a)	생산량(천톤)
2001	22,146	2048	454
2002	21,866	1,780	384
'02/'01 증감률(%)	-13	-14.3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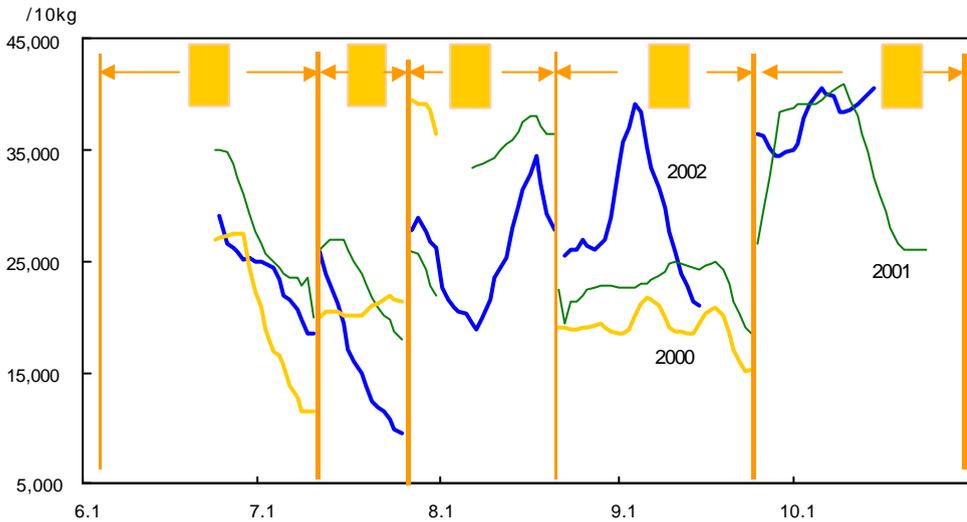
노지포도 품종별 생산량 증감률

	단위: %				
	캠벨	거봉	MBA	새단	기타
면적	-20	-21	45	-10.9	1.7
단수	-17.1	-15.2	-30	-15.2	-6.0
생산량	-18.7	-17.0	1.4	-24.4	-4.4

3.6. 복숭아

- 복숭아 7월 가격은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적었지만 품질이 좋지 않아 유모계(창방)가 지난해보다 10%, 천도계(천홍)가 24% 낮았음. 7월 하순에는 비교적 좋은 품질로 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았지만 8월에는 집중호우로 당도가 떨어져 지난해보다 30% 낮았음.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9월 중순까지 복숭아 가격은 지난해보다 높았음. 만생종 복숭아의 출하시기가 지난해보다 1주일 정도 빨라져, 9월 하순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많아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았다가 10월에는 지난해보다 출하량이 적어지면서 가격이 높아짐.

■ 복숭아 도매가격 (상품)



주: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값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복숭아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8%(1,190ha) 늘어난 15,600ha로, 성목면적은 지난해보다 10%(820ha) 늘어난 8,880ha로 추정됨.
-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에 의한 낙과로 복숭아의 단수가 지난해보다 7% 감소하여 복숭아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 증가하는 것에 그침.
- 지역별 생산량은 충청지역이 지난해보다 18%, 경기·강원지역이 9% 늘고, 영·호남지역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됨.
- 대만으로의 수출 재개로 복숭아의 수출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남. 복숭아 가공품 수입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늘어남.

복숭아 생산량 전망

	성목면적(ha)	성목단수(kg/10a)	생산량(천톤)
2001	8,062	2,062	166
2002	8,880	1,922	171
'02/'01 증감률(%)	10.1	-6.8	26

지역별 복숭아 생산량의 지난해대비 증감률

단위: %

	경기·강원	영남	호남	충청
면적	10.6	8.5	6.0	17.0
단수	-1.1	-7.1	-5.6	1.0
생산량	9.3	0.9	0.0	18.1

4. 과채류⁹⁾

4.1. 수박

- 3/4분기 수박 도매가격은 6kg 상품기준으로 4월 3,840원, 5월 2,950원이었으며, 9월부터 10kg 상자단위가 출하되면서 9월에는 9,620원이었음. 7월 가격이 작년보다 높았던 것은 재배면적이 줄어 출하량이 적었기 때문임. 8월 출하량이 작년보다 적었고, 포도, 복숭아 등 대체과일물량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낮았던 것은 90년대 후반 이후 계속되는 노지수박에 대한 수요감소와 8월에 계속된 강우와 흐린 날이 많아 습해와 생리장해로 품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가 감소된 것으로 분석됨. 9월 출하량이 작년보다 9%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높았던 것은 참외, 복숭아 등 대체과일물량이 적어 수박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4/4분기에 출하될 수박출하예정면적은 작년보다 늘어날 전망. 노지수박가격에 비해 억제작형의 수박가격이 높아 전국적으로 작기를 늦추어 출하하려는 작기변화가 있었고 금년 수박가격이 좋아 토마토, 딸기 등 후작으로 수박재배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임. 4/4분기 수박출하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배 등 저장과일의 출하량이 작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은 작년과 비슷할 전망.
- 2002년 수박의 재배면적은 작년 2만 8,450ha보다 4% 감소한 2만 7,200ha가 될 것으로 추정됨. 하우스수박면적은 작년보다 3% 줄어든 1만 9,900ha로 추정되며, 노지면적은 주산지의 연작피해와 소비감소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작년보다 8% 줄어든 7,300ha가 될 것으로 추정됨.

9)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연중 부연구위원(yjkim@krie.re.kr), 한석호(shohan), 전철현 (ecoecon), 김은주(ejkim) 연구원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수박 재배면적 작년대비 감소율>

단위: %

		단 위	2001년	2002년	감소율
재배면적	하우스	ha	20,500	19,900	-3.0
	노 지	ha	7,950	7,300	-8.0
전 체		ha	28,450	27,200	-4.4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3일 추정치.

- 내년 하우스 수박 재배의향면적은 금년 수박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금년보다 1% 늘어날 전망.
- 축성재배 주산지인 경남지역은 중부지역과 출하경합을 피하기 위해 10~12월 면적은 늘고, 1월 정식의향면적은 줄어들 것으로 조사됨.
- 반축성 재배면적은 2~3월이 늘고, 4월은 줄어들 것으로 조사됨. 4월에 정식된 수박은 7월 장마기에 출하가 되어 가격이 좋지 않고, 품질관리에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4월 정식이 2~3월로 앞당겨지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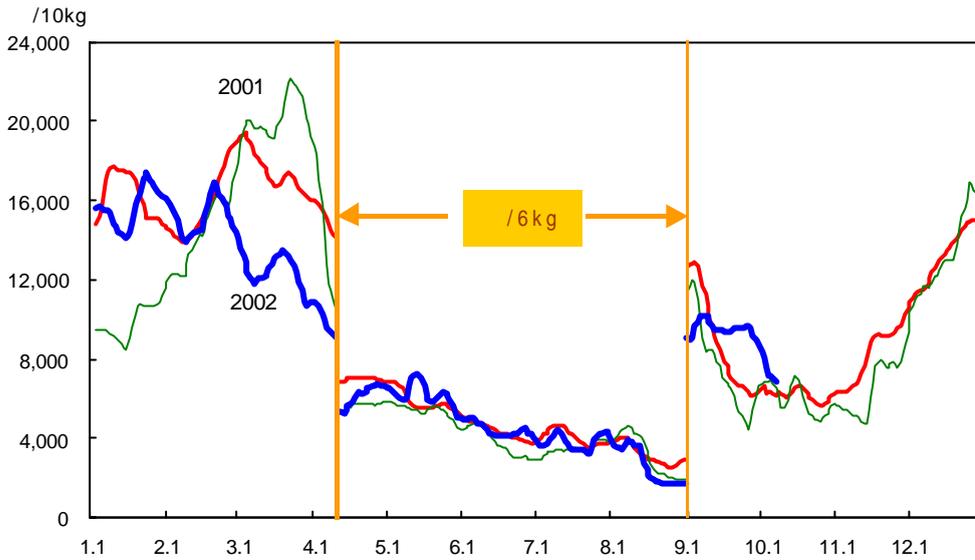
<하우스수박 정식의향면적 작년대비 증감률>

단위: %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체
90	11.1	56	-22	38	0.5	-42	14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2일 표본농가 조사치

수박 도매가격 (상품)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7~2001년의 일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4월 11일~8월 31일까지는 상품 6kg개당 수치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4.2. 참외

○ 3/4분기 참외 도매가격은 15kg 상품기준으로 7월 1만 4,960원, 8월 1만 9,700원, 9월 1만 6,400원이었음. 7월 가격이 작년보다 낮았던 것은 전국적으로 출하면적이 다소 줄었지만 5월 하순 이후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았고 일조시간이 많아 단수가 증가하여 출하량이 많았기 때문임. 8~9월 가격이 작년보다 높았던 것은 전국적으로 출하면적이 줄어 출하량이 작년보다 줄었기 때문임. 8~9월 출하량이 작년보다 50% 이상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26% 증가에 그쳐 작년보다 크게 높지 않았던 것은 8월에 계속된 강우와 흐린 날이 많아 습해와 생리장해로 품질이 좋지 않아 소비가 감소된 것으로 분석됨.

○ 4/4분기 출하예정면적도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출하량감

소로 가격은 작년보다 높아질 전망.

- 금년 참외 재배면적은 작년 8,655ha보다 6% 감소한 8,140ha가 될 것으로 전망됨. 주산지인 경북지역이 감소하는 것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연작피해로 면적이 작년보다 줄어든 데다가 8월 집중호우와 태풍피해로 유실 및 침수된 면적이 있었기 때문임. 논산을 중심으로 한 충남지역은 작년보다 87%, 정읍·익산을 중심으로 한 전북지역은 24% 줄어든 것으로 조사됨. 소비자에게 충남·전북지역 참외는 성주를 중심으로 한 경북지역 참외에 비해 가격과 품질경쟁력이 낮게 인식되어 이 지역의 참외는 수박 등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였음.
- 2003년 참외재배면적은 금년보다 줄어든 전망. 축성재배를 주도하는 경남지역은 정식시기를 앞당겨 10~11월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늘지만, 12월 이후 정식면적은 수박 등 대체작목으로 전환하여 다소 줄어든 전망. 반축성재배면적도 충남·전북지역의 정식의향면적이 줄고 주산지인 경북지역도 금년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됨.

<참외 재배면적 작년대비 감소율>

단위: %

	2001년	2002년	감소율
재배면적(ha)	8,655	8,140	-6.0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2일 표본농가 조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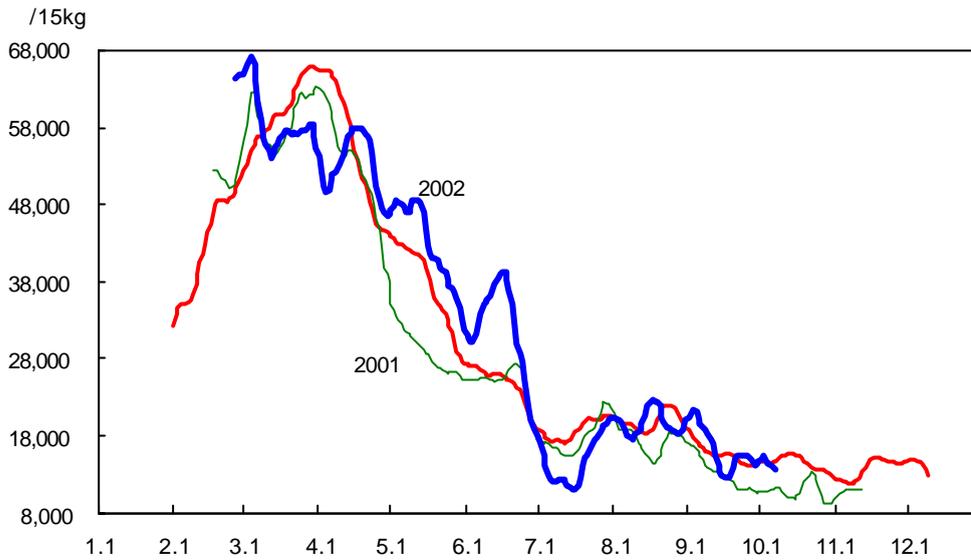
<참외 정식의향면적 작년대비 증감률>

단위: %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체
53	6.0	-1.0	-0.5	-4.6	-1.2	0.0	-0.9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2일 표본농가 조사치

참외 도매가격 (상품)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7~2001년의 일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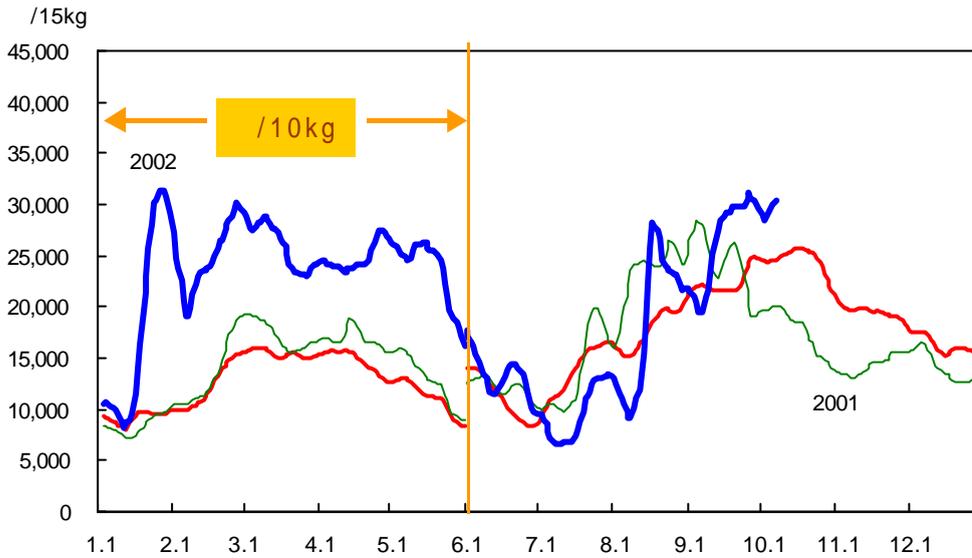
4.3. 토마토(일반)

- 토마토 3/4분기 도매가격은 15kg 상품기준으로 7월 9,620원, 8월 1만 8,600원, 9월 2만 6,630원으로, 7~8월은 작년보다 30%, 20% 낮았고, 9월은 9% 높았음. 7월 토마토 가격이 낮았던 이유는 반입량이 작년보다 33% 늘었고, 복숭아, 자두 등의 햇과일 가격이 낮아 토마토 수요가 감소하였고, 8월은 주 출하지역인 홍천, 화천, 정선, 양구의 토마토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출하량이 작년보다 45% 많았고, 8월 계속된 강우로 습해가 있어 품질 또한 나빴기 때문임. 9월은 반입량이 작년보다 5% 많았으나, 소비대체 과일 물량이 적어 토마토 소비가 많았기 때문임.
- 10월 상순을 제외한 중·하순의 출하예상량이 많고 품질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대체과일 물량이 적어 10월 도매가

격은 작년 상품 15kg당 1만 7,410보다 높은 2만 3,000원, 11월은 작년 상품 15kg당 1만 4,310원보다 높을 전망.

- 수확시기인 금년 1월 가격이 평년보다 낮았지만 8월 태풍으로 인한 정식시기의 지연과 2월 이후의 토마토 가격이 높아 10월 정식 의향면적은 3~6%, 11월은 1%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됨.

토마토 도매가격 (상품)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7~2001년의 일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1~5월 가격은 10kg 수치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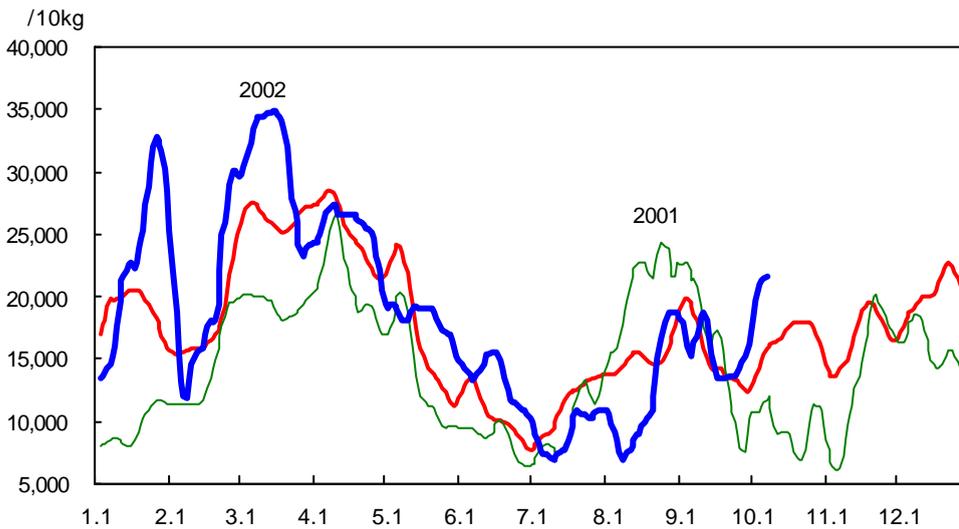
4.4 토마토(방울)

- 방울토마토 3/4분기 도매가격은 10kg 상품기준으로 7월 9,170원, 8월 1만 1,930원, 9월 1만 5,520원으로 7월은 작년보다 6%, 8월 42% 낮았고, 9월은 작년과 비슷하였음. 7월 방울토마토 가격이 낮았던 것은 출하량이 작년보다 16% 많았고, 소비대체품목인 토마토와 햇과일 가격이 낮아 소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이고, 8월은 출하량이 작년보다 64% 많았으며, 9월은

출하량이 작년보다 4% 적었으나 국지적 집중호우로 습해가 있어 품질이 좋지 않아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 10~11월 출하예상량이 작년보다 적어 10월 방울토마토 가격은 작년 상품 10kg당 9,780원보다 높고 평년 1만 7,120원과 비슷할 전망이고, 11월도 작년 상품 10kg당 1만 3,470원보다 높고 평년 1만 6,470원과 비슷할 전망.
- 10월 정식의향면적은 수확시기인 올해 1~2월의 가격이 좋아 9~15%, 11월은 2%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특히, 10월은 태풍 피해로 인한 정식시기의 지연과 수확시기의 가격이 좋아 예상보다 더 많은 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방울토마토 도매가격 (상품)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7~2001년의 일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4.5. 딸기

- 내년산 딸기 재배의향면적은 금년보다 2% 증가한 8,282ha로 조사되었음. 이는 다른 시설작물보다 농가소득이 높기 때문임. 그러나 일부지역에서는 노동력 부족과 난방비 문제로 재배면적이 감소하였음.
- 태풍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하여 주 출하기를 피해 정식시기를 앞당겨 출하시기를 조정하려는 농가들이 많았음.
- 그러나 태풍 '루사' 이후에는 영·호남 지역에서 정식시기가 20일 이상 지연되어 8월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1~6% 감소하고, 9월 이후에는 2~10% 증가하여 내년 2월 이후 출하량이 많을 것으로 추정됨.
- 11월 상·중순 딸기 출하예정면적은 작년보다 3~5% 줄고, 하순에는 6%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됨.

<딸기 정식의향면적 작년대비 증감률>

단위: ha

	8월			9월			10월			11월	합계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2003년산	19	379	1,415	1,825	1,947	1,539	598	280	257	23	8,282
2002년산	20	395	1,505	1,787	1,876	1,462	560	260	236	21	8,123
증감률 (%)	-1.2	-4.0	-6.0	2.1	3.8	5.3	6.8	7.5	8.8	10.0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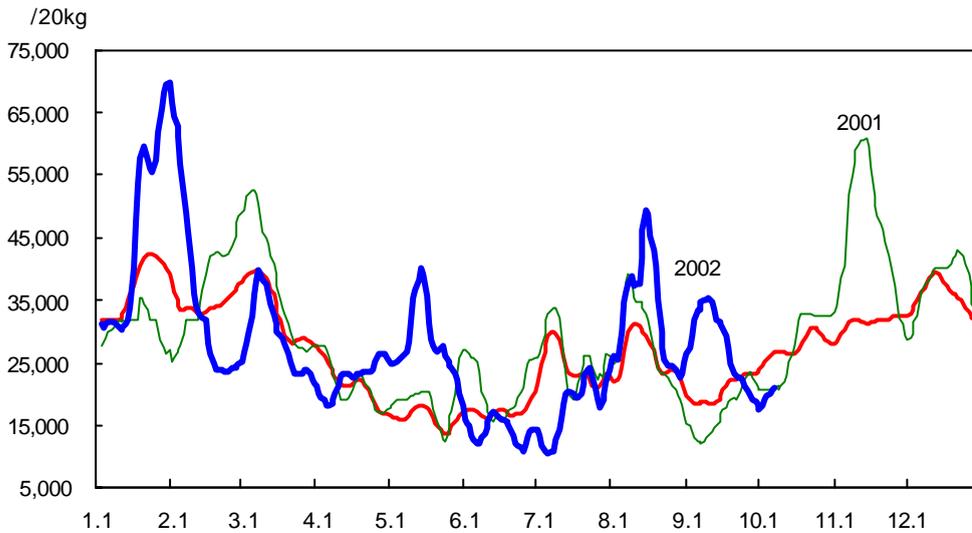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2일 표본농가 조사치

- 11월 상·중순의 딸기 출하예정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8월 국지적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축성재배지역인 경남의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겨 정식시기가 20일 이상 지연되었기 때문임. 그러나 하순에는 비닐하우스 시설면적의 복구로 6%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
- 11월에 출하될 딸기 출하예정면적이 적고, 품질이 전반적으로 좋은 것으로 보여 11월 도매가격은 작년 상품 8kg당 1만 4,330원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46. 오이(쪼 쉰)

- 3/4분기 쪼청오이 도매가격은 20kg 상품기준으로 7월 1만 7,800원, 8월 3만 2,500원, 9월 2만 8,400원이었음. 7월 상순 도매가격이 작년보다 63% 낮았던 것은 기온이 상승하면서 출하량이 많았기 때문임. 7월 상순 이후 태풍이 지나가고 흐린 날이 계속되면서 출하량이 적어 도매가격은 7월 중순부터 회복세를 보임. 8월 도매가격이 작년보다 17% 높았던 것은 출하면적은 늘었으나, 계속된 강우와 흐린 날씨로 일조시간이 작년보다 적어 생육이 부진하여 단수가 낮았고,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해 출하면적의 유실 및 침수 등으로 출하량이 29% 적었기 때문임. 9월 상·중순 도매가격이 작년보다 높았던 것은 8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출하면적이 유실 및 침수되었기 때문임. 상·중순 도매가격이 고가로 형성됨에 따라 추석 연휴동안 대기물량이 집중 출하되어 하순 출하량이 작년보다 30% 많았고, 가정용 소비가 줄어 하순 도매가격은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됨.
- 10월 출하예상량은 작년보다 5~8% 적어 상품 20kg당 도매가격은 작년 2만 8,600원과 평년 2만 8,200원보다 약간 높을 전망. 11월 출하예상량은 작년보다 1~2% 많아 상품 20kg당 도매가격은 작년 4만 6,000원보다 낮을 전망.

오이(취청) 도매가격 (상품)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7~2001년의 일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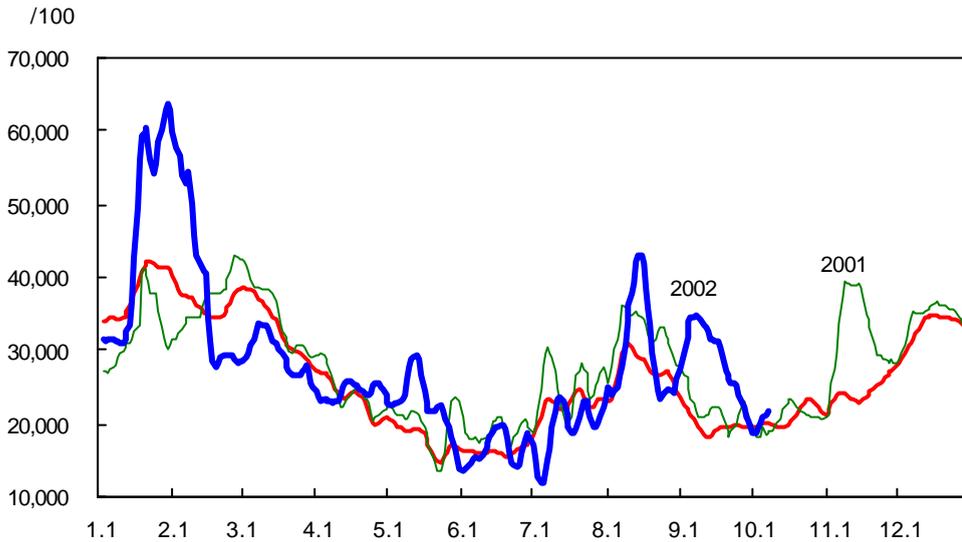
- 취청 10월 정식의향면적은 작년보다 2~3%, 11월에는 3~7% 늘어날 전망. 10~11월 정식의향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취청이 출하되는 작년 12월과 금년 1월 가격이 전년과 평년보다 높았기 때문임.

4.7. 오이(백다다기)

- 백다다기 오이의 3/4분기 도매가격은 15kg 상품기준으로 7월 1만 9,300원, 100개 상품기준으로 8월 2만 9,800원, 9월 2만 9,700원이었음. 도매가격은 7월 가격이 작년보다 24% 낮았고, 8월 가격이 7% 낮았으며, 9월 가격이 37% 높았음. 7월 상순 도매가격이 작년보다 낮았던 것은 출하면적이 늘었고, 단수도 높아 출하량이 28% 증가하였기 때문임. 7월 중순부터는 출하량이 감소하여 작년보다는 가격이 낮았지만 평년수준으로 회복됨. 8월 상순 도매가격이 작년보다 낮았던 것은 출하면적이 늘었고, 단수도 높아 출하량이 22% 증가하였기 때문임. 8월 중순에는 출하면적은 늘었으나 흐린 날씨로 단수가 낮아져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으나, 하순에는 출하량이 작년보다 26% 증가하면서 가격은 다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됨. 9월 도매가격이 작년보다 높았던 것은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피해로 침수되거나 하우스가 파손된 면적이 있었고, 8월에 흐린 날이 많아 생리장애로 단수도 낮아 출하량이 26% 감소하였기 때문임.

오이(백다다기) 도매가격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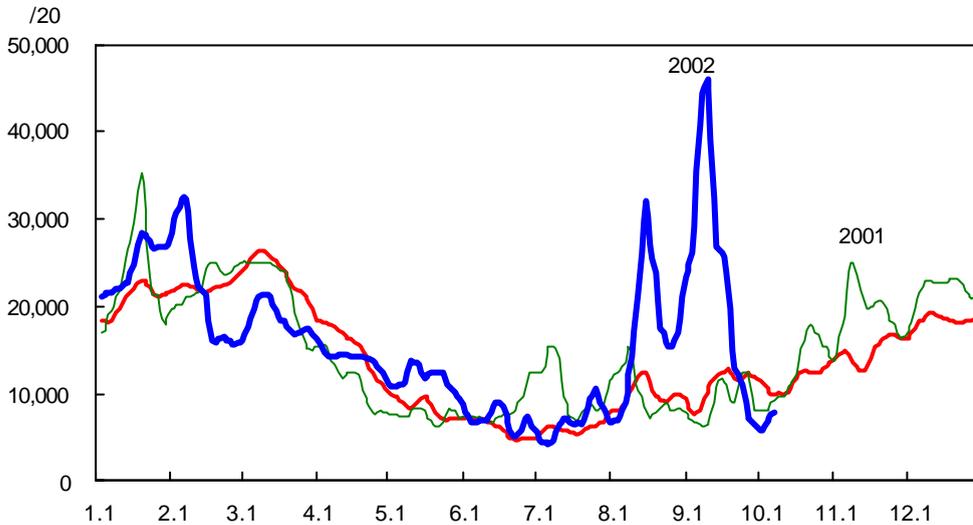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7~2001년의 일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10월에 출하될 백다다기 물량은 작년보다 1~6% 적을 것으로 보여, 상품 100개당 도매가격은 작년 2만 980원과 평년 2만 1,300원보다 높을 전망.
- 11월에 출하될 백다다기 물량은 출하예정면적이 늘고 단수도 높아 작년보다 2~4% 많을 것으로 보여, 100개당 도매가격은 평년 2만 4,400원보다 낮을 전망.
- 백다다기 10월 정식의향면적은 주 출하기인 작년 12월과 금년 1월 가격이 전년과 평년보다 높아 작년보다 2~5%, 11월에는 1~4% 늘어날 전망.

48. 호박(애호박)

호박(애호박) 도매가격 (상품)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7~2001년의 일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애호박의 3/4분기 도매가격은 8kg 상품기준으로 7월 6,700원, 20개 상품 기준으로 8월 1만 7,600원, 9월 2만 4,960원이었음. 도매가격은 7월이 작년보다 34% 낮았고, 8월 72% 높았으며, 9월에는 176% 높았음. 7월 상순 도매가격이 작년보다 낮았던 것은 출하량이 66% 증가하였기 때문임. 7월 중순부터 회복세를 보인 것은 출하량이 작년보다 23% 적었기 때문임. 8월 상순 도매가격이 작년보다 낮았던 것은 출하량이 작년보다 12% 증가하였기 때문임. 8월 중·하순 도매가격이 높았던 것은 8월 출하면적이 줄어들던데다가 집중호우로 하우스가 침수되어 출하되지 못한 면적이 있었고, 비와 흐린 날씨로 일조시간이 작년보다 46% 적어 착과 부진으로 단수가 낮아져 출하량이 39% 감소하였기 때문임. 9월 상·중순 도매가격이 작년보다 높았던 것은 8월 집중 호우와 태풍으로 침수되어 출하되지 못한 면적이 있었고, 바람피해 등으로 착화시기에 피해를 입어 단수가 낮아 출하량이 작년보다 48% 감소하였기 때문임. 9월 하순에는 추석 이후 수요 부진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내림세를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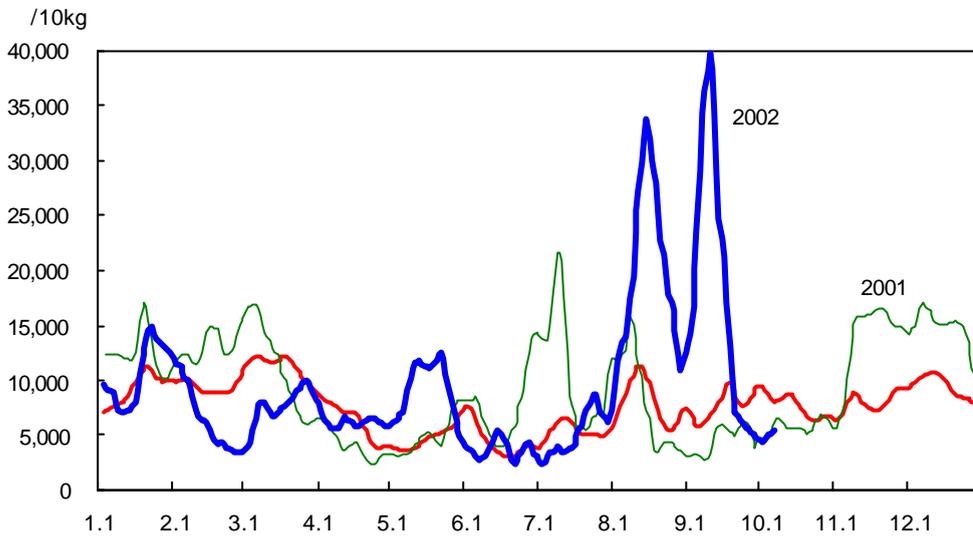
- 10월에 출하될 애호박 물량은 출하예정면적이 늘어 작년보다 4~8% 많을 것으로 보여, 상품 20개당 도매가격은 평년 1만 1,700원보다 낮을 전망. 11월에 출하될 물량이 작년보다 7~10% 많을 것으로 보여, 상품 20개당 도매가격은 평년 1만 4,700원보다 낮을 전망.
- 애호박 10월 정식의향면적은 작년보다 1~12%, 11월에는 3~8% 늘어날 전망. 10~11월 정식의향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애호박이 출하되는 작년 12월과 금년 1월 가격이 전년과 평년보다 높았기 때문임.

4.9. 호박(쥬키니)

- 쥬키니의 3/4분기 도매가격은 10kg 상품기준으로 7월 5,100원, 8월 1만 9,600원, 9월 1만 9,500원이었음. 7월 가격이 작년보다 55% 낮았고, 8월이 140% 높았으며, 9월은 338% 높았음. 7월 도매가격이 작년보다 낮았던 것은 주 출하지인 경기·강원의 출하면적이 늘었고 단수도 높아 출하량이 67% 증가하였기 때문임. 7월 중순부터 출하량이 감소하여 작년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임. 8월 도매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것은 주 출하지인 강원 형성과 경북 봉화가 8월 집중호우로 침수된 면적이 일부 있었고, 비와 흐린 날씨로 생육이 부진하여 단수가 낮아 출하량이 48% 감소하였기 때문임. 9월 도매가격이 크게 높았던 것은 주 출하지의 8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침수된 면적이 있었고, 생육이 부진하여 단수가 낮아 출하량이 49% 감소하였기 때문임.
- 10월에 출하될 쥬키니 물량은 출하예정면적도 줄고 단수도 낮아 작년보다 4~14% 적어, 상품 10kg당 도매가격은 평년 7,600원보다는 높을 전망. 11월에 출하될 물량이 작년보다 4~6% 적어, 상품 10kg당 도매가격은 작년 1만 3,800원보다 높을 전망.
- 10월 쥬키니 정식의향면적은 작년보다 3% 늘고, 11월 상순에는 3% 늘고, 중·하순에는 10~14% 줄어들 전망. 쥬키니 11월 중순 이후 정식의향면적

이 작년보다 줄어드는 것을 주 출하기인 금년 1~3월가격이 작년과 평년보다 19~27% 낮았기 때문임.

호박(쥬키니) 도매가격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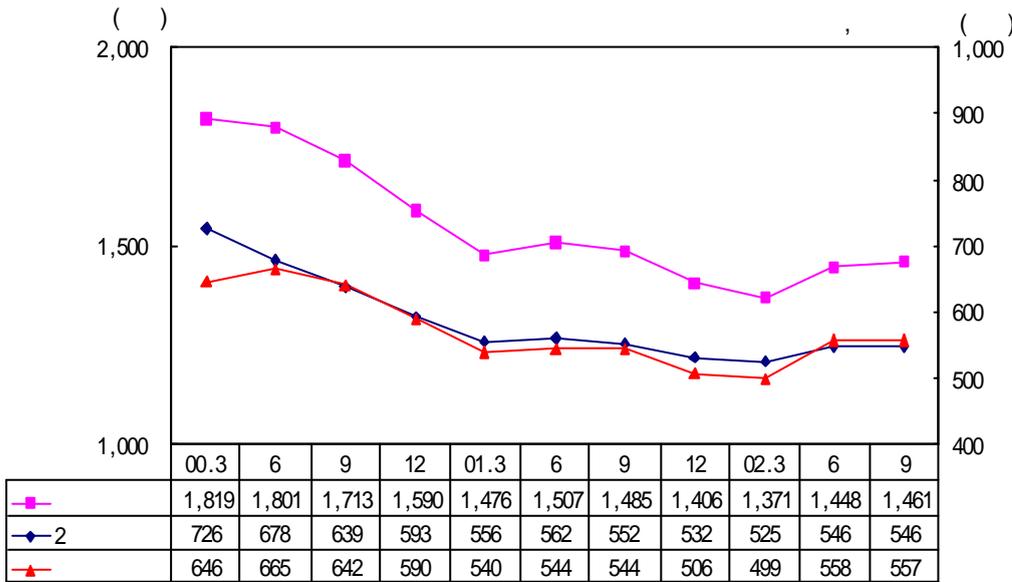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7~2001년의 일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5. 축산10)

5.1. 한육우

- 2002년 9월 한육우 총 사육두수는 146만 1천두로 3개월 전보다 1만 3천두(0.9%) 증가하였고, 전년동기에 비해 2만 4천두(△1.6%)가 감소하였음.
- 2002년 9월 한육우 2세이상 암소두수는 54만 6천두로 3개월전과 동일하며, 전년동기에 비해 6천두(△1.1%)가 감소하였음.
- 2002년 9월 한육우 1세미만 송아지두수는 55만 7천두로 3개월 전보다 1천두(△0.2%) 감소, 전년동기에 비해 1만 3천두(2.4%)가 증가하였음.

한육우 사육두수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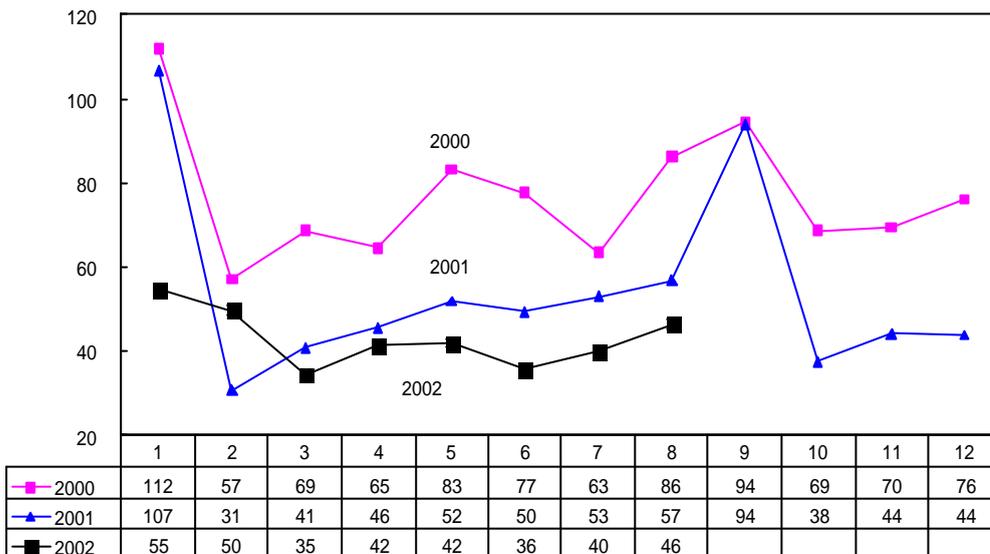


자료: 농림부, 가축통계

10)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정민국 부연구원(mkjeong@krei.re.kr), 전상곤 연구원(sangjun@krei.re.kr), 성동현 연구원(dhsung@krei.re.kr), 이형우 연구원(ihwd906@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 사육가구수는 9월에 21만 8천호로 3개월 전보다 6천호($\Delta 2.7\%$) 감소하였고, 전년 동기보다는 2만 9천호($\Delta 11.7\%$) 감소하였음.
- 9월 호당사육마리수는 3개월 전보다 0.2두 증가한 6.7두임.
- 사육두수 감소에 따른 출하두수 감소로 6~8월 한육우 도축두수는 12만 2천두로 전년 동기간에 비해 23.5%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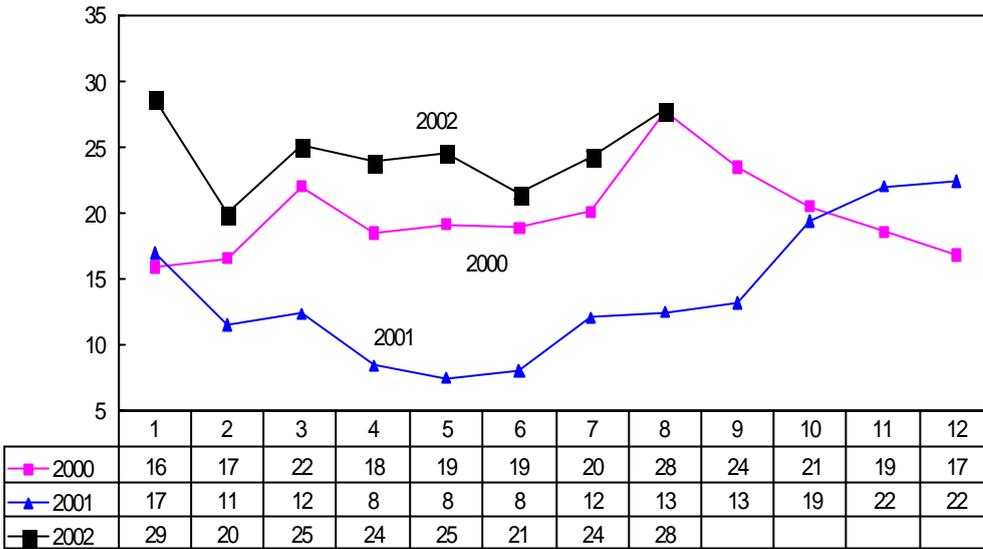
한육우 월별 도축현황



자료: 농림부.

- 국내 한우 산지가격 강세로 6~8월 쇠고기 수입은 7만 4천톤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해 126% 증가함.
- 한육우 산지가격 변동
 - 한우수소(500kg 기준) 산지가격은 추석을 앞두고 한우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6월 330만원대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9월에 400만원대까지 상승함.
 - 산지 송아지 두수 부족(3개월 전에 비해 0.2% 감소)으로 한우 수송 아지는 6월 210만원대에서 9월 230만원대로 완만하게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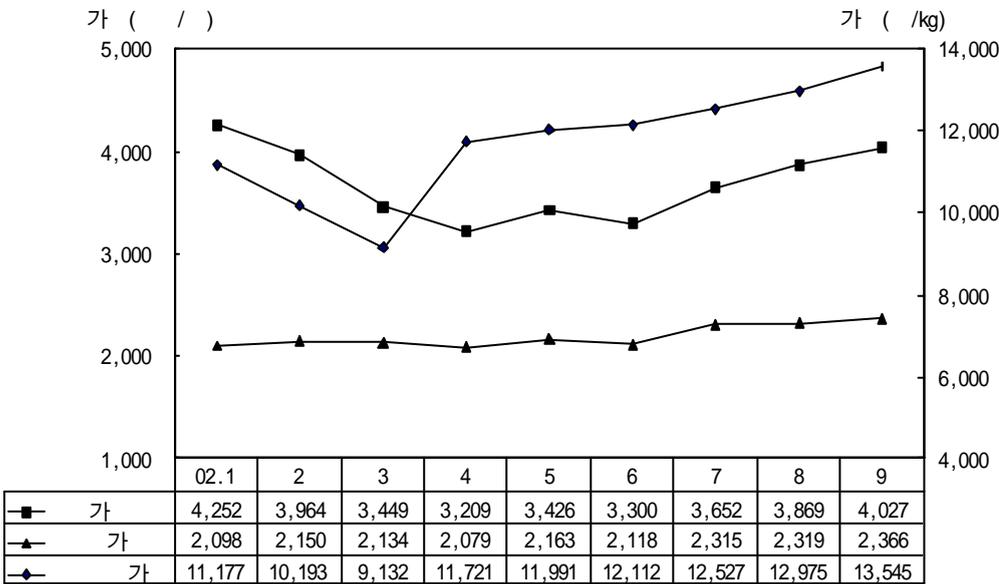
쇠고기 월별 수입현황(검역기준)



자료: 육류수출입협회.

- 한우고기에 대한 수요증가로 한우지육 평균도매가격은 6월 12,100원대에서 9월 13,500원대로 상승함.

한육우 산지가격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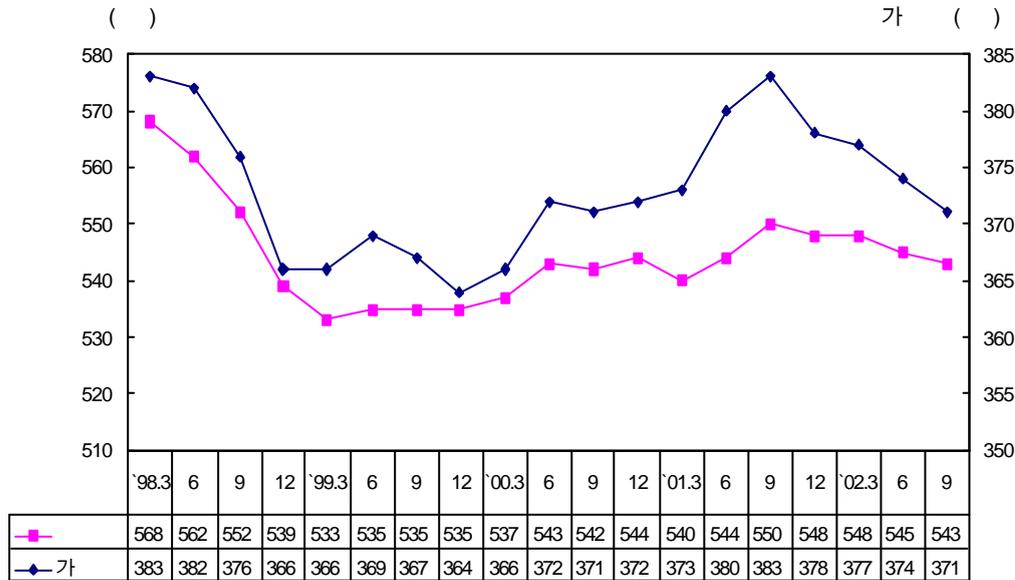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

5.2 젓 소

- 4월 22일~6월 22일 실시한 착유우 도태정책으로 9월 사육두수는 54만 3천두로 3개월 전보다 2천두($\Delta 0.4\%$) 감소하였고, 전년동기보다 7천두($\Delta 1.3\%$) 감소하였음. 가임암소 두수는 37만 1천두로 3개월 전보다 3천두($\Delta 0.8\%$) 감소하였으며, 전년동기보다는 1만 2천두($\Delta 3.1\%$) 감소하였음.
- 2002년 6월 젓소 사육가구수는 1만 2천호로 3개월 전보다 100호($\Delta 0.8\%$), 전년동기보다 1,100호($\Delta 8.4\%$) 감소하였음. 50두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수는 감소하였으나, 50두 이상 중·대규모 사육농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 사육두수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사육가구수가 감소하여 호당 사육마리수는 45.2두로 전년동기 42두보다 7.6% 증가하였음.

젓소 사육두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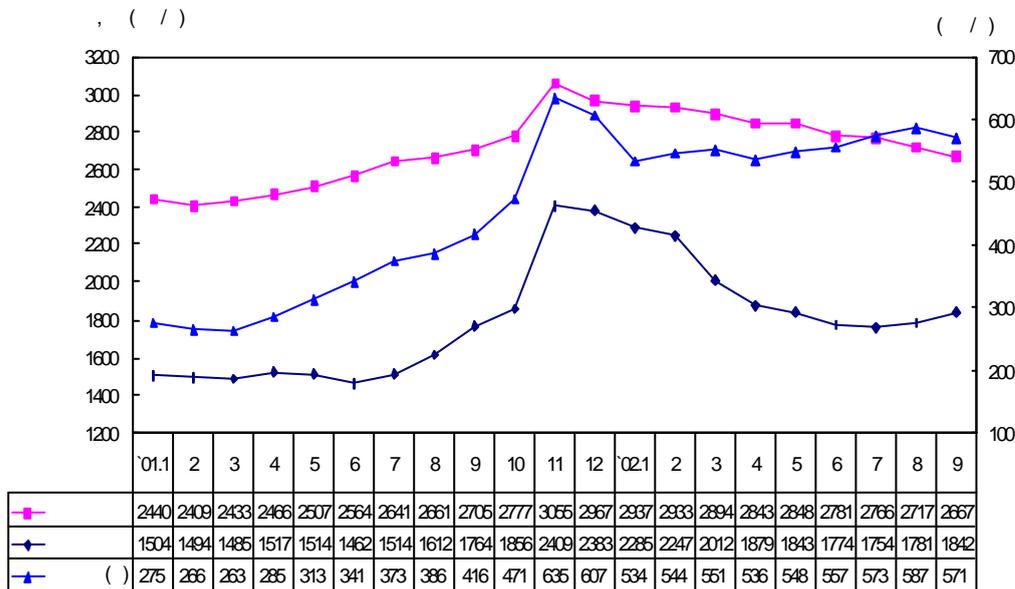


자료: 농림부, 가축통계.

○ 젓소 산지가격변동

- 초유펀기(암송아지): 사육의향은 높은데 반해 송아지 공급부족으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던 초유펀기(암) 가격은 2002년 3월부터 송아지 생산이 증가하면서 하락하기 시작하였음. 9월 초유펀기(암) 가격은 전월보다 3% 하락한 57만 1천 원임.
- 초임만삭우: 2001년 5월 이후 급격히 상승한 초임만삭우 산지가격은 2002년 들어 원유재고량 증가에 따른 원유수급불안정으로 6월부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였음. 2002년 9월 초임만삭우 산지가격은 266만 7천 원으로 전월대비 2%, 전년동월대비 1.4% 하락하였음.
- 젓소수소: 한우 도축물량 감소로 젓소수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함. 2002년 7~9월 평균가격은 전년동기보다 10% 상승하였으며, 추석을 앞두고 쇠고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젓소수소 산지가격은 전월보다 3.4% 상승한 184만원임.

젓소 산지가격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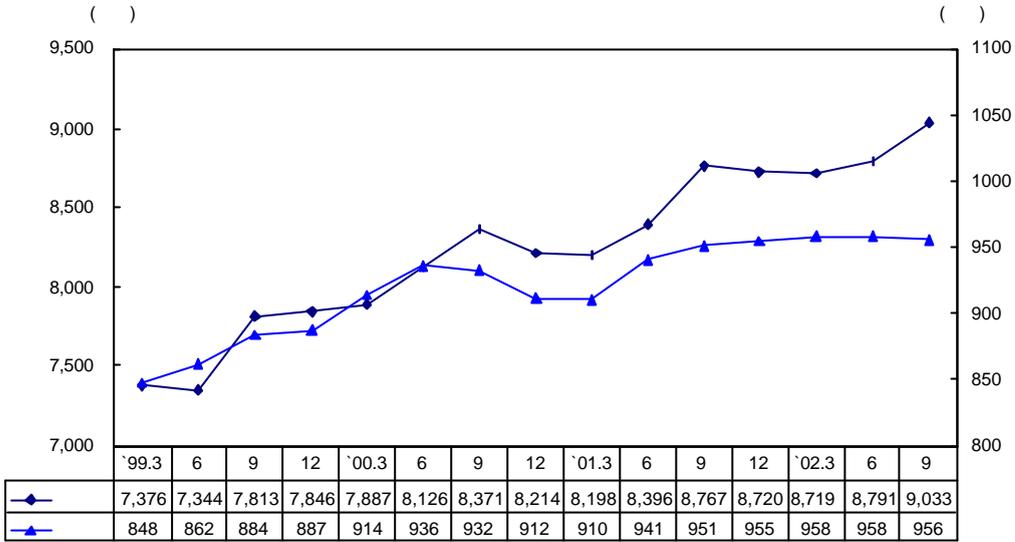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

5.3. 돼 지

- 2002년 9월 돼지 총 사육두수는 903만 3천두로 3개월 전보다 24만 2천두 (2.8%) 증가하였고, 전년동기보다 26만 6천두(3.0%) 증가하였음.
- 2001년 3월 이후 산지가격 강제로 사육의향이 높아지면서 2001년 6월 모돈수가 크게 증가하였음. 그러나 2002년 5월 구제역 발생 등 질병 관리의 어려움으로 현재규모를 유지하려는 의향이 높아 9월 모돈수는 95만 6천두로 3개월 전보다 2천두($\Delta 0.2\%$) 감소하였으나, 전년동기보다 5천두(0.5%) 증가하였음.
- 9월 돼지 사육가구수는 1만 6,930호로 3개월 전보다 500호($\Delta 2.6\%$) 감소하였고, 전년동기보다는 3,200호($\Delta 15.9\%$) 감소하였음.
- 1,000두 미만 사육가구수는 1만 4천호로 전년동기보다 19.5% 감소하였고, 1,000두 이상 사육가구수는 2,800호로 전년동기보다 7% 증가하였음. 사육가구수는 감소하고 사육마리수는 증가하여 호당사육마리수는 533.7두로 전년동기보다 22.6% 증가하였음.
- 돼지 산지가격변동
 - 성돈(100kg) : 이동제한지역의 해제와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출하두수 증가로 7월부터 성돈 산지가격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였음. 9월 성돈 산지가격은 13만 9원으로 전월보다 11.4% 하락하였고, 전년동월보다 19% 하락하였음.
 - 자돈: 올해초 성돈 산지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사육의향이 높아져 자돈 산지가격도 상승했으나, 7월부터 하락한 성돈 산지가격의 영향으로 9월 산지가격은 전년동월보다 10% 하락한 5만 1천 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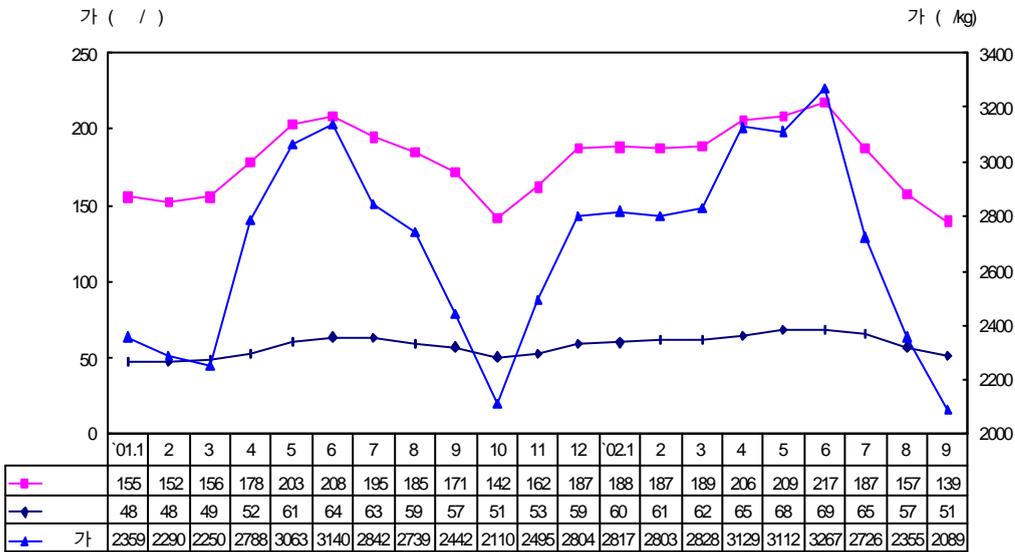
돼지 사육마리수 변동



자료: 농림부, 가축통계.

- 평균경락가격(비육돈): 성돈 산지가격이 하락하면서 비육돈 평균경락가격도 크게 하락하여, 2002년 9월 평균경락가격은 전년동월보다 11.3% 하락한 kg당 2,089원에서 형성됨.

돼지 산지가격 및 도매가격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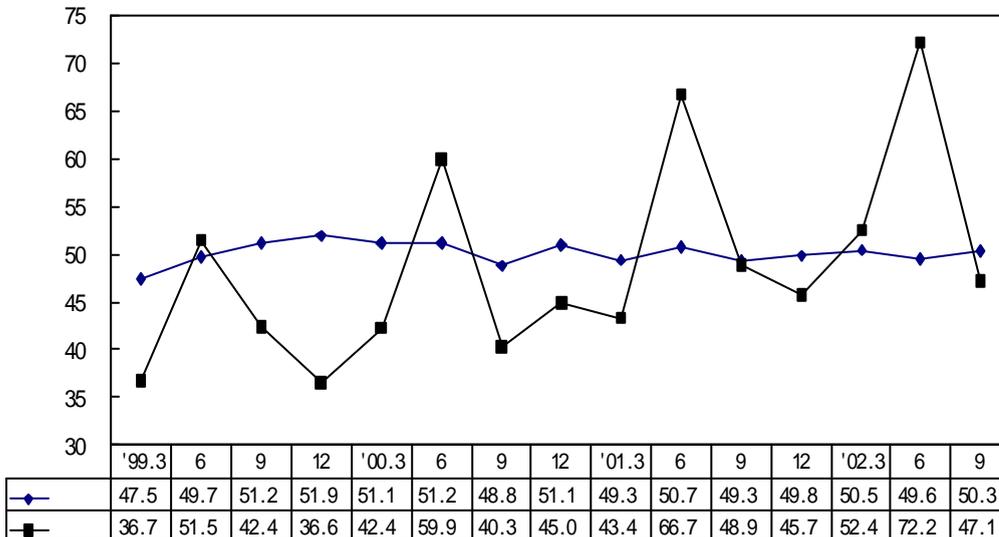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

5.4 닭

- 산지계란가격의 상승으로 신규입식이 증가하고 노계도태가 감소함에 따라 2002년 9월 산란계 사육마리수가 지난 6월보다 다소 증가함.
 - 2002년 9월 산란계 사육수수는 5,030만수로 3개월 전보다 71만수(1.4%) 증가, 전년동기보다 96만수(2.0%) 증가하였음. 2002년 9월 산란계 사육 가구수는 2,376호로 3개월 전보다 2.3%, 전년동기보다 4.0% 감소하였음.
- 육계 산지가격이 생산비 이하에서 형성됨에 따라 농가들의 입식이 줄어 2002년 9월 육계 사육마리수가 지난 6월보다 크게 감소함.
 - 2002년 9월 육계 사육수수는 4,712만수로 3개월 전보다 2,508만수(34.7%) 감소, 전년동기보다는 176만수(3.6%) 감소하였음. 2002년 9월 육계 사육 가구수는 2,311호로 3개월 전보다 26.1%, 전년동기보다는 2.0% 감소하였음.

산란계 및 육계 사육수수 변동

(단위: 만수)



자료: 농림부, 가축통계

○ 계란의 산지가격 변동

- 2002년 2/4분기 계란 공급량(산란용 배합사료 생산량으로 추정)은 전년 동기간과 비슷하나, 소비부진으로 산지가격은 전년동기보다 하락세를 보였음. 3/4분기에는 계란 공급량이 전년 동기간보다 증가하여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간대비 13.7% 하락한 745원이었음.

○ 육계의 산지가격 변동

- 2002년 2/4분기 육계 산지가격은 국제행사 등의 소비증가요인이 존재하였으나 공급물량이 전년 동기간보다 크게 증가하여 전년 동기간보다 8.3% 하락한 1,290원이었음. 3/4분기 육계 산지가격 또한 공급물량이 전년 동기간보다 현저히 증가하여 전년 동기간보다 36.1% 하락한 842원이었음.

○ 종계 병아리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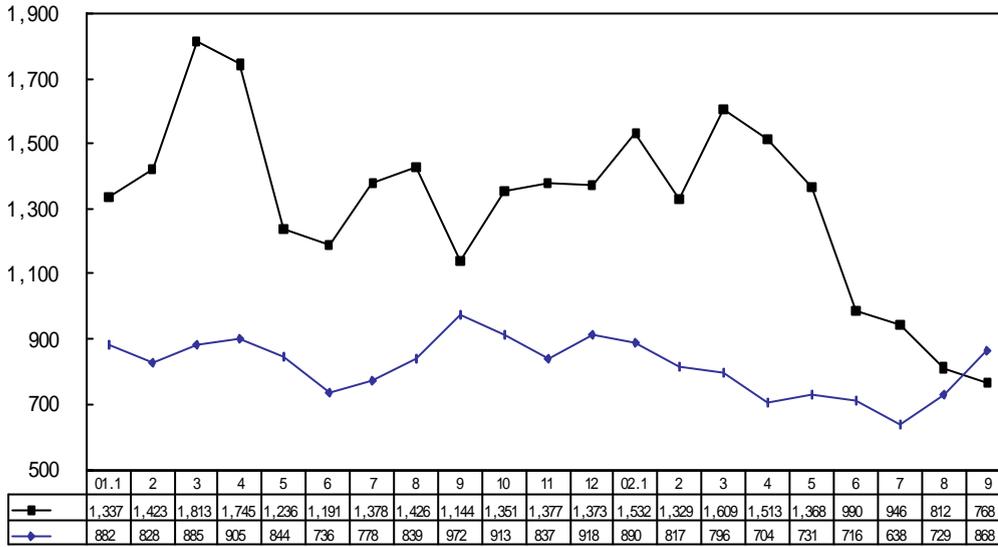
- 2002년 상반기에 입식된 산란용 종계병아리수는 26만 5천수로 전년 동기간보다 1.9% 증가하였음. 2002년 3/4분기에 입식된 산란용 종계병아리수는 12만수로 2001년 3/4분기보다 34.7% 감소하였음.
- 2002년 상반기에 입식된 육용 종계병아리수는 222만 9천수로 전년 동기간보다 18.0% 증가하였음. 2002년 3/4분기에 입식된 육용 종계병아리수는 156만수로 2001년 3/4분기보다 33.1% 증가하였음.

○ 닭고기 수입

- 2002년 상반기 닭고기 총수입량은 5만 4천 톤으로 2001년 상반기보다 22.8% 증가하였음.

양계산물의 산지가격 변동

가 (/ 10 , / kg)



주 : 계란 산지가격은 특란기준임.
 자료: 농협, 축산물 가격정보.

- 2002년 7~8월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간대비 19.8% 증가한 16,789톤이 있음. 2002년 1~8월까지의 평균 닭고기 수입량은 2001년 평균수입량(7,072톤)보다 25.6% 증가한 8,881톤이었음.

2002년 3/4분기 농업관련 주요 보도 동향¹⁾

1. 보도 개황

- 3분기 지역언론들이 다룬 농업관련 보도 동향은, 7월 중순 중국산 마늘 수입자유화 합의 파문과 9월초 태풍 '루사'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복구대책이 핵심 이슈로 다뤄졌고, 추수기가 다가오면서 각지역 RPC의 창고 부족과 적자경영에 따른 수매차질을 우려하는 여론도 관심있게 취급되었음.
- 7.16일 중국산 마늘수입 자유화 합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언론에는 이에 대한 주산지 농민들의 반응과 국내 마늘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연일 관심있게 보도했고, 재고쌀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추수기인 10월 이전에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하는 논조의 보도가 다수 있었음.
- 이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심은 커지고 있는데 반해 낮은 보조금과 유통시스템 미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었고, 경기지역 구제역 피해농가의 보상금 재산정 요구, 분유재고 증가에 따른 젖소도태의 성과여부 논란, 과채류의 병해와 가격하락, 폐농자재 수거대책 촉구 등이 주요기사로 취급되었음.
- 8월초부터 중순까지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농작물 침수 피해 소식이 잇따른 가운데, 특히, 경남 등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 농민들은 농작물 침수피해가 허술한 농업인프라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했고, 언론들도 '농업재해보상법'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보도가 다수 있었음.

1) 이 자료는 김동원 전문연구원이 각 지역에서 발행되는 지방일간지의 농업관련 이슈를 선정, 보도동향을 정리한 것임. 이 자료의 기초가 되는 「지방일간지 농업관련 보도 동향」은 매주 월요일 발행되며,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ei.re.kr>)에서 볼 수 있음. 문의사항은 e-mail: dongwon@krei.re.kr로 연락바람.

- 또, 정부가 도시자본 농촌유입을 목적으로 '농촌투자유치센터'를 설치하고 한계농지 등의 개발을 허용한 조치에 대해 각 지역에서는 토지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무분별한 농지개발과 투기 조장 등의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음.
- 마늘협상 파문에 대해서 농민들은 8월 들어서도 여전히 협상 백지화와 마늘농가 보호대책을 촉구했고,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마늘산업경쟁력 제고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신했음. 쌀 추수기가 다가오면서 각지역 RPC를 중심으로 재고가 넘쳐 창고 부족으로 추곡수매 차질을 우려하는 여론도 증가했음.
- 농축산물 브랜드 난립에 따른 문제 제기도 있었고, 고추값이 큰폭으로 떨어져 '가격파동'이 우려된다는 여론도 전북지역을 비롯해 주산지를 중심으로 다수 취급되었음.
- 9월초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전국적으로 극심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언론보도는 농작물 피해규모와 복구비 지원 등에 집중되었음. 특히, 농작물재해보험이 실효성이 없다며 개선을 촉구하는 여론이 다수 취급되었고, 9월 하순에는 태풍 피해로 인해 쌀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보도된 가운데, 농민들의 쌀값 안정 요구도 계속되었음.
- 또한, 전북 등 일부지역에서는 보리계약재배 물량이 편파적으로 배정됐다는 불만 여론이 취급되었고, 9월 중순 농기계 대리점들이 '농업종합자금제'에 반발해 휴업에 들어가면서 수확철 적기 영농 차질을 우려하는 여론도 다수 다뤄졌음.
- 축산업과 관련해서는 9월 하순 송아지값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0% 가량 오르는 등 강세를 보였으나, 돼지값은 사육두수 증가로 30% 정도 하락하는 등 가격파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관심있게 취급되었음.

2. 주요 이슈 (월별)

< 7월 >

○ 韓·中 마늘 협상 '수입제한 연장 불가' 반발

- 2000년 한·중 마늘협상 당시 수입제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7.16 일 조선일보에 처음 보도된 후 전남과 경북 등 마늘 주산지에서는 마늘값이 폭락하고 거래가 끊기는 등 위기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농민들은 정부가 협상결과를 숨겨온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고 보도함.
- 한편, 충북지역 신문이 중국산 마늘이 수입되도 충북지역 마늘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도해 농민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았으나, 대부분의 언론은 일제히 사실을 통해 정부의 도덕성을 비난하고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으며, 피해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함.

○ 재고쌀 추수기 이전 처리 촉구

- 중앙언론에서 재고쌀의 사료화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지역언론은 쌀 과잉 문제는 농정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정부 농정을 비판하는 논조의 보도가 다수 있었고, 재고쌀 처리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국민에게 쌀시장 상황을 있는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추수기인 10월 이전 처리를 촉구함.
- 한편, 전북지역에서는 일선농협이 지난해 추곡 매입가격을 민간도정업자들보다 높게 책정하면서 재정적자가 확대됐다고 지적, 정부와 지자체, 농협, 농가가 사전조율을 통해 적정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협의기구 발족이 시급하다는 보도가 있었음.

○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스템 구축 시급

- 강원 철원지역에서 친환경 쌀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4배이상 급증하는 등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제주지역에서는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적은 보조금 등으로 농가로부터 외면을 받아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보도도 있었음.

- 한편, 전북지역에서는 도매시장내에 친환경 농산물 상장코너가 없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농민들의 관심도 줄어 관련정책자금 대출이 17억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있었음.

○ 구제역 피해농가 보상금 현실화 요구

- 경기지역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정부가 구제역 발생 농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움직임을 보이자, 책임을 농가에 떠넘기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한편, 정부가 강제도살 매립된 돼지 보상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다며 현실성 있는 보상이 산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함.

○ 젖소 도태 논란

- 전남과 경남, 제주지역에서 우유재고 증가에 따른 젖소 도태사업이 성과를 나타내 우유 수급조절에 한 몫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보도가 있었던 반면, 충북지역에서는 전체 대상 젖소의 72%를 도태했으나 원유생산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같은 이유는 우유생산 능력이 저하된 소만 집중적으로 도태된 것이 원인으로 젖소 도태가 우유생산을 감소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등 젖소도태 성과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 폐농자재 수거대책 촉구

- 각지역에서는 폐농약 용기와 폐비닐 등 폐농자재가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 농촌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다수 취급되었음. 특히, 종이와 은박지 등 봉지형 농약용기는 수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폐비닐도 수거장려금이 kg당 30원에 불과해 수거가 부진하다고 지적, 농민들은 수거 촉진을 위한 보상금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함.

< 8월 >

○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촉구

- 8월4일부터 열흘간 집중호우가 내려 전국적으로 3만3천여ha의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가축들이 폐사하는 등 농업분야 피해 소식이 잇따라 보도된 가운데, 각 지역 농업인들은 농작물 피해가 수리시설 부족과 노후화 등 허술한 농업 인프라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 한편, 현행 농어업피해대책법은 보상비중 농가부담이 40~60%에 이를 정도로 높고, 첨단농업시설은 복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실비 보상을 위한 '농업재해보상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함.

○ 한계농지 개발허용... 부작용 우려 목소리

- 정부가 도시자본의 농촌유입을 목적으로 한계농지 개발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자 경기와 충북지방에서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가격이 이전보다 10%선까지 오른 것으로 보도된 가운데, 일부지역에서는 한계농지 개발로 농촌 투기 및 난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었고, 철원군은 한탄강 주변 농업진흥지역까지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농림부에 해제를 요구하는 등 무분별한 농지개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마늘파동 지자체 대응책 부심

- 한·중 마늘협상 파문으로 농민들이 여전히 협상 백지화, 세이프가드 연장 요구 등 반발이 지속된 가운데,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구노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음. 충북 단양마늘시험장에서는 '마늘양갱' '스프링 마늘' 등 다양한 마늘 상품개발에 나섰고, 충남도는 종자개선과 유통센터 설치 등에 3년간 41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전남 고흥군은 토종 육쪽마늘 재배를 확대키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음.
- 또, 지역언론들은 이번 파문으로 마늘농가의 피해와 함께 대체작물의 홍수로 타작물에까지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공산품 수출 이익금

일부를 농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며, <전북도민일보> 등 일부 언론은 WTO체제하에서 특별한 대책이나 조치로 농산물을 계속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었음.

○ 양곡창고 부족, 수매차질 우려

- 최근 재고쌀 사료화 등 추수기 이전 4백만섬 처리 방안이 나오고 대북지원 재개 가능성도 시사되는 등 재고쌀 처리 문제가 이슈화된 가운데, 8월에도 전북과 경남지역에서 올 수추기에 양곡보관 창고가 크게 부족해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전북지역에서만 19만톤 등 상당물량 양곡의 야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음.
- 또, 강원지역의 10개 RPC에서 8월말까지 처분해야할 쌀이 1만5천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천2백톤이나 많아 상반기에만 12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들이 양곡구매 전용카드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전남지역에서도 RPC 보관능력은 82만톤 정도에 불과하나 현재 62만톤이 보관돼 있어 올 수확기에 47만톤은 '야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재고쌀 처분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보도하는 등 재고쌀 증가에 따른 수매차질을 우려하는 보도가 증가하고 있음.

○ 농축산물 브랜드 난립 '부작용' 여론

- 전북지역에서는 브랜드 쌀만 1개 RPC에 7~8개에 달하는 등 전체 1백97개에 이르는데 이중 91%는 품질인증도 없이 유통되고 있어 인지도 확보 차질 등 제값 받기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반면, 경기지역에서는 지자체와 회원농협,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18개의 공동브랜드를 개발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 등 지역언론에는 최근 농산물 브랜드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브랜드로 지역 고유 이미지를 통일하는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음.

○ 고추 '가격파동' 우려

- 충북과 전북 등 고추 주산지에서는 재배면적이 늘고 작황도 양호한데다 수입물량까지 늘면서 가격이 지난해 절반 수준까지 폭락, '고추 파동'을 우려하는 여론이 있었으나, 경북지방에서 8월 중순 가격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고추가격 폭락세가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

○ 돼지·닭 등 가격 소비부진으로 전반적 약세

- 돼지와 닭값의 폭락 소식도 집중적으로 취급된 가운데, 경기지역 구제역 해제로 돼지의 홍수 출하 및 소비 부진에 따라 일부지역에서는 1kg 산지 출하가격이 1천4백원 선으로 생산비 원가에도 못미친다는 보도가 있었음. 또, 경남지역에서는 계란 소비부진과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하락해 지난해 말 보다 28%나 떨어졌다는 보도가 있었고, 전북지역에서는 육계값이 kg 당 7백원대에 그치면서 생산비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돼지와 계란, 육계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

< 9월 >

○ 수해 농가 '보상미흡' 불만

- 9월 중순 정부가 태풍피해 대부분 지역을 '특별지원'키로 한 것과 관련해 각 지역에서는 보상범위를 놓고 마찰이 우려된다는 보도가 다수 취급되었음. 강원지역에서는 농경지 50% 이상 피해때만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에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전북지역에서는 농업관련 시설 및 작물 복구 용자금 규모가 커져 '빚잔치'가 우려된다는 보도도 있었음. 또, 경북지역에서는 피해규모와 지원금액을 놓고 주민 반발이 거세 마찰이 우려된다는 보도도 나오는 등 특별지원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음.

○ "농작물재해보험 실효성 없다" 여론

- 농민들은 이번 태풍 피해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증

가하고 있으나,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대상과 지역을 제한해 전남과 경북 지역의 경우 가입률이 10%선에 그치고 있고, 내용면에서도 '호우' 피해는 특약으로 구분해 가입한 농가도 호우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받는 경우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함. 또, 감곡도 낙과율 30% 이상에만 한정하고 시설재배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약이 많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상지역 및 품목 등의 확대를 촉구함.

○ 벼농사 피해 예상보다 큰 것으로 관측

- 태풍과 일조량 부족 등 기상 악화로 전남지역에서는 올해 쌀 생산량이 당초 예상보다 7~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경남지역에서도 백수 피해 규모가 5백70여ha에 달해 수확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는 보도가 비중있게 취급되는 등 9월 하순 각 지역에서 벼농사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클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 한편, 경남지역 등 농협 RPC가 적자 운영에 자체 수매여력이 없고 정부 지원금도 깎여 수매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보도도 나오는 등 수매시기를 맞아 쌀관련 기사가 증가하고 있음.

○ 쌀값 안정 요구 시위 확산...쌀값은 오름세

- 추곡수매 시기가 다가오면서 경기지역에서는 농민과 지역농협이 벌써부터 수매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9월 중순 경기 평택지역과 전북 정읍 등에서는 농민들이 농민단체와 연계해 '쌀값 보장' 및 '쌀 수입반대'를 위한 대책위를 발족시키는 등 쌀값 보장을 위한 농민들의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함.
- 한편, 9월 하순 전북지역에서는 소비자 가격으로 햅쌀이 80kg당 17만1천 원선에 거래돼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천원 이상 오른 것을 비롯해 대부분 지역에서 최근 한달새 3~6% 가량 올랐다고 보도함. 언론들은 이같은 쌀값 상승세를 대북 쌀 지원으로 재고가 줄고, 햅쌀 공급이 수요에 못미쳤기 때문으로 분석함.

○ 보리 계약재배 수매량 편파 배정 '원성'

- 전북지역에서는 농림부가 2003년산 보리계약재배 면적 배정에서 일부지역은 상향조정하면서도 전북지역은 오히려 8.4%나 줄이는 등 편파적으로 배정했다는 비난 여론이 비중있게 다뤄졌고, 제주지역에서는 마땅한 대체작목도 없는 맥주보리 수매량을 제한적으로 배정한다며 불만여론이 높다는 보도가 취급되는 등 보리 계약재배 물량 배정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음.

○ 농기계 대리점 일제 휴업으로 영농차질 우려

- 농기계대리점들이 농협의 농기계관련 사업에 참여를 허용한 '농업종합자금제'에 반발, 전국적으로 일제히 휴업에 들어가면서 수확기를 맞은 농촌지역에서는 적기영농 차질을 우려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농민들은 농협과 행정당국이 이번 사태에 수수방관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농민단체에서는 농기계 구입자금을 농업종합자금에 포함시켜 영세농가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

○ 돼지값 파동 조짐

- 전남과 경남 등 대부분 지역에서 9월 중순 현재 송아지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량 오르는 등 강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돼지값은 사육두수 증가로 14만원선까지 떨어지면서 가격 파동을 우려하는 보도가 다수 취급됨. 이에 농가에서는 비축수매를 요구하고 있고, 당국에서는 출하 자제를 당부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농촌체험사업 급격 확산

- 주5일 근무제가 확대되면서 경북지역에서는 5곳에 조성된 팜스테이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녹색체험마을 조성 등 농촌체험행사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충북 진천지역에서도 농촌테마마을 체험학습프로그램이 도시지역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는 등 사업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음.

○ 벼농사 수확기쁨 ‘엷말’

- 벼 수확과 추곡수매가 시작되면서 각 지역 언론들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생산량 감소, 수매가 인하, 일손 부족 등으로 수확의 기쁨보다 근심이 더 많다고 보도하는 등 수확기 우울한 농촌 민심을 보도함. 경남지역에서는 수확량이 예년의 80%선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손 부족으로 적기수확을 못해 이중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보도가 있었고, 경기지역에서는 농민과 지역농협이 수매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음. 또, 전북지역에서는 지난해보다 단보당 수확량이 36kg 이하 감소한데다 1등급 비율도 13%나 낮아져 농가들이 울상이라고 보도함.
- 한편, 전남 신안지역 농민들은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면서 흑·백수 피해를 입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피해보상도 논과 밭을 합산해 경지면적의 80% 이상돼야 지급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음. 또, 전남지역에서는 추곡약정 농가가 태풍피해로 수매물량에 차질이 생기면서 선급금 반납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었음.

○ 지자체 농산물 판촉 전략 미숙 지적

- 농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남도가 지난 99년 이후 6차례의 해외판촉을 위한 개척단을 파견했으나, 농수산분야는 단 한차례만 있었던 것으로 지적된 가운데, 충북지역에서는 농특산물 판촉을 위해 각종 국내외 박람회 등에 참가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정작 최근 충북에서 열린 ‘오송바이오엑스포’에서는 농특산물 홍보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있는 등 지자체의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 전략 미숙을 지적하는 여론이 있었음.

○ 한우 사육두수 감소, 돼지 사육두수는 증가

- 강원지역에서는 9월말 현재 한우사육두수가 지난해 말에 비해 12.4%나 줄어 전국적으로 3.9%의 증가세와 비교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경남지역에서는 돼지 사육두수가 9월1일 현재 전년 동기 와 비교해 사육농가는 31.9% 감소한 반면 사육두수는 3.1% 증가해 양돈산업의 기업화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보도가 있었음.

3. 시설 논조 (일자별)

- **제주일보(7.19)**는 지난해 감귤생산량이 당초 예상량보다 11만여톤의 차이를 보였다고 지적, 올해산 감귤은 과학적인 근거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주문함.
- **경남신문(7.19)**은 분유재고량이 계속 증가해 파동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우유소비촉진운동에 국민적인 동참을 호소.
- **경남일보(7.21)**는 쌀과 채소, 우유 등 농산물의 과잉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농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
- **경인일보(7.23)**는 구제역 피해농가가 보상금 문제로 반발하고 있다고 전제, 정부는 구제역 피해보상을 충분히 하라고 촉구.
- **중부매일(7.24)**은 쌀이 남아돌고 있는데도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은 줄고 있는 등 재고쌀을 효율적으로 처분하는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 좀더 다각적인 재고쌀 처리방안을 촉구함.
- **경남신문(7.24)**은 경남도내에서 올해 추곡수매시 부족한 창고가 1백평 규모로 1백60여동이나 된다고 전제, 재고쌀의 조속한 처리 방안을 촉구.
- **강원일보(7.25)**는 고령지 무·배추값의 폭락으로 산지폐기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농정당국의 계획생산과 농민의 자구책이 절실하다고 주문.
- **충청일보(7.30)**는 피서철을 맞아 도시민들이 농촌을 찾아 자녀에게 농촌을 체험하게 하고 농부들의 고민도 함께 나누는 피서를 권장.
- **전북일보(7.30)**는 농산물값 폭락 등으로 인한 농가부채가 또다시 현안이 되고 있다고 전제, 대책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농업관측기능 등이 강화

돼야 한다고 주장.

- **한라일보(8.1)**는 농협의 신용사업이 경제사업에 비해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협의 본질이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 지도·경제사업에 대한 농협의 관심 제고를 촉구함.
- **광주일보(8.2)**는 광주·전남지역이 우리 나라 1차산업 주산지로서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인 조례를 만들어 농어민을 보호하고,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를 이끌고 갈 전문지식과 정보,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
- **경북일보(8.3)**는 마늘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마늘의 효능 등의 홍보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마늘 소비를 늘릴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
- **전남일보(8.3)**는 돼지고기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 폭락과 닭 전염병 확산 등 위기에 처한 축산업을 살리기 위해 공급과잉을 막기 위한 시책과 소비촉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
- **제주일보(8.7)**는 농산물 가격하락과 수입개방 확대로 농심이 흔들리고 있다고 전제, 대체작물 보급과 적정재배, 판로 대책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
- **한라일보(8.7)**는 농림부가 최근 농촌투자유치센터를 설치하는 등 도시자본 농촌 유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는 이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을 촉구.
- **경남일보(8.8)**는 농협자산관리회사 설립과 관련해 농협은 부실채권 회수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농촌이 잘 살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
- **전북도민일보(8.12)**는 농촌지역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나, 노인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농촌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를 촉구.

- **매일신문(8.15)**은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휴경보상제에 대해 쌀 감산을 위해서는 조속히 도입해야할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다만 적용농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
- **제주일보(8.16)**는 감귤 조수입이 3년새 12%나 떨어졌다는 발표에 대해 생산량 감축 등 중장기적인 정책과 함께 농약과 비료 등 농자재값의 인하 유도로 단기간내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
- **경남신문(8.21)**은 경남지방에 집중적으로 내린 비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지역에 농작물 피해가 겹쳐 농민들은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고 전제, 위기감을 더해가는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
- **경북일보(8.22)**는 집중호우로 농작물이 침수되고 상품성이 떨어져 농민들의 피해가 불보듯 뻔한데 장마가 끝나고 농산물 가격이 조금 오르자 일부 언론이 '농산물값 폭등', '금치' 등 자극적인 용어로 농산물값이 물가상승 주범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자제를 당부.
- **경남일보(8.25)**는 외국산 농산물의 대량수입과 쌀, 보리 등 주력농산물의 재고 과잉으로 수매물량을 줄이면서 농민들의 영농의욕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 농심을 달래줄 비전 제시가 절실하다고 주문.
- **경북일보(8.26)**는 농촌지역에 유치원 교육 환경이 부실해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이 자녀 교육까지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농촌지역에 공립유치원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
- **전북도민일보(8.27)**는 일본시장에서 중국산과 경쟁하고 있는 우리 농산물

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 일본 등 동남아권에서 미국과 유럽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 강원일보(8.27)와 매일신문(8.28)은 쌀 감산을 유도해야하는 정부가 생산을 늘리는 정책으로 일관해 개방 재협상 2년을 앞두고 쌀은 남아돌고 있고, 가격은 하락해 농민들만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농업기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
- 경남일보(9.1)는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사용 전기료 인상안에 대해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다른 예산지원을 통해서라도 절대 인상해선 안된다고 주문.
- 강원일보(9.5)는 태풍으로 교통망이 곳곳에서 망가져 물류대란이 일어나면서 농산물 수송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제, 공수 등의 특단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
- 광주일보(9.6)는 농어촌 인구의 감소로 농어촌 버스업계가 도산위기에 처하면서 운송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해 농촌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어촌버스 공영제 검토를 촉구.
- 전북도민일보(9.7)는 학생수가 급감하고 교사들의 근무 기피로 농어촌교육의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전제, 복식수업과 상치교사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을 전담교사로 활용하는 방안 등의 제안을 농어촌교육특별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
- 제주일보(9.8)는 제주지역 농업인들이 지역농협과 축협에 진 빚이 저축액의 1.7배에 이른다는 부채 실태를 지적하고, 농가에 대한 금융지원보다는 경제사업의 비중을 더 높여 농가 경영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

- **경남신문(9.9)**은 농산물 지역표시제 확대와 관련해 이같은 조치는 지역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 **경북일보(9.11)**는 태풍으로 경북도내 일부지역에서는 아직 농작물 복구에 일손이 미치지 않아 조속히 손을 쓰지 않으면 절반 이상의 수확량 감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농작물 살리기에 인력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
- **광주일보(9.12)**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가입대상과 지역의 제한 및 높은 자부담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 보상기준 완화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
- **광주일보(9.14)**는 내년부터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해제와 관련해 우리 농가를 보호하고 농업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우량종구의 생산과 보급 확대,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수입관리의 철저 등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
- **광주일보(9.16)**는 또, 정부와 지자체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역점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4~5단계의 중간거래가 판치는 등 변화가 없다고 지적,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문.
- **경북일보(9.18)**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 지역을 특별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지만 실제 지원금 전달까지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적재적소에 지원금이 투입돼 불만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 해야 한다고 촉구.
- **전북도민일보(9.18)**는 농림부의 2003년산 보리 계약재배 면적 배정에서 타도는 상향 조정된 반면, 전북도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하고 재배면적에 따른 등가배정 등 상식선에서 처리되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

- **전남일보(9.24)**는 전남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특산물의 브랜드 이미지가 낮아 수도권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전제, 지자체와 생산자 단체는 이지역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지 제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
- **한라일보(9.24)**는 농림부가 감귤 등 수출농산물을 공동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논평하고, 이번 조치는 감귤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
- **전북도민일보(9.25)**는 '농촌학자금 지원제도'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운영 면에서 형평성을 기하지 못함과 동시에 선발기준이 현실과 괴리됨으로써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인문계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등 개선책 마련을 촉구.
- **전남매일(9.25)**은 최근 돼지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가격 폭락 사태에 대해, 이번 기회에 정확한 통계에 기초한 양돈농가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해외시장 동향 파악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
- **경남일보(9.29)**는 경남지역 농축산물의 주 수출국인 일본이 수입품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면서 수출에 적잖은 타격이 우려된다고 전제, 수출국을 다양화해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인증 농약만 사용하는 등 농가에서도 품질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
- **전남매일(10.1)**은 국감자료에서 전남도가 99년 이후 해외시장 개척단을 6차례나 파견했지만 이중 농수산물 관련은 단 한차례 뿐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농민들은 농수산물 수출대책에 소홀히 했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
- **한라일보(10.3)**는 설익은 감귤을 카바이드 등으로 익혀 시장에 내다파는 행위로 제주 감귤에 대한 신뢰성과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감귤은 상품만 골라 팔아야 제값도 받고 소비자 신뢰도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